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제주 4·3문화예술축전의 현재적 의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허수정

碩士學位論文

제주 4·3문화예술축전의 현재적 의미

The contemporary meaning of the Art Festival
for the Jeju April 3rd Uprising

指導 박 치 완 教授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13 年 8 月 日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허 수 정

이 論文을 許秀姪의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定함.

2013 年 月 日



審査委員 강진갑 (인)

審査委員 심승구 (인)

審査委員 박치완 (인)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국문요약

역사적 사건들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근현대사의 역사적 사건들의 경우 영상이나 기록 자료를 통해 사건을 살펴볼 수 있으며, 자료들을 바탕으로 도서, 영상, 기념행사, 축제, 기념관 건립 등으로 재현되어 역사를 이어간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4·3문화예술축전은 제주4·3사건을 재현하고 있는 축제이다.

4·3문화예술축전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본 논문은 출발하였다. 4·3사건의 역사적 사실들을 다루고 있으면서 다양한 장르의 재현을 통해 예술적 차원에서 4·3사건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비극을 아름다움으로 표현한다. 4·3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4·3사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상처를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문화정체성을 공고히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이자 아름다운 섬으로 기억되는 제주의 공간 곳곳에 역사적 기억을 붙여넣으며 의미 있는 장소로 거듭나는 역할도 한다.

4·3문화예술축전이 주목받아야 할 가장 큰 이유는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끊임없이 4·3사건의 진실규명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며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인권적 가치에 대한 결과물들이 모였다는 점이다. 단순히 특정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지니고 있는 핵심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왜 4·3사건에 대한 규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4·3문화예술축전에서 4·3사건은 단순한 소재로 사용되지 않는다. 4·3문화예술축전은 곧 4·3사건이다.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후속 세대들의 참여로 축제는 이루어지며 그들은 화해와 상생을 외치고 있다.

핵심어 : 제주4·3사건, 4·3문화예술축전, 축제, 지역문화콘텐츠, 상생의 매개물, 역사적 사건의 축제적 재현

목 차

제 1 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3
3. 선행 연구 검토	5
제 2 장 축제의 연행론적 분석	9
1. 재현	9
2. 연행이론	9
제 3 장 4·3문화예술축전의 역사적 배경 : 제주 4·3사건	17
1. 제주 4·3사건의 발단과 전개	17
1) 전개과정	17
2) 시대별 인식변화	19
2. 피해기록과 진상규명보고서 성과	21
1) 피해기록과 유적지	21
2) 진상규명보고서 성과	26
제 4 장 4·3문화예술축전의 내용과 실제	30
1. 4·3문화예술축전의 변천과정	30
2. 4·3문화예술축전의 내용	34
3. 4·3문화예술축전의 특징	50
1) 연행 공간의 특이성	50
2) 4·3사건과 제주 문화예술의 결합	51
3) 곳의 활용	52
제 5 장 4·3문화예술축전의 현재적 의미	54
1. 장소성 구현	54
2. 사건에 대한 인식과 세대계승	58
3. 비극의 예술적 승화	62

4. 문화정체성 형성	65
제 6 장 결론	69
참고문헌	72
부록	77
ABSTRACT	94



표 목차

[표 1] 4·3사건의 전개과정	19
[표 2] 4·3사건에 대한 인식 변화	21
[표 3] 담론형성으로 바라본 4·3사건 인식변화	21
[표 4] 4·3문화예술축전 변천과정	34
[표 5] 4·3추모제(1989년~1993년) 현황	37
[표 6] 4·3문화예술제(1994~2006) 현황	39
[표 7] 4·3문화예술축전(2007~2013) 현황	41
[표 8] 4·3문화예술축전 주요프로그램과 내용	49



그림 목차

[그림 1] 4·3문화예술축전의 현재적 의미	54
[그림 2] 제19회 4·3문화예술축전 강정마을 해원상생굿과 소통관계	58
[그림 3] 제20회 4·3문화예술축전 전야 행사	62
[그림 4] 제19회 4·3문화예술축전 4·3사진전	63
[그림 5] 제19회 4·3문화예술축전 전야제 2부 공연	64
[그림 6] 김경훈 4·3문학콘서트- 병어리 사만이의 언어들	66
[그림 7] 제19회 4·3문화예술축전 위령제 식전행사 ‘혼백맞이 길닦음’ ...	67



부록 목차

[부록 1] 4·3사건 인명 피해기록	77
[부록 2] 4·3사건 물적 피해기록	78
[부록 3] 잃어버린 마을 곤을동	79
[부록 4] 북촌리 너븐숭이 일대	79
[부록 5] 다랑쉬동굴 학살터	79
[부록 6] 제주4·3평화공원과 4·3평화기념관	80
[부록 7] 4·3너븐숭이기념관	80
[부록 8] 4·3문화예술축전(2007~2013) ‘전야제’ 현황	81
[부록 9] 4·3문화예술축전(2007~2013) ‘4·3평화인권마당극제’ 현황	82
[부록 10] 2007~2013년 4·3문화예술축전 ‘4·3미술제’ 현황	83
[부록 11] 1994~2013년 4·3문화예술축전 ‘4·3평화음악회’ 현황	85
[부록 12] 2002~2013년 4·3문화예술축전 ‘해원상생굿’ 현황	87
[부록 13] 2007~2013년 4·3문화예술축전 ‘4·3사진전’ 현황	89
[부록 14] 2003~2013년 4·3문화예술축전 ‘4·3문학기행’ 현황	90
[부록 15] 2001~2009년 4·3문화예술축전 ‘역사맞이 거리굿’ 현황	91
[부록 16] 2007~2011년 4·3문화예술축전 ‘청소년축제·도민한마당’ 현황 ..	92

제 1 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제주4·3사건은 2013년 올해로 65주년을 맞이하였다. 반백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겨진 사람들은 때때로 침묵을 강요받았으며, 남겨진 자의 몫이라 여기며 기억을 끌어안고 인고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사건 발생 후 폭동이라는 이름으로 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비탄의 화살을 맞기도 했으며, 사건의 진상조사를 마친 현재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4·3사건을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도 한다.¹⁾

근·현대사 교과서에서는 4·3사건에 대해 아주 짧고 간략하게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의 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다. “... J출판사에서 펴낸 교과서에서는 ‘1948년 4월에 제주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 총선거를 방해하고자 소요 사건을 일으켰다’고 적혀 있다. D출판사의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전후해 대규모의 유혈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였다. 제주4·3사건의 배경에는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좌익 세력의 활동, 군정 경찰과 서북 청년단에 대한 반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다. G출판사의 경우 ‘4월 3일 단독 정부 수립 반대와 미군의 즉시 철수 등을 주장하는 제주도의 공산주의자와 일부 주민들이 무장봉기하여, 도내의 관광사와 경찰지서를 습격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²⁾

4·3사건은 논의 자체가 금기시 되던 시기를 지나 사건의 문제를 직시하고 폭동이나 사태의 시각이 아닌 무장투쟁 또는 항쟁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은 1980년대 후반으로, 1989년 재야운동단체들이 사월제공동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추모제를 개최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추모제를 통해 이전에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계기로 4·3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

1) 정치 각계 인사들은 공식·비공식적인 자리에서 4·3사건에 대해 ‘북한의 대남 전복전략’(2013년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군인 대상 강연), ‘4·3은 무장 폭동...민간인 피해는 불가피한 사고’ 등의 발언을 하고 있다.

2) 「4·3은 ‘좌익 세력’ 때문?, 교과서 ‘역사관 왜곡’ 심각」, 『헤드라인제주』, 2011년 3월 25일 (URL:<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476>)

었다. 추모제 행사를 통한 4·3사건의 문화적 재현은 권력 중심이 있지 못하는 피지배자들이 할 수 있는 저항이었다.³⁾

추모제는 이후 ‘문화예술제’, ‘문화예술축전’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행사가 확대되면서 4·3사건의 축제적 재현을 이루어내었으며, 이는 4·3사건에 대한 역사적 교육이나 역사문화탐방, 기념관 방문 등의 행사만큼이나 4·3사건의 과정과 역사에 대한 재인식에 있어 중요성을 가진다. 4·3문화예술축전은 3월 말부터 4월말까지 주제 전역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벌이는데,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4·3거리굿, 미술제, 연극제, 시화전, 사진전, 문학기행, 전야제 등이 있다.

4·3문화예술축전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4·3사건의 상황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거리굿이나 해원상생굿의 경우 4·3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화해와 상생의 삶을 기원하며, 연극제나 미술제의 경우 4·3사건 당시의 상황들을 재현하거나 은유로 표현하고 있다.

4·3문화예술축전은 일반적인 축제와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지만 약 한 달간 개최되는 축전의 행사들의 성격과 4·3문화예술축전 통합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⁴⁾에 앞으로는 단일한 조직기구가 구성되어 축전이 더욱 완성도 있는 형태의 축제 갈래로 발전할 것으로 여겨진다.

축제는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타인과의 공유지점을 재확인하는 시공간이다.⁵⁾ 축제의 공간에서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비일상성과 전도⁶⁾를 경험한다.

3) 문화의 선택과 구성은 지배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지배자들 역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재생산하고 저항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역사나 문화를 이용하였다.

4) 4·3문화예술축전은 개별적 단체들이 구성되어 치러지는 행사로 보다 효율성 있고 짜임새 있는 행사추진을 위해 4·3문화예술축전 통합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제주민예총이 중심이 되어 4·3문화예술제 사업단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이끌어가고 있으나 보다 발전된 4·3문화예술축전을 위해 통합기구 개설을 촉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논의만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5) 류정아, 『축제인류학』, 살림, 2003.

6) 위의 책, 16~17쪽.

"축제를 일상생활의 '단절', 즉 하나의 의례적인 상황으로 간주할 경우에, 축제는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의식이 치러지는 신성하고 종교적인 순간과 장소가 된다. 사회학자이자 상징인류학¹¹자였던 빅터 터너는 이러한 신성하고 종교적인 순간을 '리미날리티 단계'라 칭하고 이러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나 공간을 '코뮤니타스'라고 부른다. 리미날리티란 '문지방'을 의미하는 리멘이라는 말에서 파생한 것으로, 문지방에 서 있는 것과 같이 평소에는 금기로 여겨지는 공간과 행위의 존재를

4·3문화예술축전 역시 마찬가지이다. 축전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재확인하며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본다. 또한 평상시에는 경험하지 못한 슬픔의 감정을 축전에 참여함으로써 표출하기도 한다.⁷⁾ 축제는 인간의 삶의 양식을 반영하고 재현을 통해 또 다른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축제가 보여주는 소통과 공감, 상생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4·3사건의 축제적 재현인 4·3문화예술축전의 분석을 통해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이 현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논문에서는 홀로코스트나 킬링필드와 같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국가폭력과 유사한 사건이자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비극으로 남아있는 제주4·3사건의 축제적인 재현인 ‘제주4·3문화예술축전’을 통해 사건의 의미를 되새기고 남은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4·3문화예술축전은 4·3사건의 기념의례 중 하나로 현혜경은 논문에서 4·3기념의례에 대해 “4·3사건의 원초적 유산을 토대로 현재의 정치적 욕구를 추모와 계승의 축제적·제의적 형태로 실행하기 위해, 특정 시공간에 지속적인 물리적·상징적 자원의 동원이 일어나는 행위⁸⁾”라고 규정하고 있다. 역사적 사건의 축제적 재현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축제나 문화행사와는 다른 주제의식과 형태를 띠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지닌 4·3문화예술축전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4·3문화예술축전은 그 명칭이 추모제와 문화예술제라는 변화를 거치며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⁹⁾ 1989년 도내·외 11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41주기 4·3추모제공동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4·3추모제 행사로 개최되었다. 이후

상정한다는 것이다.”

7) 2012년 제64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행사에서 ‘흔백맞이 길담음’ 행사에 참여한 한 유족은 행사가 진행되고 행사의 절정에 이르자 소리 내어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8) 현혜경, 「제주4·3사건 기념의례의 형성과 구조」, 전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9) 『제주60년예술사(2008)』에서는 4·3문화예술축전의 전신을 추모제가 아닌 4·3예술제로 보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4·3예술제가 태동할 수 있었던 추모제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추모제를 4·3문화예술축전의 태동기로 보고, 4·3예술제는 발전기, 4·3문화예술축전은 확장기로 보고자 한다.

1993년까지의 4·3추모제 행사는 지역 문화 예술인들이 주축이 된 사월제공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주4·3사건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1994년 46주기 4·3추모제를 사월제공동준비위원회와 제주4·3사건 민간인희생자유족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4·3문화예술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¹⁰⁾ 1994년 제1회 4·3문화예술제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해왔으며, 2007년 제14회부터 행사 내용을 확대하고 제주4·3문화예술축전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개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주관으로 매년 4월 3일을 전후로 열리고 있으며 주요 행사로는 전야제, 현장 위령제인 해원상생굿, 거리굿, 연극제, 평화음악제, 문학기행, 미술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4·3사건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¹¹⁾

4·3문화예술축전의 역사적 배경인 4·3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4·3문화예술축전의 초기 형태인 1989년 제1회 추모제부터 시작해 1994년 개최된 제1회 4·3문화예술제, 다시 명칭이 변경되고 내용적으로 확대를 한 2007년 제주4·3문화예술축전까지 시기별 구분을 통해 발전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연행이론의 분석 방법을 참고해 4·3문화예술축전이 갖는 현대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있다. 1장 서론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배경 및 목적을 밝히고, 연구 대상인 제주4·3문화예술축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현재까지 논의된 역사적 사건의 축제적 재현에 대한 연구, 제주4·3사건과 그와 관련된 행사에 대한 연구 등을 살펴보고 본 논문이 나아가는 방향과 기존의 연구들과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이 되는 축제의 연행론적 분석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론적 개념인 ‘재현’과 ‘연행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행이론의 분석 방법을 참고해 4·3문화예술축전 적용의 기여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3장 1절에서는 4·3문화예술축전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4·3문화예술축

10) 4·3문화예술제는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도민의 명예 회복을 도모하며 현대사의 비극인 제주4·3사건을 예술로 끌어올려 진상규명작업을 환기시키고 제주4·3사건의 원혼을 달리기 위해 개최되었다.

11) 제주문화예술60년사 편찬위원회, 『제주문화예술60년사』, 제주특별자치도, 2008.

전의 발생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4·3사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4·3사건의 발단과 과정, 사건에 대한 시대별 인식변화, 90년대 이후 진행된 사건의 진상조사의 성과를 살펴보고, 4·3사건이 제주민들에게 어떻게 남아 인식되고 있는지 그 흔적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3장 2절에서는 4·3문화예술축전 시기별 발전과정과 축전의 운영주체, 구성 프로그램에 대해 개괄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4·3문화예술축전의 특징을 살펴보고 다음 4장에서 논의하는 4·3문화예술축전의 현재적 의미 연구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축제적 재현으로서의 4·3문화예술축전의 현재적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4·3문화예술축전의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연행이론의 분석 방법론을 바탕으로 하여 4·3문화예술축전이 현재에 가지는 의미인 ‘사건의 장소성 구현’, ‘사건의 재인식과 세대계승’, ‘사건의 예술적 승화’, ‘상처의 공유와 공감을 통한 슬픔의 해소가 이루어지는 문화정체성 형성’을 살펴보고,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4·3문화예술축전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5장에서는 4·3문화예술축전의 의미 가치와 축제로서의 가치에 대해 정리하고, 축제적 재현을 통해 비극적인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의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의 지향을 추구하는 4·3문화예술축전의 의미를 되새기고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크게 현장조사와 문헌조사로 이루어진다. 문헌조사를 통해 기존 연구 분석과 이론적 배경이 되는 관련 자료들을 참고하여 개념 정의 및 분석의 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2년 19회, 2013년 20회 4·3문화예술축전의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로 축전이 행해지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기록하며 관객들의 반응을 살폈으며,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선행 연구 검토

4·3사건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후반 문화운동을 시작으로 4·3사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논문으로도 그 결과물이 이어졌다. 4·3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4·3폭동’ 또는 ‘4·3항쟁’이라고 명명하며 90년대까지 이어진 이 시기의 연구 내용은 사건의 전개과정 논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연구, 언론보도의 형태 연구¹²⁾ 등이 주를 이루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4·3사건을 논의하는 연구가 이어졌다. 4·3사건의 전개과정이나 당대 사회상을 연구하는 논의와 함께 교육, 지리, 문화 등 사건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연구로 확장하여 논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사건이 제주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¹³⁾, 4·3사건을 중심으로 역사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¹⁴⁾ 등을 비롯해 최근에는 4·3사건의 생존자에 대한 미술치료적 접근에 관한 연구¹⁵⁾까지 4·3사건을 교육적 차원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다.

사건과 관련하여 문화적 차원에서 논의된 연구들 중 현기영 소설 연구 부문이 단연 돋보인다. 이기세는 사회의식 표출양상을 중심으로 한 현기영 소설에 대한 연구¹⁶⁾를 했으며, 이후 이창훈¹⁷⁾, 김신영¹⁸⁾까지 현기영의 소설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문학적 재현에 관한 연구¹⁹⁾와

12) 정민혜, 「남로당의 적화전략에 관한 연구 : 4·3사건과 관련하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양한권,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박명림, 「제주도 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김광제, 「4·3제주 민중항쟁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김광우, 「언론의 제주4·3보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양정심, 「제주4·3항쟁에 관한 연구 :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김대근, 「제주도 4·3항쟁의 정치적 배경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박진선, 「제주도 4·3항쟁연구 : 배경 및 성격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한미영, 「제주 4·3항쟁 연구 : 통일정부수립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13) 윤석찬, 「4·3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 : 교육시설의 피해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4) 강문순, 「초등학교 역사교육에서 4·3학습방안」,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박영기,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역사 수업 방안 : 제주 4·3사건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5) 김유경, 「제주4·3생존자의 트라우마와 미술치료적 접근 : 생애사와 미술표현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6) 이기세, 「현기영 소설 연구 : 사회의식 표출양상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7) 이창훈, 「현기영 소설 연구 : 4·3소재 중,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3.

18) 김신영, 「현기영 소설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9) 박연정, 「제주 4·3사건의 문학적 재현에 관한 연구 : 현장 체험의 유무를 통하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함께 영상을 중심으로 한 연구²⁰⁾가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4·3문화예술축전을 직접적인 연구대상으로 하는 논문은 현재까지 없으나 이를 포함하는 기념의례에 대해 논의된 것은 현혜경의 연구 논문²¹⁾을 들 수 있다. 현혜경은 4·3사건 담론의 유포가 주로 기념의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의례의 텍스트들이 담론이나 사건을 부상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나 기념의례의 형성과정과 구조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말한다. 4·3사건에 대한 담론들이 시기에 따라 어떤 기념의례로 생산되고 각 기념의례들은 어떤 역학관계를 형성하는지, 기념의례의 텍스트는 어떤 형식과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기념의례의 형성과정과 텍스트와 관련한 사회학적 변수는 어떠한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어떤 역할과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4·3사건과 유사한 역사적 사건으로는 광주에서 발생한 5·18민주화운동²²⁾을 들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문화행사나 축제, 기념의례에 대한 연구는 4·3사건과 비교했을 때 훨씬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4·3문화예술축전과 유사한 행사로는 5·18청소년 연극제와 5·18청소년문화제 레드페스타(Red Festa)가 있다. 5·18기념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문화예술지원을 통해 시행되는 행사로 5·18민주화운동을 기리는 큰 행사이자 역사적 사건의 문화적 재현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로 최근에 한은영의 연구²³⁾가 있다.

이 연구는 5·18민주항쟁에 대한 기념의례 연구가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의례의 형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세대계승 차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음을 언급하며 청소년의 5·18재현과 5·18기억의 세대계승을 살펴보고 있다.

현혜경의 4·3사건의 기념의례 연구와 한은영의 5·18기념의례의 재현 연구는 역사적 사건의 축제적 재현에 대해 ‘기념의례’라는 큰 갈래 아래의

20) 김동만, 「역사재현에 있어 영상자료의 재해석과 활용에 관한 연구 : 영상자료 <제주도 메이데이>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1) 현혜경, 「제주4·3사건 기념의례의 형성과 구조」, 전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22)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전남 광주에서 시민들이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 퇴진, 김대중 석방 등을 요구하며 벌인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3) 한은영, 「5·18기념의례의 재현과 세대계승 : 5·18청소년문화제(Red Festa)를 중심으로」,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영역으로 두고 행사를 바라보고 있다. 4·3사건의 기념의례에는 추모제, 위령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5·18기념의례에서는 청소년문화제인 Red Festa를 중심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에서는 역사적 사건의 재현에 있어서 축제적 성격보다는 기념, 추모, 기억에 중심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4·3문화예술축전에 대한 기초가 될 수 있는 4·3사건의 기념의례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 2013년으로 20회를 맞이한 4·3문화예술축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없으며, 4·3문화예술축전이 내포하고 있는 현대적 의미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된 바 없다. 4·3사건 60주년을 기념하며 진행되었던 2008년 4·3문화예술축전과 이에 대한 백서를 통해 자체적으로 4·3문화예술축전의 의미에 대해 결론을 내린 것이 전부이다.

현재까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연구의 움직임은 보이고 있으나 4·3문화예술축전을 다룬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축제 연구에서 관광적 요소의 차원에서 다뤄지는 연구가 많이 다뤄지고 있고, 이와 같은 축제가 가지는 의미 연구는 많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4·3문화예술축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4·3문화예술축전이라는 축제가 가지는 현대적 의미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제 2 장 축제의 연행론적 분석

1. 재현

리처드 셰크너는 연행이론을 연구하면서 행위의 재현(또는 복원되는 행위)에 대해 말한다. 그는 연극이나 축제 등의 상황에서 연행자들이 드러내는 행위에서의 재현을 다룬다. “재현되는 행위(restored behavior)는 마치 필름 편집자가 필름 조각들을 다루듯이 살아있는 행위이다. 행위의 조각들은 재정리되거나 재구성될 수 있다. 즉 그것들은 그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사회적·심리학적·기술과학적인 독립된 인과적 체계이다. 그것들은 그것들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있다. 행위의 원초적인 ‘진리’나 ‘근원’은—그것이 비록 찬양되고 보존된다고 할지라도—상실되고 무시되고 모순될 수 있다.”²⁴⁾

재현되는 행위는 모든 종류의 퍼포먼스들 속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샤머니즘과 액막이굿, 신들림, 제의로부터 미학적인 춤과 연극, 통과의례에서 ‘사회극’까지, 정신분석으로부터 심리극과 임상적 분석까지 이른다.²⁵⁾ 재현되는 행위는 상징적이고 재귀적이며, 텅 빈 행위가 아니라 다의적으로 의미를 방출해내는 하중이 실린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2. 연행이론(Performance Theory)

연행이론은 인간의 삶을 다룰 때에 정신마음과 결부된 인간의 ‘신체 행위’의 구체적인 과정들, 곧 ‘호모 퍼포먼스’로서의 인간의 본질과 특성과 의미와 가치와 가능성들을 탐구²⁶⁾하는 학문이자 경향이다.²⁷⁾ 인간의 신체

24) 리처드 셰크너 지음, 이기우 외 옮김, 『퍼포먼스 이론 I』, 현대미학사, 2004, 17~18쪽.

25) 위의 책, 18쪽.

26) 리처드 셰크너 지음, 이기우 외 옮김, 『퍼포먼스 이론 II』, 현대미학사, 2004, 254쪽.

27) 리처드 셰크너 지음, 김익두 옮김, 『민족연극학』, 한국문화사, 2004.

김익두는 『민족연극학』 역자서문에서 연행이론에 대한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는 인간의 모든 ‘행위(behavior)’를 연극으로 보고 그것을 민족학·인류학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방향으로, 클리포드 기어츠(Cliford Greertz)·빅터 터너(Victor Turner) 등에 의해 추구된 방향으로, 연극학을 인류학 쪽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의 연구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연극행위(theatrical behavior)’를 민족학·인류학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방향으로, 저지 그로토우스키(Jerzy Grotowski)·피터 브룩(Peter

적 행위와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환경의 맥락 속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바라보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연행을 살펴보면, 연행(performance)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내려지고 있다. 첫째, 그림이나 상징, 기호 등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지각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 둘째, 예술을 통해서 표현하는 행위, 셋째, 언어를 통해서 무엇인가 또는 누구인가를 환기시키는 행위, 넷째, 극장에서와 같이 관중들 앞에서 스펙터클을 펼쳐 보이는 행위 또는 그 스펙터클 자체 등으로 정의된다. 연행의 범주에는 의례나 의식, 의례화 과정, 일상생활의 연행, 해프닝이자 행위 예술과 같은 예술적 행위, 연극, 축제, 스펙터클 등이 포함될 수 있다.²⁸⁾

이는 넓은 의미로 ‘인간에 의해 공적으로 조직된 일련의 유의미한 사회적 신체 행위들’을 통틀어 지칭할 수 있으며, 보통으로는 ‘인간의 신체 행위들 중에서 일정한 공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청관중을 상대로 하여 의식적·의도적으로 행해지는 신체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할 수 있고, 가장 좁게는 ‘공연예술들, 곧 음악·무용·연극·이벤트들’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²⁹⁾

바우만(Bauman & Briggs, 1990)은 연행을 실체의 형성과 그것에 대한 사회적인 반사행위인 ‘의사소통적 과정’으로 간주하였으며, 여기서 연행적인 사건을 텍스트와 맥락의 융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그는 문화적인 연행체들은 공동체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표상적 맥락에 근거하고 있다고 본다. 연행의 외형과 의미가 어떻게 담화의 형태를 구성하느냐 하는 것을 밝혀내는 과정 속에서 연행이론의 인류학적 접근의 타당성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바우만은 연행을 언어행위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터너는 이것을 사회적 과정 속으로 끌어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의례분석을 통해서 사회적 과정을 ‘연행적’인

Brook)·유제니오 바르바(Eugenio Barba)·콜린 턴블(Colin Turnbull)·리처드 셰크너(Richard Schechner) 등에 의해 탐구되고 있는 방향이다. 전자는 ‘인생은 연극’이라는 관점에서 ‘인생’을 보고, 후자는 ‘연극은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연극’을 보는 태도이자 연구 방법인 셈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두 방향이 마치 ‘뫼비우스의 띠’와 같이 ‘인생’이라는 하나의 끈으로 꼬여져 들어가고 부단히 순환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28) 류정아, 「축제의 연행론적 분석」, 『한국프랑스학논집』 Vol. 47, 2004, 161쪽.

29) 리처드 셰크너 지음, 김익두 옮김, 위의 책, 254쪽

것으로 보고, 곧 관점을 점차 확대시켜 의례와 연극 사이의 상호복합적인 관계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터너는 연극적 또는 사회드라마의 원류는 종교적 의례였지만 중국적으로 사회드라마도 의례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자 하였다.(Turner, 1990:13) 셰크너는 연극행위, 제스처, 표정행위 등을 연행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연행이란 대단히 광범위한 행위들을 포괄한다. 특히 연극은 동물행위(인간행위를 포함해서)를 의례화한 것에서부터 일상생활의 연행(인사하기, 감정 표현하기, 가족적인 정경 등과 같은 것)을 거쳐 의례와 의식, 그리고 대규모 극장이벤트와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것들은 연행에 이르는 연속체에 나타나는 결절들이다(Schechner, 1977)”고 설명하고 있다.

연행이론³⁰⁾은 이처럼 확장된 연행의 범주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민속학, 문화인류학, 사회학, 연극학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즉, 연행이론은 연행을 통해 특정 사회공동체의 ‘연행적 의사소통행위’를 고찰하고 그것이 전개되는 맥락을 사회학적이거나 문화인류학적으로 설명하며 나아가 그러한 맥락의 이해를 문화적 기호나 체계로 구성하려는 이론이다.³¹⁾

이기중과 김명준은 연행이론에 대해 “문화를 ‘산물’(cultural product)이 아닌 ‘과정’(cultural process)으로 보면서 인간의 문화행위를 ‘창조적’이고 ‘구성적’이며 ‘협동적인’ 상호행위를 통해 고찰한다. 또 다른 특징은 표현행위나 예술의 장르를 넘어서 춤, 음악, 예술, 연극, 문학, 영화와 같은 다양한 예술적 표현과 인간의 사회문화적 행위를 고찰하기 위한 유용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³²⁾고 밝히고 있다. 연행이론 연구자로는 대표적으로 빅터 터너와 리처드 셰크너를 들 수 있으며, 터너가 사회극 이론에서 말하는 리미노이드와 코뮤니타스, 셰크너의 행위의 재현(복원)과 연행이론 연구 방법 여섯 가지는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4·3문화예술축전의 분석틀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30) ‘Performance’를 공연, 연행 또는 퍼포먼스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행’이라고 쓸 것을 언급하며, Performance Theory/Studies 역시 연행이론으로 쓸 것이다. 따라서 퍼포먼스/공연 이론, 퍼포먼스/공연 학, 퍼포먼스/공연 연구 등의 용어를 연행이론으로 사용할 것임을 알려둔다.

31) 류정아, 앞의 논문, 161~164쪽.

32) 이기중, 김명준, 「‘참여적 모델’로서의 ‘퍼포먼스(Performance) 학(學)’ 시각으로 본 UCC(User Created Contents)」, 『한국방송학보』 Vol.21 No.4, 2007, 220쪽.

리차드 셰크너는 연행의 연구 방법으로 여섯 가지의 방법들을 창안해 제시하고 있다.³³⁾ 첫째, 어떤 공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공연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와 ‘의식’을 어떻게 변환시키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일시적 변환’과 ‘지속적 변환’이 중요한 요점 중의 하나이다. 통과 의례 속에서처럼 ‘지속적’으로든 혹은 미학적인 연극과 신들린 춤 속에서처럼 ‘일시적’으로든, 공연자들—때로는 청관중들도 역시—은 공연활동에 의해서 ‘변환’을 이루게 된다. 그렇다면 이 지속적 변환(transformation) 혹은 일시적 변화(transportation)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공연 중에 있을 때의 행위자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연기 대상의 아이덴티티는, ‘성경창조’·‘재현’·‘모방’·‘일시적 변환’·‘지속적 변환’ 등의 감각을 불러 일으키는 경계선적인 영역들 안에서만 그 위상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연극의 공연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종류의 의식의 변환들이 부단히 요구된다. 이러한 변환들은 공연자 개개인들 사이에서, 혹은 공연단체들 사이에서, 또는 각 개인 청관중들과 청관중 집단들 사이에서 부단히 요구되는 것이며, 이런 실체들 사이에는 분명 몇 가지의 다양한 의식 변환들이 있는 것이다.³⁴⁾

셰크너는 공연자들이 영구히 변화되는 공연을 ‘지속적 변환’이라 부르고, 공연자들이 다시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게 되는 공연들을 ‘일시적 변환’이라 부른다. 공연이 이루어지는 동안 공연자들인 ‘어떤 장소’에 붙잡혀 있게 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끝에 가서는 마무리되고 다시 그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둘째, 그 공연이 공연의 ‘긴장성(intensity)’을 어떻게 구축하는가를 고찰한다. 어떤 공연은 반복·순환·축적의 패턴으로 긴장성을 구축하기도 하고, 어떤 공연은 비반복적·계기적·종결적인 패턴으로 긴장성을 구축하기도 하며, 때로는 ‘저조의 흐름’을, 때로는 ‘고조의 흐름’을 형성하기도 한다. 청관중들은 공연이 끝나는 시간을 잘 안다. 그들의 ‘현전’은 분명한 것이며

33) 리처드 셰크너 지금, 김익두 옮김, 앞의 책, 256~257쪽.

민족공연학(Ethno-performance Studies)이란 공연학 중에서도 민족 혹은 종족 문화 공동체의 공연, 특히 그 공동체의 독자적인 ‘정체성’, 창의성과 관련된 공연들을 연구하는 공연학의 한 분야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이 학문은 어떤 민족 혹은 공동체가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 이루어 놓은, 다른 민족 혹은 공동체들의 공연들과는 다른 특성과 가치의 구명에 그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34) 리차드 셰크너, 김익두 옮김, 위의 책, 14쪽.

그들의 현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 공연자들이 청관중들과 접촉하거나 청관중들을 감동시킴으로써 일종의 공동작업 곧 집단적인 연극적 삶이 탄생되는 것이다. 공연의 이러한 긴장성은 미할리 크식스젠트미할리(Mihaly Csikszentmihalyi, 1975:35~36)가 ‘흐름(flow)’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공연들은, 시간과 리듬이 마치 구체적이고 물리적이고 유연한 사물들인 양, 그렇게 공연의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모은다. 그래서 공연은, 텍스트·소품·의상·공연자 및 청관중들의 육체와 같은 방법으로, 시간과 리듬을 사용할 수 있다. 훌륭한 공연은 소리와 침묵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고, 사건들의 상승도와 하강도를 일시적·공간적·정서적·근육운동 지각적으로 조절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공연 요소들은 복잡하지만 불가피하고 분명한 어떤 패턴 속으로 짜여 들어간다.

이렇게 구축되는 ‘흐름’은, 그 흐름이 클라이맥스를 향해 구축되어 가는 것이 아닌 공연들 속에서도 발생한다. ‘공연의 긴장성’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축적되며 주조를 구축해 나아가는가를 발견해내는 것이다. 즉 그것이 어떻게 참여자들을 끌어들이거나 배제하는가, 어떻게 시나리오나 희곡을 사용하는가 등등을 고찰하는 것- 간단히 말하자면 ‘공연텍스트’ 전체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것은 연출가로부터 청관중 속에서 자고 있는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참여자들의 체험과 행동들을 관찰하는 것이다. 연극과 일상생활의 관계는 그 각자가 그 상대방 속으로 구부러져 들어가는 ‘피비우스의 띠’와 같은 것이다.

셋째, 그 공연에서의 공연자와 청관중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가 어떻게 구축되는가를 고찰한다. 어떤 공연은 공연자와 청관중 사이의 관계가 관음증적인 훑쳐보기식의 ‘단편 구조’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공연은 판소리에서와 같이 공연자와 청관중 사이에 부단한 직접적 상호작용 관계가 긴밀히 이루어지는 ‘열린 구조’로 된 경우도 있다.

공연자들은 세계의 도처에서 공연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이것은 관광여행의 결과 그 이상이다. 이렇게 공연을 변화시키는 것은 또한 자기들의 공연 관람을 참으로 진지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의 역할이기도 하다. 청관중의 이러한 변화들은 결국 공연의 변화에로 인도되어 간다.

넷째, 공연의 전체 과정상의 특징을 고찰한다. 공연의 전체 과정은 ‘준비과정(트레이닝·워크샵·리허설·워밍업) → 공연과정(공연·냉각) → 공연 이후 과정(여파)’으로 이루어지며, 이 전체 과정은 부단히 순환되고 피드백 되는 과정이다. 공연의 7가지의 과정들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여기서 ‘통과의례’와 유사한 어떤 패턴을 발견하게 된다. 즉 하나의 공연은 ‘분리(separation)’과 ‘전이(transition)’와 ‘통합(incorporation)’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Van Gennep, [1908], 1960).

이 3가지 단계의 각 단계들은 신중하게 특징 지워진다. 통과의례 속에서 사람들은 지속적 변환을 경험하는 반면에, 대부분의 공연들 속에서는 일시적인 변환을 경험한다. 통과의례처럼 공연들도 하나의 인간을 다른 하나의 인간으로 ‘만든다’. 그러나 통과의례에서와는 달리, 공연들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연자가 다시 자기 자신의 자아를 되찾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판 헤네프의 3가지 단계들을 활용해 보자면, 트레이닝·워크샵·리허설·워밍업은 예비적인 곧 ‘분리’의 제의이고, 공연 자체는 경계선적인 것 곧 ‘전이’의 제의이며, 마무리·여파는 그 경계선적인 것에 이어지는 것 곧 ‘통합’의 제의이다. 판 헤네프가 제안한 이 제의적 과정의 3단계들은 다른 방법으로도 공연에 적용될 수 있다.

워크샵과 리허설이 함께 사용될 때 이것들은 제의적인 과정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워크샵’은 일상적인 경험 구조를 허물어 버리므로 ‘분리’ 및 ‘전이’의 제의와 유사하며, ‘리허설’은 새로운 문화적 항목들을 만들고 구축하므로 ‘전이’ 및 ‘통합’의 제의와 유사하다. 그래서 ‘워크샵’과 ‘리허설’은 ‘전이’의 과정으로 수렴되는 것이다.

다섯째, 공연 지식들이 어떻게 전승·전파되는가를 고찰한다. 공연지식들은 문자언어로 전승되기도 하고 구비언어로 전승되기도 하며 행위언어로 전승되기도 한다. 패트리스 파비스는 그의 『무대의 언어』라는 책에서, 연극에 사용되는 텍스트들을 다음과 같이 6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³⁵⁾

35) 1. 희곡텍스트(dramatic text) : 연출가가 무대화에 책임을 지는, 극작가에 의해 구성된 텍스트, 2. 연극텍스트(theatrical text): 청관중 앞의 구체적인 영역 안에 있는 구체적인 공표상황의 텍스트, 3. 공연(performance): 텍스트를 포함하여, 그것들의 상호관련을 통한 의미의 생산에 대한 청관중의 관찰에 선행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용된 무대체계들의 앙상블, 4. 미장센(mise-en-scene): 공연체계들의 상호관련, 특히 텍스트와 공연 사이의 관계, 5. 연극사건(theatre event): 미장센에 의해 펼쳐진 공연작품과, 청관중들에 의해 형성된 연출 환경의 총체 및 그 둘 사이에 교환되는 것들, 6. 공연텍스트(performance text): 어떤 희곡 작품의 미장센과, 이에 대한 청관중들의 감상 행위로 이

공연지식의 전승 테크닉들은 연극인들과 인류학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강력한 토대이다. 연극인들은 연극적인 트레이닝 방법을 잘 안다. 연극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그런 트레이닝 방법을 제대로 실천할 수가 있다. 그것은 그 교사들이 배우·연출가·무대장치가·의상 담당자 등으로 트레이닝을 받아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인류학자들은 관찰자로 트레이닝 받는다. 연극인들은 인류학자들이 트레이닝이나 공연상황 속에서 찾아낼 것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역으로 인류학자들은 연극인들이 어떤 특정한 사회구조의 컨텍스트를 고려하면서 공연을 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여섯째, 공연이 어떻게 생성·평가되는가를 고찰한다. 즉 공연의 가치평가 방법을 연구한다. 훌륭한 공연은 어떻게 나쁜 공연과 구별될 수 있을까? 이것을 판별하는 기준은, 1) 그것을 창조해낸 문화 내부의 사람들을 위한 ‘내부자적 관점’과 2) 그것을 창조해낸 문화 외부의 사람들을 위한 ‘외부자적 관점’이라는 두 종류의 체계, 아니면 네 가지 종류의 기준체계, 즉 1) 그 문화 내부에서 그 공연을 창조해낸 전문가들의 기준과, 2) 그 문화 외부에서 그 문화를 방문한 전문가들의 기준과, 3) 그 문화 내부의 평범한 청관중들의 기준과, 4) 그 문화 외부에서 그 문화를 방문한 평범한 청관중들의 기준 등으로 이루어진 체계일지에 대해 논의하며, 참으로 효과적인 비평은 더 많은 연극적 실천들에 의해서 공연으로 피드백 된다고 한다.

4·3문화예술축전은 4·3사건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공연예술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진행되는 축제로 추모적인 성격을 드러내며 역사적 사건의 재현이 이루어진다. 연행이론은 공연 또는 연행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는 연구 방법론으로, 본 논문에서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 4·3문화예술축전을 분석하는 연구 방법론으로 삼았다.

4·3문화예술축전에는 축제를 구성하는 프로그램은 공연이나 전시 등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어우러져 있다. 연행이론은 공연과정, 공연자와 관중, 공연과 관중의 관계를 통해 작품을 이해하려고 한다. 이를 4·3문화예술축전에 적용시켰을 때에는 축제 전반적인 과정과 개별 프로그램들의 과정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축제의 시간과 공간에 따라

루어지는 어떤 가능한 설명.

관중들과 소통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최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행해지는 장소, 관중과의 소통, 프로그램 진행과정 등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4·3문화예술축전이 드러내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리차드 셰크너는 “공연(연행)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경계성(liminality)의 패러다임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계성이란 글자 그대로 문간방(threshold) 즉 여러 공간들을 분리하고 결합시키는 사이의 공간이다.”³⁶⁾고 했다. 이는 4·3문화예술축전에서 행해지는 많은 프로그램에도 적용할 수 있다. 4·3문화예술축전이 시작되면 우리가 생활하던 일상공간, 일상적인 행위들이 맥락에 따라 변화되며 우리는 리미날한 상태에 진입하게 된다. 터너는 리미노이드³⁷⁾ 상태는, 흥분상태에서 어떤 중요한 활동에 완전히 몰입해 있는 사람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비반사적 상태로 이 상태에 있을 때는 행동과 의식이 뒤섞이며, 자아의식이 없어지는 대신 참여자가 열심히 숙달하고자 하는 한정된 분야에 관심이 집중된다³⁸⁾고 하며 축제에 참여할 때 나타나는 상태에 대해 설명했다.

4·3문화예술축전은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예술적으로 표현한 축제로 다른 역사적 사건들의 경우 영화나 문학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있지만 이와 같이 20년의 세월동안 축제를 펼치고, 30년 가까이 문화예술 운동으로 표현한 사례는 흔치 않다.³⁹⁾ 축제를 살펴보면 주요 프로그램들을 다루고, 축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계 속에서의 흐름을 통해 4·3문화예술축전의 의미를 알아보는 것은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36) 리차드 셰크너 지음, 김익두 옮김, 위의 책, 514쪽.

37) 터너는 일반적으로 의례적인 것에서 연극적인 요소를 끌어내는 것을 역으로 추정해 현재의 연극적인 요소를 의례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위해서 의례적인 ‘리미날’과 구별되는 ‘리미노이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즉 의례적인 상황에서 재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의 리미날한 상태는 신성성과 유희성이 재결합하는 시기이고, 이것은 절대적인 권위가 표현되는 코뮤니타스 상황을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38) 빅터 터너 지음, 이기우 외, 『제의에서 연극으로』, 현대미학사, 1996.

39) 「“3대 지나면 눈물 없어져, 20년 4·3예술제도 바뀔 때”」, 『제주의 소리』, 2013년 4월 27일 (URL: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8786>) 박경훈 제주민예총 이사장 인터뷰 참고.

제 3 장 4·3문화예술축전의 역사적 배경 :제주4·3사건

1. 제주 4·3사건의 발단과 전개⁴⁰⁾

1) 전개과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제주도는 광복 후 일본군이 철수하고 외지에 나가 있던 제주인 6만여 명이 귀환하였으나 이들은 직업을 구하지 못하여 생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생필품 부족과 콜레라 발병으로 인한 수백 명의 인명 희생, 극심한 흉년 등이 겹쳤고 일제에 부역한 경찰들이 미군정하에서 다시 치안을 책임지는 군정경찰로 변신하고, 군정 관리들이 사리를 채우는 부정행위를 일삼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947년 3·1절에 경찰이 시위하는 군중에게 발포하여 일반 주민이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남로당 제주도당은 반경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한 결과, 제주도내 전체 직장의 95% 이상이 경찰의 발포에 항의하여 3·10 총파업에 동참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군정은 경찰의 과오를 다스리기보다는 남로당의 선동을 분쇄하는 데만 주력하여 제주도 도지사를 비롯한 군정 수뇌부를 전원 외지인으로 교체하고, 경찰과 우익단체인 서북청년단 단원들을 대거 동원하였다. 주한 미군사령부의 정부보고서에 따르면 3·1사건을 ‘4·3사건의 도화선’으로 보고 있다.⁴¹⁾

40)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화해와 상생 제주4·3위원회 백서』, 2008 참고.

41)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

“1947년 3월 1일 경찰이 제주읍에서 일단의 좌익 3.1절 행사 참가자들을 공격하여 몇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는 제주섬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선동하여 일으킨 소요들은 제주도를 점령하고 있는 미군에 의하여 비교적 느슨하게 억제되어 있었다. 공격을 받은 섬 주민들은 경찰에 대하여 즉각적인 보복을 하였고, 1년여에 걸친 유혈폭력이 시작되었다.”

이로부터 4·3사건이 발발하기 전까지 약 1년간 2500여 명이 구금되고 테러와 고문이 자행되었다.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은 무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1948년 4월 3일 350명의 무장대가 제주도내 12개 지서와 우익단체들을 공격하였다. 이들은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무자비한 탄압을 중지하고, 남한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미군정은 경찰력과 서북청년단의 힘으로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자 경비대에 진압작전 출동명령을 내렸다. 경비대와 무장대는 한때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데 합의하기도 하였으나 우익청년단체가 일으킨 오라리 방화사건으로 무산되었다. 미군정은 지상과 공중에서 방화 현장을 입체적으로 촬영하여 ‘제주도의 메이데이(May Day on Cheju-do)’라는 기록영화를 만들고, 이 사건을 무장대의 소행으로 조작하는 데 이용하였다.

1948년 5월 10일의 남한 단독선거에서 제주도는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무효 처리되었고, 다음달 23일에 재선거를 실시하려는 미군정의 시도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5월 20일 경비대원 41명이 탈영하여 무장대에 가담하였고, 6월 18일 경비대 연대장이 부하 대원에게 암살당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후 잠시 소강상태에 놓였으나 1948년 8월 15일 남한에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다음달 9일 북한에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면서 남한의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 문제를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그해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의 군 병력을 증파하였고,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에 앞서 중산간 지대를 통행하는 차는 폭도배로 간주하여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이 발표되었고, 중산간 마을에 대대적 진압작전이 실시되었다.

1948년 11월부터 중산간 마을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마을의 95% 이상이 불에 타 없어지고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이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은 중산간 마을 주민 약 2만 명이 산으로 들어가 무장대의 일원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진압 군정은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없는 경우에 도피자 가족으로 분류하여 부모와 형제자매를 대신 죽이는 이른바 대살을 자행하기도 하였으며, 재판절차도 없이 주민들이 집단으로 사살되기도 하였다. 또한 세화·성읍·남원 등의 마을에서는 무장대의 습격으로 민가가 불타고 주민들이 희생되기도 하였다.

1949년 3월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설치되면서 진압과 함께 선무작전

이 병행되었으며, 귀순하면 용서한다는 사면정책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하산하였다. 1949년 5월 10일 재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데 이어 6월에 무장대 총책인 이덕구가 사살됨으로써 무장대는 사실상 궤멸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보도연맹 가입자와 요시찰자 그리고 입산자 가족 등이 대거 예비 검속되어 죽임을 당하였고,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4·3사건 관련자들도 즉결처분되었다. 이 사건은 1954년 9월 21일 한라산의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됨으로써 발발 이후 7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표 1] 4·3사건의 전개과정

단계	무장봉기와 5·10선거	초기 무력충돌기	주민 집단희생기	사태 평정기	사건 종결기
시기	1948.4.3~ 1948.5.10	1948.5.11.~ 1948.10.10	1948.10.11.~ 1949.3.1	1949.3.2.~ 1950.6.24	1950.6.25. ~ 1954.9.21
주요 내용	무장대 구성 및 12개 경찰서 피습 미군정의 평화협상 추진과 진압정책 제주도 5·10선거 좌절	미군사령관 진압 지휘 연대장 암살사건과 경비대 개편 8·25지하선거 와 무장대 개편	계엄령 선포 중산간 마을 초도화	진압·선 무 병용작전 5·10재선거 무장대 약화	한국전쟁 예비검속 잔여무장 대 궤멸

2) 시대별 인식변화

4·3사건에 대한 인식은 발생당시에서부터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⁴²⁾ 4·3은 당시 크게 ‘폭동’과 ‘항쟁’의 두 가지 인식이 공존하고 있었다. 미군정 경찰과 우익성향의 신문들은 4·3을 폭동으로 규정하였고, 좌익단체들은 4·3을 5·10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인민항쟁으로 바라보았다. 폭동으로 규정하는 측에서는 군과 경찰의 개입을 통해 무력으로 강하게 진압하였고, 수뇌부들의 의식이 폭동으로 굳혀지면서

42) (유철인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강의자료 참고. 2008 ‘제주4·3의 이해’)

4·3은 건잡을 수 없는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4·3에 대한 인식의 변화의 모습을 보인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에 따라 4·3은 신생 국가를 거부하는 전도민적인 ‘반란’으로 인식되었다. 4·3이 반란이라는 정부의 시각은 1948년 10월 이후 총력을 기울여 진압하는 초토화작전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정부의 시각은 전 도민에 대한 배제와 숙청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발전되었다.

폭동과 반란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은 가운데 한라산 금족령이 1954년 9월 21일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이 시간이 흘러 사태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침묵의 시간이 강요된 가운데, 1960년 4·19 혁명 이후 4·3의 공적 인식은 폭동과 반란에서 ‘수많은 양민이 학살된 사건’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4·3에 대한 논의는 금기시되었고, 국가는 4·3을 다시 ‘폭동’으로 규정하였다. 4·3에 대한 해결의 의지가 불타오르기도 전에 다시 묻히게 되면서 오랜 시간을 ‘없었던 일’처럼 4·3에 대한 기억을 묻어주게 된다.

다시 인식의 전환을 갖게 된 것은 80년대 들어서면서 이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의 열기 속에서 4·3을 ‘민중항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대두하며 4·3에 대한 인식은 변화의 전환을 맞이한다. 민주화운동의 대두로 정치적 접근이 아닌 문화적 접근으로 4·3에 다가서게 되며 민중들의 항쟁으로 바라보게 된다.

1990년대 말, 4·3을 항쟁으로 보는 운동권과 폭동으로 보는 정부의 인식차이는 4·3특별법에서 ‘제주4·3사건’으로 정리되었다. 4·3특별법에서 규정한 제주4·3사건은 소요사태 및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폭동과 항쟁이라는 의견이 공존하던 시기에서 반란으로, 사건으로의 변화가 채 오기도 전에 정치적 환경의 변화로 다시 폭동으로 규정되면서 현재의 4·3사건은 오랜 시간을 숨죽여있어야 했다. 80년대 들어서며 문화적 접근으로 4·3을 바라보는 가운데 폭동과 반란이라는 오명은 일부 해소되었으며, 4·3특별법의 규정과 진상보고를 통해 4·3은 ‘4·3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는 인식 전환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표 2] 4·3사건에 대한 인식 변화

시기	당시	정부수립	4·19혁명	5·16쿠데타	민주화운동	90년대 말~
인식	폭동, 항쟁	반란	학살	폭동	항쟁	사건
내용	미군정·경찰은 폭동, 좌익단체들은인민항쟁으로 규정	대한민국 건국에 거부하는 반란으로 인식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 양민 학살 사건으로 인식	군사쿠데타로 다시 폭동으로 규정	80년대 말, 민주화 운동과 함께 민중항쟁으로 인식	소요사태 및주민이 희생당한 사건

또 다른 방식으로 담론형성으로 바라본 인식변화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고성만은 지배담론으로서의 폭동론, 저항담론으로서의 항쟁론, 합의담론으로서의 양민학살론, 합의 담론의 발전된 형태로서 화해와 상생론을 언급한다.⁴³⁾

[표 3] 담론형성으로 바라본 4·3사건 인식변화

시기	-	1898년 4월 4·3추모제	1994년 4월, 합동위령제	1999년 12월, 4·3특별법 제정
인식	폭동론	항쟁론	양민학살론	화해와 상생론
내용	한국사회의 정치 사회적 영향으로 인한 지배체제 구축	지배 담론에 대한 저항담론으로서 형성	현실적 합의	합의의 발전된 형태

2. 피해기록과 진상조사보고서 성과

1) 피해기록과 유적지

4·3사건의 희생자(사망·실종자)와 이재민 숫자에 대해서는 신문, 국무회의록, 미대사관문서 등 각종 자료에 기록되어 있다. 1949년 2월부터 5월까

43) 고성만, 「제주4·3담론의 형성과 정치적 작용」,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지 희생자 수는 1만 5천 명에서 2만 명까지로 파악되고 있다. 1949년 6월부터 1950년 4월까지의 희생자 수는 최소 약 2만 7천명에서 최다 4만여 명이고, 1960년 4·19 직후 국회에서 진상규명의 요구가 비등할 때 제기된 수치로 4만 명에서 6만 5천명까지 주장되고 있다.[부록1]

4·3사건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는 크게 마을공동체의 파괴 및 소실, 공공시설의 소각 피해, 산업부문의 피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4·3사건으로 발생한 피해마을의 대부분은 1950~60년대 지속적으로 ‘난민정착사업’에 의해 복구되었으나 원주민들의 복귀가 없어 폐허가 된 마을이 생겼으며, 잃어버린 마을이 84곳이 생겼다. 농업, 목축업, 어업, 나잠업, 교역 등 각종 산업부문이 정체되어 주민들이 생활고를 겪었는데, 1949년 5월 당시 제주도 전체 인구의 28.8%가 실업상태에 놓여있는 점을 보아 생활상이 극도로 피폐해짐을 알 수 있다.[부록 2]

제주4·3사건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사건 발생 50여 년이 지난 2000년 1월 12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 제정 공포였다.

4·3사건 진상규명 운동은 1989년에 이르러 활기를 띠었으며, 제주지역의 사회단체들이 ‘4월제 공동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제1회 ‘제주항쟁 추모제’를 제주시민회관에서 개최하며 전개되었다. 행사 직후 5월 10일 ‘제주4·3연구소’가 발족됐고, 제주신문이 1989년 4월 3일을 맞아 「4·3의 증언」을 연재하기 시작하고, 이 연재가 제민일보의 「4·3은 말한다」로 이어지며 1998년까지 책으로 출간되었다.

육지와 떨어져 4·3사건은 더욱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으며, 남겨진 사람들에게 4·3사건은 살아있는 고통이다. 4·3사건의 흔적으로 잃어버린 마을, 학살터, 은신처, 기념공원 등의 유적지가 남아있다.

‘잃어버린 마을’은 제주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마을 중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않아 마을이 사라진 마을을 말한다. 현재 제주에는 84곳의 잃어버린 마을이 있으며, 중산간 마을을 중심으로 대량학살과 마을 초토화 작전에 진행되었었다. 제주4·3사건의 상흔으로 남아있는 잃어버린 마을을 통해 제주4·3사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잃어버린 마을은 일부 경작지로 개간되어 사용되거나 제주4·3사건의 역사문화기행의 장소로 남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제주4·3사건의 아픔을 보여준다.44)

1948년 11월 제주 전역에 소개령이 내려졌는데 중산간 초토화 작전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중산간 마을의 지리적 특성상 사람들이 한번 숨어 들어가면 찾기가 어려워지고 외부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 일어난 일이었다. 경찰은 무장대가 중산간을 찾아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을 했고 중산간 마을 주민들을 모두 해안지대로 보낸 뒤 마을을 불태워 무장대의 은신을 막고자했다. 하지만 중산간 마을에 살던 주민들은 살아온 터전을 모두 잃고 해안지대로 내려가도 무장대와의 내통을 의심받으며 무참히 학살되었기 때문에 숨어살며 목숨을 부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곤을동은 제주시 화북1동 서북 바닷가에 있던 마을로 4·3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별도봉 끝자락에 위치하여 총 67가구가 살던 마을이었다. 1949년 1월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 마을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면서 사라져버리게 되었다. 현재는 돌담이 남아있어 마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봄이면 집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현재는 올레코스에 속해 제주를 찾는 방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부록 3]

또 다른 잃어버린 마을로 서귀포시 영남동이 있다. 영남동은 영주산 남쪽 마을이라는 뜻으로 4·3사건 이전에는 50여 호 정도의 주민이 살았던 마을이었으나 사건 당시에는 16호 정도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1948년 11월 18일경 초토화작전에 따른 소개령이 내려졌을 때 주민들은 해안으로 내려가지 않고 근처 밀림이나 궤에 숨어 생활을 했었고, 토벌작전에 희생되거나 잡혀가 학살되었다. 마을은 복구되지 못했고 잃어버린 마을로 남게 되었다. 현재는 마을 중심에 조그만 암자가 들어서 있고, 북쪽에는 사우나, 풀장, 놀이터 등이 들어서며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

잃어버린 마을은 4·3사건의 대표적인 유적지로 세월이 흘러 일부에는 현대식 건물이 생기고, 관광지로 조성되며 색의 화려함을 더해가지만 당시의 아픔은 지워지지 않고 우리에게 4·3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마을 입구에 세워진 표석에는 잃어버린 마을이 되기 전에는 어떤 마을이었는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4·3사건으로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한다. 이는 마

44) 2013년 20회 4·3문화예술축전에서도 '민예총 예술기행-사진 속 현장을 찾아'가 기획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4·3문화예술축전 기간에 4·3사건 발발 65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4·3역사기행을 마련하였다.

치 전쟁과도 같은 것이었다. 자신을 방어할 무기조차 없는 상황에서 집과 학교, 마을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목숨들을 잃게 되었다. 주민들이 대량 학살된 학살터는 제주 곳곳에 위치하며, 진상규명조사를 통해 현재는 제주국제공항이 위치한 곳에서 대량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더욱 알려지게 되었다.

소설 ‘순이삼촌’은 당시의 끔찍했던 학살현장에 대해 생생한 기록을 전달하고 있다. 북제주군 조천면 북촌리 일대에서 배경으로 북촌리에서 일어났던 대량 학살사건을 연상시킨다. 순이삼촌은 대량학살이 발생했던 때에 목숨을 구했지만 남은 평생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채로 살다가 어느 날 도로변에서 사체로 발견되었고, 이야기는 조카의 제주 방문에서부터 시작된다.

“잘 들으라요. 우리레 지금 작전수행중에 있소. 여러분의 집은 작전명령에 따라 소각되는 거이요. 우리의 다음 임무는 여러분을 모두 제주읍으로 소개하는 거니끼니 소개등 만약 질서를 안 지키는 자가 있으면 아까와 같이 가차없이 총살할 거이니 명심하라우요.” 장교의 귀절은 이북 사투리가 겹 겹어먹는 부락민들의 머리 위에 카랑카랑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제주읍으로 소개시킨다는 말에 반신반의하면서 군인들의 눈치를 살폈다.

우리들은 서로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다. 서로 이름 부르며 가족을 찾는 소리와 군인들의 악에 바친 욕소리로 운동장은 온통 이수라장이었다. 머리 위에서 한 발의 총성이 벼락같이 터진 것은 바로 그때였다. 사람들은 일제히 “아이고!” 소리를 지르며 서편 울타리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 붙었다. 운동장은 순식간에 물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몰려가고 난 빈자리에 한 여편네가 앞으로 엎어져 있고 옆에는 젖먹이 아이가 내팽개쳐져 있었다. 조용한 가운데 그 아기만 바락바락 악을 쓰며 울고 있었다.

무기조차 없던 유약하고 평범한 주민들에게 군인들은 총을 겨누었다.

갓난아이를 업고 있는 어머니에게도, 그저 무서워 떨 수밖에 없던 청년에게도 그들은 어김없이 방아쇠를 잡아당겼다. 하루아침에 이웃이 죽고 가족이 죽었다. 마을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고 남은 사람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다가 그저 죽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4·3사건의 잔혹함을 소설은 이야기하고 있다.

너븐숭이는 군 토벌대에 의해 대학살이 벌어진 참사의 현장으로 당시 희생당한 아기무덤도 남아있다. 북촌리에서는 1948년 음력 11월 16일에 청년민보단원 23명이 낸시빌레에서 집단 희생되었으며, 1948년 음력 12월 19일에는 군인 2명의 피살에 대한 보복으로 온 마을이 불길에 휩싸이고 마을주민 300여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4·3사건으로 인한 마을주민의 희생자 수는 총 443명에 이른다. 오목하게 쏙 들어가 있는 밭이라는 뜻의 움팡밭 역시 북촌대학살 현장의 한 곳으로, 당시 일대에는 시체들이 마치 무를 뽑아 넣어놓은 것 같이 널브러져 있었다고 한다.[부록 4]

또 다른 대표적인 유적지로 다랑쉬동굴 학살터가 있다. 1992년 다랑쉬마을 주변의 다랑쉬 동굴에서 제주4·3사건 당시 토벌대에게 희생당했던 11구의 시신이 발굴되었는데, 이 발굴은 제주4·3사건을 살아있는 현실로 증명했던 사건이기에 그 파장이 매우 컸다.⁴⁵⁾ 1948년 음력 11월 3일에 유격대가 세화리를 습격하였다. 소개령으로 시작된 대토벌로 어려워진 산사람들이 지서가 있는 세화리를 습격한 것인데, 정작 공격을 받은 것은 일반 주민들이었다. 이후 경찰 등의 토벌대가 보복으로 작전에 나서게 되었고, 다랑쉬 큰 굴을 발견하고 작전이 시작되었다. 제주4·3평화기념관에는 다랑쉬 동굴을 재현해 놓은 관이 있어 발견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얼마나 끔찍했고 무서웠을 지를 체험할 수 있다. 은신처 역시 제주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4·3사건 당시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작은 굴에는 깨진 항아리조각이나 생활용품이 발견되면서 대량학살을 추정해볼 수도 있다.[부록 5]

4·3사건과 관련해 잃어버린 마을, 학살터 및 은신처 외에도 기념공원이나 기념관의 설립을 통해 4·3사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4·3평화공원’과 ‘4·3평화기념관’을 들 수 있다. 제주4·3평화공원은 4·3사건으로 인한 제주도 민간인 학살과 처절한 삶을 기억하고 추념하며, 화해와

45) 제주4·3 제50주년 학술·문화 사업추진위원회 편,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1998, 299쪽.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평화인권기념공원을 지향하고 있다. 4·3특별법 제정 이후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었고, 2003년 4월에 기공식을 가진 후 4·3평화공원조성사업은 2008년 3월에 개관을 하였다. 공원은 제주 4·3평화기념관을 비롯해, 행방불명인표석, 위령제단, 조형물(귀천, 비설), 위령탑, 각명비가 세워져 있고, 추념광장, 지역별 추념광장, 수변공간, 시간의 길 등으로 제주4·3평화공원에 조성되어 있다.

제주시 봉개동 산53-5번지에 조성된 제주4·3평화공원은 봉개동 부근에서 벌어졌던 초토화작전이 진행되었던 역사적 현장이다. 이 일대의 벌판, 노리오름, 대나오름 등의 오름은 초토화작전으로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피난했던 현장으로, 4·3사건 희생자의 현장과 유적지들이 산재한 곳까지 부지가 확장되면서 역사성이 보완된 현재의 공원으로 조성되게 되었다.⁴⁶⁾

제주4·3평화공원과 4·3평화기념관은 4·3사건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4·3사건의 전개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제노사이드에 대한 이야기도 전달하고 있다. 4·3문화예술축전이 진행되는 장소로도 활용되며, 각종 4·3사건 관련 문화행사를 비롯해 평화를 추구하는 제주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부록 6]

북촌리에는 4·3 너븐숭이 기념관이 있다. 이 지역은 제주시 조천읍의 해변마을로 일제 강점기에는 항일운동가가 많았고 해방 후에는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조직이 활성화되었던 마을로 북촌리주민의 대량학살이 있었던 곳이다. 2006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너븐숭이 4·3 위령성지 시설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총 부지는 2,532m², 건물 294m²로, 위령비와 북촌리 4·3기념관, 문학비, 휴게소, 산책로, 방사탑 등의 시설이 들어서게 되었다. 전액 국비로 이루어진 이 사업으로 개관한 너븐숭이 4·3 기념관은 지상1층 건물에 북촌리 4·3전시관과 영상실, 묵상의 방,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부록 7]

2) 진상조사보고서 성과⁴⁷⁾

제주4·3특별법에 의한 최고 의결기구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

46) 김민환, 「동아시아 평화기념공원 형성과정 비교연구 : 오키나와, 타이페이, 제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47)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참고.

예회복위원회'이다. 위원회는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의해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법제처장과 제주도지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대표, 관련 전문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는 2000년 8월 28일 출범했으며 모두 20명으로 구성되었다.

특별법 제7조는 진상보고서 작성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을 별도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2001년 1월 17일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기획단이 발족되었다. 위원회와 기획단이 구성됨에 따라 4·3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 발발배경, 전개과정,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되 특히 인권침해 규명에 역점을 두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주력하였다.

진상조사는 2년 동안 4·3사건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규정에 따라 2000년 9월 조사에 착수해 2003년 2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2003년 3월 2일 제7차 전체회의에서 진상조사보고서를 심의 의결했으며, 수정의견을 위해 검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했고, 2003년 10월 15일 제8차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함으로써 진상조사보고서가 최종 확정되었다. 진상조사 활동은 국내외 문헌자료의 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자료집 발간, 증언채록 조사, 검증 및 분석 작업의 단계를 거치며 진행되었다.

정부는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를 통해 4·3사건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로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 내렸다.

진상조사를 통해 발발원인은 3·1절 발포사건으로 제주사회에 긴장 상황이 있었고, 도지사에 의한 편향적 행정 집행과 경찰·서청에 의한 검거선풍, 테러, 고문치사 사건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긴장상황에서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이 5·20 단독선거 반대투쟁 등을 이유로 지서 등을 습격한 것이 4·3무장 봉기의 시발이 되었

다. 4·3사건에 의한 사망, 실종 등 희생자의 숫자를 산출하는 것은 어려우나 신고를 받은 희생자의 수는 14,028명이었으며, 이번 조사에서 여러 자료와 인구 변동 통계 등을 감안해서 잠정적으로 4·3사건 인명피해를 25,000~30,000명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향후 더욱 정밀한 검증작업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희생자의 가해별 통계도 토벌대 78.1%(10,955명), 무장대 12.6%(1,764명), 공란 9%(1,266명) 등으로 산출되었다. 토벌대와 무장대와의 비율로만 산출하면 86.1%와 13.9%로 대비되며, 희생자의 경우 어린이 5.8%(814명), 61세 이상 노인 6.1%(860명)이 전체 희생자의 11.9%를 차지하고, 여성이 21.3%(2,985)으로 컸다는 점에서 과도한 진압작전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진압작전에서 전사한 군인은 180명 내외로 추정되며 경찰은 140명으로 파악되었고, 보훈처에 등록된 4·3사건 관련 민간인 국가 유공자는 모두 639명이다.

서청 단원들이 4·3 발발 이전에 제주에 들어와 도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고, 그들의 과도한 행동이 4·3 발발의 한 요인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서청의 제주 파견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미군이 후원했음을 입증하는 문헌과 증언이 조사되었다.

1948년 11월부터 9연대에 의해 진행된 강경진압작전은 중산간마을 95% 이상을 불태웠고, 가옥 약 4만 동이 소각되었으며 중산간 주민 2만 명가량을 산으로 내모는 결과를 빚었다. 또한 2연대에 의한 즉결처분 피해도 상당한데, 신고 된 자료에 의하면 100명 이상이 희생된 마을이 45개소에 이르렀다. 또한 4·3사건 발발과 진압과정에서의 미군정과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기록들이 발견되었고, 연좌제로 인한 피해 기록도 조사되었다.

보고서에는 제노사이드에 대한 언급을 한다. 국제협약에서 제노사이드는 유엔의 정신과 목적에 위배되고, 문명세계에 의해서 단죄되어야 하는 국제법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1948 제주에서는 이러한 국제법이 요구하는 기본원칙이 무시되었다고 한다. 법을 지켜야 할 국가공권력이 법을 어기면서 민간인들을 살상하였고, 토벌대가 재판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살상하였으며, 그 피해자의 20%가 어린이와 노인이었다는 점은 인권유린임을 말한다.

다각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3사건의 전체 모습을 드러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경찰 등 주요기관의 관련문서 폐기와 군 지휘관의 증언

거부, 미국 비밀문서 입수 실패 등의 아쉬움은 남지만 4·3사건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였다는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공식적인 보고서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의 의의를 둘 수 있다.⁴⁸⁾



48)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한계점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이 점에 대해서 본 논문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고 있다.

제 4장 4·3문화예술축전의 내용과 실제

1. 4·3문화예술축전의 변천과정

4·3문화예술축전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에서 일어났던 제주4·3사건의 비극을 배경으로 한다. 4·3사건에 대한 언급조차하기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문화적 접근을 통해 4·3사건의 진실에 다가서려는 노력들이 따랐다.

1960년 4·19혁명을 맞이하며 4·3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진상규명에 대한 여론이 일어났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4·3사건의 진실은 침묵을 강요받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4·3사건이 주목을 받으며 침묵을 깬 것은 1978년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⁴⁹⁾을 통해서였다. 정치적인 움직임이나 사회 운동이 아닌 책이라는 문화적 접근을 통해 약 17년 동안 말할 수 없었던 4·3사건의 침묵이라는 금기를 깰 수 있었다.

1988년 민주화 운동의 분위기를 타고 4·3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열기는 폭발적으로 일어났으며, 1989년에 이르러 도민들이 본격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인다. 제주신문의 4·3사건 기획물을 비롯해 제주 4·3연구소가 발족되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1989년 처음으로 열린 4·3추모제이다. 제주지역의 운동단체들이 합동으로 사월제공동준비위원회를 결성해 추모제를 개최한 것으로 이후 4·3문화예술제와 4·3문화예술축전의 뿌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3사건으로 발생한 희생자의 추모, 사건의 진상규명, 제주도민의 명예 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여 현대사의 비극인 제주4·3사건의 예술적 승화를 주요 취지로 하는 종합문화예술행사로 4·3문화예술축전은 이어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한국민족예술총연합제주도지회 주관으로 매년 4

49) 제주도의 역사와 4·3사건의 비극에 대한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하는 작가 현기영이 1978년 창작과 비평에 발표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작품으로 대표작이자 첫 소설집이다. 4·3사건으로 극한 고통을 받으며 살다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 소설 『순이 삼촌』(제주에서는 가까운 어른들을 남녀 구분하지 않고 삼촌이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할머니이다.)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월 3일을 즈음하고 열리고 있으며 주요 행사로는 전야제, 현장 위령제인 해원상생굿, 거리굿, 연극제, 평화음악제, 문학기행, 미술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4·3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특히 전야제(4월 2일)에는 4·3사건희생자유족회, (사)제주4·3연구소,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 (사)제주민예총 등 4·3관련 단체들이 대거 참여하여 행사를 치르고 있다.⁵⁰⁾

4·3문화예술축전은 현재 종합문화예술제의 성격을 띠는 행사로 축제성과 예술성을 드러내면서 제주4·3사건의 비극적 역사와 진실규명,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축제로 진행되고 있다. 4·3문화예술축전의 시작은 대개 1994년 제1회 4·3문화예술제부터라고 보나, 이와 같은 행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1989년에 재야운동단체들이 사월제공동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추모제를 개최하면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창립과 함께 역사적 사건의 기억을 예술적으로 형상화시키는 작업이 조직적인 형태로 표출된 시기⁵¹⁾로, 1989년 도 내외 11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41주기 4·3추모제공동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대중적인 4·3추모제 행사를 개최하였다.

사월제 주체들은 반제국주의와 자주적 국가운영에 대한 민중항쟁으로써 일어난 4월 3일 봉기일에 초점을 맞춰 기념함으로써 4·3사건의 현재적 의미를 발생시키고자 하였다.⁵²⁾ 이 시기에는 추모굿(의례)과 진상규명대회(문화행사)가 일체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⁵³⁾고 본다. 진상규명과 추모들 다 중요하기에 의례로서의 추모제와 진상규명을 위한 추모대회가 동시에 치러지고 있었다.

50) 제주문화예술60년사 편찬위원회 편, 『제주문화예술60년사 3』, 제주특별자치도, 2008, 164쪽.

4·3문화예술축전은 제주에서 개최되는 여느 축제와는 전혀 다른 테마와 모형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4·3의 아픔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이 축제는 과거 4·3의 아픈 기억을 끄집어낸 현대 문화축제로 승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데 따른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축제는 다크투어리즘(대규모 희생이 발생한 곳이거나 재앙·잔악 행위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장소나 사건들을 찾아나서는 관광)의 하나로 발전시켜 제주를 방문하는 세계인이 찾는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 대규모 축제에 필요한 고정적인 예산 확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51)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2008 제주4·3 60주년 제15회 4·3문화예술축전백서』,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2008.

52) 현혜경, 위의 논문, 73쪽.

53)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편, 위의 책, 328쪽.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추모와 위령의 성격으로 진행되던 추모제는 1994년 46주기 4·3추모제를 사월제공동준비위원회와 제주 4·3사건 민간인 희생자유족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제주4·3사건의 예술적 승화를 함께 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4·3을 주제로 문화예술활동을 펴온 도내단체와 개인들이 이룩한 성과물을 올바로 계승하고 4·3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제주민예총이 중점사업으로 마련한 것이 4·3예술제⁵⁴⁾이다. 4·3문화예술제는 전야제를 시작으로 역사맞이 거리굿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산하 단체에서 각 장르별로 마련된 행사를 벌였다. 4·3시화전 등의 문학제, 미술제, 마당극제, 음악제, 사진전 등과 4·3위령제에서의 식전 행사 등을 주관하였고, 제주4·3사건과 관련된 역사의 현장을 찾아가 원혼을 위무하는 해원상생굿, 학술행사, 4·3유적지 찾아가기 행사 등을 개최하였다.⁵⁵⁾

제1회 4·3예술제는 민예총 분과위를 중심으로 전야제, 문학제, 미술제, 연극제, 음악제로 치러졌으며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4·3사건의 진실 알리기와 진상 규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다. 문화, 미술, 연극 등 장르별로 치러지던 예술제는 1998년 4·3 50주기를 맞이하면서 변화를 겪게 된다. 1998년 제5회 4·3예술제는 4·3 5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범도민문화축전으로 치러졌다. 제50주년 제주4·3학술, 문화사업추진위원회과 꾸려졌고, 예술제의 내용도 장르별 행사에서 종합예술제로 깊고 풍성해졌다. 이해에 처음으로 도민 해원상생의 큰 굿판이 열렸고, 신산공원에 4·3방사탑이 건립되었다. 1999년 6회 4·3예술제는 4·3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던 미군정의 책임을 영상과 미술장르로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12월에 제정된 4·3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관련행사로 4·3기록영화 ‘제주도 메이데이’가 상영되었고, ‘보이지 않는 손, 보는 눈 - 4·3과 미국전’이 열렸다.

2000년 4·3영화제는 영상을 통한 과거 4·3의 비극을 현재의 기억으로 부활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2001년부터는 행사 명칭을 ‘문화예술제’로 바꾸고 예술제의 범위를 확장했다. 과거, 현재의 역사문화의 중심인 제주 시청과 관덕정까지 4·3 거리굿이 열렸고, 4·3사건의 단초였던 1947년 3·1사건이 관덕정에서 재연되었다. 2002년에는 4·3사건의 현재성과 역사적

54) 「4·3현대적 의미 예술적 형상화」, 『제민일보』, 1994년 3월 26일.

55) 디지털제주문화대전 4·3문화예술제 참조.

(URL: http://jeju.grandculture.net/Contents/Index?contents_id=GC00700012)

의미를 당시현장에서 공유하고 바로 알리는 취지에서 4·3 역사 현장에서 예술제를 진행하였다. 다랑쉬 유골 발견 10주년에 맞춰 4·3 원혼을 위한 해원상생굿이 그곳에서 처음 열렸고, 관련 전시회가 마련되었다. 4·3 증언 마당도 마련되어 4·3 희생자들의 경험을 생생히 육성으로 듣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전체적인 행사의 구성은 1회부터 7회까지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야제(또는 초감제, 전야굿)와 장르별 공연 및 전시형태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2001년을 기점으로 분과위원회의 행사와 기획행사인 거리굿, 해원상생굿, 증언본풀이 등의 사업이 첨가되면서 행사의 팽창을 통한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행사의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제주민예총 창립 이전 시기의 추모제 형식을 계승하여 제주민예총을 구성하는 장르별 작품을 중심에 놓고 행사를 진행하였다.

추모제 시기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전체 4·3예술제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를 보이는 점이다. 이는 4·3문화예술제의 기본 방향인 대중성, 예술적 전문성, 역사적 진실 추구를 위해 중심행사와 부대행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프로그램의 정착과 증식을 거듭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4·3문화예술제의 과제로는 정체성의 확립과 그에 맞는 이미지 구축, 형식에 있어서 역사문화축제로의 확대 재생산구조를 갖추는 것, 소재주의를 벗어나 내용적 측면에서 현재에 기반을 둔 과거의 조명과 예술적 측면에서 전통연희 양식의 차용을 넘어 새로운 시도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 향유계층과 진상규명 계층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 환경에 놓여 있기에 4·3예술의 세대계승을 위한 형식과 내용도 달라져야한다는 것이 있다. 또한 정형화의 문제, 지역축제로서의 발전 전망, 평화를 위한 교훈, 갈등의 치유와 공동체 회복 등으로 4·3사건에 내재하고 있는 가치를 확장시키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1994년 4·3예술제에서 2001년 예술제의 범위를 확장하며 4·3문화예술제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2007년 4·3 59주년 및 제14회 행사에서는 4·3문화예술축전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더욱 행사를 확대하여 4·3의 문화예술적 승화의 의지를 보였다.

현재와 같이 ‘4·3문화예술축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주4·3사건의 59주년을 맞이하여 문화예술제에서 문화예술축전으로 확대하여 개최하였

다. ‘상생의 바람을 타고’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4·3문화예술축전이 매년 3월 말에서 4월까지 개최되고 있다.

행사의 기본 정신은 평화와 인권이며 제주시 일원의 여러 주요 장소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벌인다. 그중 주요 행사로는 4·3거리굿, 미술제, 연극제, 시화전, 4·3사건 현장 사진전, 문학 기행 등이 있다.

2008년에는 4·3사건 60주년으로 4·3문화예술축전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고가 이루어졌다. 백서 발간을 통해 행사별 언론기사와 홍보물을 모아 4·3문화예술축전의 현황을 알아보았고, 지난 20년간 진행된 4·3문화예술축전을 되돌아보는 내용을 담았다. 모니터결과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졌고, 평가결과를 통해 이후 개최될 4·3문화예술축전에 대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4·3추모제가 태동기였다면, 4·3문화예술제는 발전기, 4·3문화예술축전은 확장기라고 볼 수 있다.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추모제가 진행되고, 1994년부터 시작되어 2013년으로 20주년을 맞이하였다.

[표 4] 4·3문화예술축전 변천과정

명칭	4·3추모제	4·3(문화)예술제	4·3문화예술축전
시기	1989년~1993년	1994년~2006년	2007년~현재
성격	추모	문화예술	문화예술, 화해와 상생
내용	주요행사인 추모제와 기타행사로 노래, 마당극, 문학제 등의 행사로 꾸며진다.	전체행사에는 전야제, 거리굿, 증언본풀이마당, 위령제, 식전문화행사, 분과행사로 미술제, 문학제, 연극제, 마당극, 음악공연	전야제를 주요 행사로 하고 있으며, 이전의 문화예술제에서 보다 확대되어 축전이 진행

2) 4·3문화예술축전의 내용

4·3문화예술축전의 주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은 (사)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 제주도지회(이하 제주민예총)⁵⁶⁾이 맡고 있다. 제주민예총은 다양

56) 제주민예총은 1980년대를 몸으로 살아왔던 진보적 문화예술인들의 이상을 담아내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기의 문화예술활동의 성과와 문제까지도 고스란히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지난 시기의 문화왜곡, 일방적 문화이식을 뚫고 개발만능주의에서 소외된 제주민들의 자아를 찾아가는 노력들에 대한 예술적 수용태세와 실천적 예술행위를

한 소속단체를 통해 프로그램 주관을 맡기고, 이들의 운영을 통해 4·3문화예술축전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민예총은 1994년에 결성되었고, 4·3사건을 문화예술의 테마로 정착시키는 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그것은 오랫동안 금기시되었던 4·3을 제주문화예술의 테마로 정착시킴으로써 제주의 역사와 현실을 제주의 문화예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현재 8개 분과위원회(문학위원회, 미술위원회, 연극위원회, 풍물위원회, 민요위원회, 음악위원회, 영상위원회, 사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4·3문화예술축전에서 프로그램 운영의 주관으로 활동하며 행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

문학위원회(제주작가회의)는 겨레의 참다운 민족 문학 건설을 위한 지역적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1974년 자유실천문인협회로 출발하여 1987년 명칭이 현재로 개편되어 민족문학작가회의가 1996년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이후, 제주도지회는 1998년에 설립되었다. 계간문예지 '제주작가'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4·3문학제, 시민(도민)과 함께하는 시낭송의 밤, 제주작가신인상 공모, 제주청소년문학한마당 등의 행사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미술위원회(탐라미술인협회)는 미술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작업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속의 관찰자로 또는 사회 구성원이자 미술인으로서의 역할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 사회가 그리고 그에 속한 예술이 진정 올바르게 진일보 할 수 있게 창작실천을 통해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연극위원회(놀이패 한라산)는 1987년 창립한 극단으로서 제주의 역사와 민생을 예술적 토대로 설정하여 활동하고 있다. 특히 제주 4·3을 마당굿화하여 매해 창작마당판을 열고 있으며, 제주도 곳을 토대로 제주의 정서를 담아내는 놀이굿 작품을 제작하여 현장순회공연을 하고 있다.

지향했던 성과를 모두 이어받는다.

창립선언문에서는 "4·3민중항쟁 정신을 예술창작과 실천 속에서 보듬어 안아 역사의 연표 위에 자랑스럽게 기록되도록 할 것이며 제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섬 공동체를 보듬어 안기 위한 눈물 수건의 역사, 태산땅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예술의 실천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돼야 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라는 문구에서 이제까지 개별적, 장르별로 진행해 왔던 사업들의 연장선에서 좀 더 체계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과의 연대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라는 형식을 빌려 정보의 전국적 소통과 정책적 연대를 이루고 있으나, 활동 내용의 측면에서는 제주지회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풍물위원회(풍물굿패 신나락)는 신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진다는 의미를 지닌 신나락은 제주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1993년에 창립되어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전문예술 단체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주지역문화예술의 전승뿐만 아니라 현재에 맞게 재해석하여 공연예술을 만들어내는 것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통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풍물교실 개최, 소외지역 및 계층을 위한 순회공연 등으로 대중화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민요위원회는 민요패 소리왓, 어린이 민요단 소리나라가 소속되어 있으며, 우리 민요의 멋과 흥을 되살리는 한편, 제주지역의 민요를 발굴, 전수하여 이 시대에 맞는 건강한 우리의 노래, 놀이문화를 보급하는 단체이다. 우리의 소리와 전통문화를 발굴하여 이 시대에 맞게 '소리판굿' 형식의 공연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문화교육 및 보급활동, 조사 및 연구활동, 전통문화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 우리의 건강한 노래, 놀이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민요패 소리왓 부설단체로 초등학교 어린이를 중심으로 1996년 8월에 창단하여 대내외 각종 공연을 통해 전문적인 어린이민요공연단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 주1회의 정기모임과 비정기모임을 통해 민요에 대한 이해와 소리담력을 키워 어린이들만의 신선한 우리문화를 선보이며, 청소년과 어른들에게까지 우리고유의 정서가 담긴 놀이문화를 알리고 있다.

음악위원회 노래세상 원은 제주도 노래운동의 주축이었던 '노래빛 사월'과 '섬하나 산하나'를 하나로 통합한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노래하는 음악단체로서, 다양한 형식의 음악 창작활동과 공연을 통해 대중 가까이에서 제주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년 정기공연과 4·3평화 음악제, 한여름 밤 공원 작은 음악회, 광주오월음악제, 강정생명평화축제 등 꾸준한 음악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영상위원회 탐라영상인협회는 제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작업방식의 영상작가들과 미디어활동가들의 모임이며, 인간존중과 빈부, 인종, 성, 계급, 능력, 학력, 장애의 차별 없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실질적인 목적을 지향하는 단체이다.

사진위원회 탐라사진가협의회는 2005년 7월 8일 설립되어 사진을 통한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함은 물론 사진이 갖는 사회적 역할에 주목, 사회공동선의 추구하고 제주와 제주인의 입장에서 투영하는 올바른 제주의 사진

상을 정립,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운영주체로서 제주민예총은 8개의 분과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의 주관을 맡아 진행을 한다. 문학위원회의 제주작가회의는 4·3시화전, 4·3문학기행, 심포지엄 등을 맡고, 미술위원회인 탐라미술인협회는 4·3미술제, 연극위원회인 놀이패 한라산은 사월극과 평화인권마당극제, 풍물위원회인 풍물굿패 신나락은 위령거리굿, 민요위원회 소리왓과 어린이민요단은 전야제 및 해원상생굿에서 일부를 맡아 진행하며, 음악위원회 원은 4·3평화음악제, 영상위원회는 4·3행사 진행에서의 영상물 관련 운영, 사진위원회 탐라사진가협회의는 4·3사진전 및 기획전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⁵⁷⁾

4·3문화예술축전은 추모제와 4·3문화예술제 시기를 거치면서 축전의 구성 프로그램이 확장되고 주요 프로그램이 자리 잡아 진행되고 있다. 추모제 시기에는 추모제를 중심으로 하며 노래, 공연, 유적지 순례, 전시 등의 행사가 시행되었다. 4·3사건의 문화예술 운동의 일환으로 추모의 성격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4·3위령제가 이 시기에는 추모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행사의 기간도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10일 정도로 현재보다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

[표 5] 4·3추모제(1989년~1993년) 현황

구분	일시	추모제	기타 행사
제1회	1989. 4.1~ 4.8	초감제(수심방:안사인 중요 무형문화제71호) 41주기 4·3추모제 및 범도 민진상규명축구대회 1부 추모제 2부 4·3진상규명 축구대회 (장소 : 제주시민회관)	4·3 슬라이드 상영 4·3노래공연 : 4·3관련 창작곡 및 민중가 요 마당극 공연 : 4월굿 한라산 추모강연 : 4·3어떻게 볼 것인가? 4·3증언 및 토론회 4월 미술전 : 열림굿과 민족미술 심포지움 4·3문학제 : 4·3시전과 4·3문학이야기 마당
제2회	1990. 4.1~ 4.8	4·3 42주기 추모제 4·3 해원굿 제주도민에게 드리는 제안 서발표 각계의 입장발표	4·342주기 4월제 4·3학술 세미나 : 4·3의 민족사적 의의 4월 문학제 : 4·3문학이야기마당 노래공연 : 잠들지 않는 남도 마당극 공연 : 백조일손

57)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소속단체 설명 참고.
(URL:http://www.jejuculture.co.kr/introduction_1_5.html)

		결의문 낭독 (장소 : 제주대교)	4·3추모한라산등반대회 : 참교육실현 및 4·3추모를 위한 한라등반대회
제3회	1991. 4.1~ 4.10	4·3 43주기 추모제 무산. 유적지 순례 (1991.4.5) 중 송악산 고사 포 진지에서 추모제 거행 (장소 : 탐동광장 ~ 송악 산)	4·3제주민중항쟁 43주기 사월제 세미나 : 민족사 속에서의 제주민중항쟁 4·3유적지순례 : 첫알오름 ~ 백조일손 마당극 공연 : 4월굿'헛묘, 시신도어선 헛 산이라' 사월시화전
제4회	1992. 4.2~ 4.12	4·3제주민중항쟁 44주기 추모제 '사월제' 추모대회 1부 분향, 열림굿(제문형) 2부 4·3 추모 노래공연(섬 하나산하나, 노래빛 사월) 3부 범도민 진상규명 촉구 대회 (장소 : 탐동광장)	4·3제주민중항쟁 44주기 사월제 제2회 4·3 슬라이드 상영 : '4·3제주민중항 쟁사' 4·3유적지 순례 : 동광리 일대 사월청년 토론회 마당극 공연 : 4월굿 꽃놀림 4·3집체극 : '잠들지 않는 남도'
제5회	1993. 4.1~ 4.5	1부 식전행사(추모굿, 공동 대표 및 각계인사 소개) 2부 본행사(국민의례, 4·3 영령에 대한 의례, 공동대 표/추모위원회/각계인사/유 가족 대표 공동 분향 및 헌화, 경과보고, 추모사 낭 독, 추모시낭독, 추모노래, 45주기 사월제를 맞는 우 리의 입장 낭독) 3부 참석자 분향 및 추모 행진(장소 : 탐동광장)	제주4·3항쟁 45주기 사월제 마당극 공연 : 살짜기 읊서예 4·3유적지 순례 : 다랑쉬굴 일대 사월추모 시전 : 4·3에 대한 부정적인 인 식의 극복

1994년부터는 처음으로 4·3문화예술제가 개최되었다. 전야제의 성격을 띤 풍물공연, 거리굿, 큰굿, 노래공연, 마당극, 4·3중언 등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해서 4·3문화예술제의 시작을 알렸다. 추모제 때 시행되었던 문화예술공연들을 보다 확장하여 문학제, 미술제, 음악제, 마당극제, 영상제, 영화제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특히 역사맞이 거리굿은 전야제를 구성하는 요소이자 4·3문화예술제 프로그램의 중요한 축을 담당⁵⁸⁾한다.

58)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앞의 책, 332쪽.

[표 6] 4·3문화예술제(1994~2006) 현황

구분	전체행사	분과행사
1994 제1회	초감제 - 영감놀이	미술제 : 닫힌 가슴을 열며 추모 노래 공연 : 창작 노래, 시, 영 상이 결합된 형식 ‘섬은 고운 노래를 부른다’ 마당극 : 사월굿 사월 문학제 : 문학의 밤
1995 제2회	전야굿 - 산신놀이를 각색해 4·3을 재 현 - 합동위령제	미술제 : 뉘이여 오라 문학제 : 4·3문학의 밤 추모노래 공연 : 섬의 하나됨을 위하 여 마당극 : 목마른 신들
1996 제3회	전야제 - 길놀이, 초감제, 노래와시, 민요, 풍물판굿, 씻짓굿 등	문학제 : 4·3문학의 밤 미술제 : 4·3-그 되살림과 깨어남의 아름다움 연극제 : 4월 상생굿 - 4·3의 기초
1997 제4회	전야제 - 여는 마당 : 시내일원 길놀 이, 민요마당 - 추모마당 : 국판, 추모시, 추 모의 노래, 북춤, 풍물판굿 - 열린마당 : 배가르기 및 대 동놀이	미술제 : 자연·사람·역사 문학제 : 4·3시화전, 4·3문학의 밤 마당극 : 서청별곡 음악제 97 사월서곡 첫 풍물 : 태 사른땅 신나락 만나락 하 옵소서
1998 제5회	50주년 도민해원상생굿 - 시왕맞이 굿, 민요, 풍물, 민 중가요	문학제 : 작가와의 대화, 세미나 미술제 : 상극의 빗장을 열고 상생의 아름다움으로 및 특별전 영상제 : 4·3다큐멘터리(본풀이)상영 마당극 : 사팔생오칠줄 음악제 : 4·3 50주년 기념공연 - since 1948 화석 풍물 : 뉘살림
1999 제6회	전야제 - 풍물, 춤 및 일본 우타고애 노래 공연	미술제 : 보이지 않는 손 보는 눈 영상제 : 4·3기록영화(제주도 메이테 이)

	- 연합공연 '월동 걸동 저영산 보아라'	문학제 : 4·3문학기행 음악제 : 기억이 아파올 때 마당극 : 사월굿 격랑
2000 제7회	전야제 : 해원상생의 큰 굿	문학제 : 4·3문학심포지엄, 4·3문학의 밤 연극제 : 4월굿 '광기' 영화제 : 다시보는 4·3다큐기록 사진전 및 4·3다큐영화상영 음악제 : 부활 미술제 : 역사가 서린 땅
2001 제8회	역사맞이 거리굿 : 시내일원 3·1사건 재현, 춤과 노래공연 4·3유물 및 유적전 : '꽃진 자리'	미술제 : 한라와 무등 - 역사의 맥 문학제 : 4·3문학심포지엄 마당극 : 애기동백꽃의 노래
2002 제9회	역사맞이 거리굿 : 3·1절 발포 재현 다랑쉬 해원상생굿 : 살아남은 자의 흰 그늘 증언본풀이 : 생존자의 증언	문학제 : 4·3시화전 미술제 : 일상이 된 테러, 두드려라! 마당극 : 4월굿 '원죄' 영상 : 4·3다큐 - 다랑쉬의 슬픈노래
2003 제10회	역사맞이 거리굿 북촌리 해원상생굿 증언본풀이 : 입산때 고랑 놔둬사주	문학제 : 4·3시화전, 4·3문학기행 미술제 : 진실의 햇불 밝혀 평화의 바다로 마당극 : 사월굿 꽃놀림 소리판굿 : 뽕이야 자랑아
2004 제11회	4·3거리굿 : 그 희망의 시작 곤을동 해원상생굿 : 울담만 남은 보름코지, 맺힌살 풀다 4·3후유장애자생애사아카이브 전 : 몸에 새긴 역사의 기럭 4·3위령제 열림굿	문학제 : 전국민족문학이넷주대회, 4·3글전 미술제 : 동행 마당극 : 사월굿 헛묘 사진 : 되돌아본 4·3 57주년
2005 제12회	전야제 : 역사의 아픔을 딛고 평화의 큰길로 역사맞이 거리굿 : 역사의 눈으로 역사를 본다 표선백사장 해원상생굿 4·3위령제 식전문화행사	사진 : 4·3사진전 미술제 : 4·3미술제 문학제 : 4·3시화전, 4·3문학기행 음악제 : 4·3콘서트 연극제 : 4·3연극제

2006 제13 회	4·3전야제 역사맞이 4·3거리굿 찾아가는 현장위령제 4·3해원 상생굿 위령제 식전문화행사	문학제 : 4·3추념시화전, 4·3문학기행 사진 : 4·3사진전, 4·3위령제 사진전 미술제 : 4·3미술제
------------------	--	--

4·3문화예술제에서 4·3문화예술축전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행사는 더욱 확장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4·3문화예술제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은 유사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4·3사건의 60주년을 맞아 4·3문화예술축전의 기록을 정리하는 백서의 발간이 있었고, 꾸준히 분과행사들을 진행하며 4·3사건의 예술적 형상화된 작품들을 내어놓았다.

[표 7] 4·3문화예술축전(2007~2013) 현황

구분	주요 행사	분과·기타 행사
2007 59주년 14회	전야제, 위령제 식전행사, 평화인권마당극제, 거리굿, 빌레못굴 해원상생굿	4·3증언본풀이마당, 음악제, 미술제, 문학제(시화전, 문학기행), 사진전
2008 60주년 15회	전야제, 위령제 식전행사, 큰굿한마당 해원상생굿, 의귀리 해원상생굿	음악제, 연극제, 소리굿, 미술제, 평화마당극제, 문학제, 도민문화한마당, 청소년평화축제
2009 61주년 16회	전야제, 위령제 식전행사, 옛 정뜨르 비행장 해원상생굿	음악제, 미술제, 사진전, 증언본풀이마당, 평화 마당극제, 청소년평화축제, 도민문화한마당, 4·3 연합공연, 문학기행
2010 62주년 17회	전야제, 위령제 식전행사, 터진못 해원상생굿	미술제, 사진전, 마당굿, 문학제(문학기행, 시화 전), 음악제, 마당극제, 소리굿, 체험마당
2011 63주년 18회	전야제, 위령제 식전문화행사	증언본풀이마당, 문학제(시화전, 심포지엄, 문학 기행), 사진전, 미술제, 음악제, 청소년평화축제, 마당극제, 사월굿
2012 64주년 19회	전야제, 위령제 식전문화행사, 강정마을 해원상생굿,	다큐멘터리 영화제, 음악제, 위령거리굿, 사월굿 산호수놀이, 평화인권마당극제, 사진전, 미술제, 문학기행, 추념시화전, 시집발간, 국제문학심포 지움
2013 65주년 20회	전야제, 위령제 식전문화행사, 해원상생굿	기념식 및 음악회, 사진전, 심포지엄, 4·3거리굿, 김경훈 4·3문학콘서트, 4·3예술기행, 4·3평화문 학기행, 찾아가는 위령제 해원상생굿, 4·3미술제

4·3문화예술축전의 구성 프로그램은 미술제, 영화제, 음악제, 사진전, 시화전, 전야제, 해원상생굿, 거리굿, 심포지움, 위령제 식전행사, 연극제, 문학기행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열린 축전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대부분 매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주제에 맞춰 그 내용을 달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야제는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드러내는 프로그램이다. 4월 3일을 기점으로 두고 4월 2일 4·3문화예술축전 전야제 행사는 진행된다. 매년 4·3사건을 추모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주제를 매년 3부의 구조를 가지고 진행된다. 3부의 본식이 시작되기 전에 식전행사로 풍물마당행사를 통해 전야제의 시작을 알리며, 본격적인 행사에 들어가서는 풍물굿패의 하늘을 여는 최초의 굿판을 살린 삼석울림으로 진행이 된다. 전야제는 4·3문화예술축전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연극이나 음악공연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행사이다. 4·3사건을 통해 제주민들이 갖고 있는 상처와 이것을 극복하고 화해로 나아가기 위한 대표적인 장으로 4·3문화예술축전에서 큰 흐름을 가지고 있다. 시대와 함께 '역사 진실 찾기'를 문제제기하며 예술적 승화의 장을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한다.

초반에는 노래공연이나 풍물로 구성을 하거나 굿행사를 통해 전야제가 진행되었으며, 해를 거듭하면서 전야제가 다양한 식순행사로 형태를 띠게 되었다. 2005년 현재의 진행되는 전야제의 형식을 띤 4·3전체 전야제를 기획하면서 내세운 원칙은 4·3전야제가 살아 있는 '생명력 있는 전야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 현 시기 가장 긴박한 '평화의제'를 제시해 전야제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는 프로그램을 설정한다는 점, '망각이 아닌 기억의 제의'로서의 전야제여야 한다는 점 등을 주목할 만하다.[부록 8]

4·3평화인권마당극제는 매년 '생명의 호흡 평화의 몸짓'이라는 같은 주제 아래 다양한 지역에서 초청된 극단의 공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4·3추모제가 일어났던 시대의 성향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마당극의 형태로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며 4·3문화예술축전의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4·3특별법 제정과 국가폭력에 대한 대통령 사과 등 일련의 4·3운동 성과를 살펴보고 4·3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예술적으로

승화시켜내고자 하고, 외세와 무소불위의 권력에 맞서 가족과 이웃, 마을 공동체, 제주도를 지켜내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려 했던 제주도민들의 평화·인권·통일의 바람을 담아내고자 하는 마당이다. 또한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역사를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 사회 약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노동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며 보다 미래지향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인류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생각한다.

고통으로 얼룩지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마당으로 4·3의 올바른 의미를 살려내고 진상 규명을 통해 모든 이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해원상생의 마당이자 제주도민과 제주도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평화·인권의 소중함을 느끼고 일깨워 나가며 누구나 참여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예술축제의 마당인 것을 취지⁵⁹⁾로 삼고 있다.

4·3평화인권마당극제에서 진행되는 초청공연들은 4·3을 직접적으로 다룬 작품은 대부분 제주에 있는 극단에서 만들어진 공연이며 대구, 청주, 대전,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공식초청작으로 오는 마당극은 반드시 4·3 사건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마당극이 지닌 민중적인 요소, 무대 안의 사람과 무대 밖의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모습을 담아낸다. 4·3평화인권마당극제는 4·3문화예술축전이 지향하는 바를 담아내면서 지역간의 교류를 통한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소통의 영역을 확장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부록 9]

4·3미술제는 제주민예총 미술위원회 탐라미술인협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1994년 4·3예술제부터 진행되어 온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관련 작품은 250점이 넘는다. 미술제에서는 다양한 작품들의 전시를 통해 4·3 사건의 현재화에 대해 꾸준히 고민해오고 있다. 4·3을 주제로 하여 마련된 작품들은 당시 사건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사실적인 작품부터 추상적인 형태로 우리들 앞에 4·3을 내어놓기도 한다.

미술제 참여를 통해 4·3문화예술축전을 찾은 사람들은 그림이나 조각 등의 미술작품으로 드러난 4·3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공연이나 기행 등의 체험과는 또 다른 의미의 4·3사건 만나기를 이어간다. 4·3미술제는 제주지역의 미술의 역사와 함께 한다고 볼 수도 있다. 4·3을 주제로 한 작가 강요배의 작품은 예술성을 인정받으며 그의 작품은

59) 2008년 4·3 60주년 제15회 4·3문화예술축전 4·3평화마당극제 팸플릿 참고.

곧 4·3의 기록물로 우리와 4·3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부록 10]

4·3평화음악제는 4월 3일 전후로 야외 공연장이나 실내 공연장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이다. ‘음악’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4·3문화예술축전을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언어의 부담을 넘어 소통하고자 한다. 음악제는 4·3에 대한 재인식과 화해와 상생이라는 의미 공유를 전달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4·3문화예술축전을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출연진은 제주 지역의 밴드나 합창단을 비롯하여 지역 출신의 가수와 음악가들, 유명한 가수들로 구성된다. 4·3을 기념하고자 하는 의미도 크지만 모든 4·3문화예술축전의 프로그램이 그러하듯이 앞으로의 평화로운 삶에 대한 지향을 담고 있기에 4·3사건의 의미를 강조하는 음악이나 민중음악만 공연 무대에 오르지는 않는다.

추모제가 예술제로 변모하면서 4·3사건을 주제로 한 음악을 중심으로 노래공연이 분과행사 또는 기타행사로 진행이 되었다. 2008년 4·3 60주년 제15회 공연의 경우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많은 인디밴드와 가수의 초청을 통해 세대간의 격차를 줄이고 다양한 세대의 참여를 유도했으며, 2012년 4·3 64주년 제19회 공연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뚜렷부라더스나 제주빌레앙상블 등의 공연을 통해 지역의 문화활동의 영역을 지원하는 역할도 했다고 볼 수 있다. 음악제는 운영주체인 제주민예총의 음악위원회 ‘원’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원’의 무대도 꾸며진다.[부록 11]

찾아가는 위령제 해원상생굿⁶⁰⁾의 다른 축제에서 보기 힘든 4·3문화예술축전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전통적인 공연예술적 요소인 ‘굿’이 4·3문화

60) 해원상생굿 설명 팸플릿. 비극적 죽임을 당한 학살터를 찾아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상처 받은 장소, 즉 중임의 장소였던 자연까지도 함께 치유하는 상생의 굿이며 생명의 굿이다. 이는 인간과 자연이 동시에 치유되어야 할 대상임을 일깨우는 일이며, 죽음의 터전이 되어 기억하기 싫은 몸서리치는 죽은 땅을 되살리는 희생의 제의이기도 하다. 현재의 문화예술과 전통적 연희인 굿을 빌려 죽은 자와 죽은 땅에 보시하는 일로 맺힌 죽음, 맺힌 땅을 풀어주는 본풀이이며 땅풀이다. 해원상생굿은 의례의 미적 전유를 통한 역사의 예술화, 의례의 조형화를 이룩하고자 한다. 해원상생굿은 예술가들이 미의식으로 역사적 비극을 치유하는 예술화과정이다. 굿이라는 장르 분화 이전의 원초적 미의식과 전통적 의미의 춤, 소리, 시를 동원하는 것으로 역사, 사건, 의례를 예술적으로 전유하는 과정이다. 또한 죽음의 공간에 각종 설치 상징을 통하여 공간의 의례의 조형화를 추구한다. 즉 조형성과 연행성, 시간성과 공간성, 정치성과 예술성을 공히 추구하는 미적 전유의 과정이고 예술에 대한 의식의 재규정임을 알 수 있다.

예술축전이 지향하는 ‘화해와 상생, 생명과 평화로의 나아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주요 프로그램이다. 매년 4·3의 흔적이 남은 곳을 찾아 해원상생곳을 펼치며 이미 떠난 자와 남아있는 자들의 혼을 달래주고 있다. 해원상생곳은 역사의 예술화, 사건의 예술화, 의례의 예술화, 시각적 예술화, 정치적 예술화, 공간적 예술화를 목표로 하며 2002년 다량쉬동굴에서의 해원상생곳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2002년 4·3사건 54주년 제9회 4·3문화예술제에서 다량쉬굴 발굴 10주년 기념으로 위령·해원상생곳이 진행되었다. ‘살아남은 자의 흰 그늘’이라는 주제로 찾아가는 위령제 형식으로 시작된 해원상생곳은 2003년에는 북촌리 마을 내 당팻과 학살터에서 진행되었으며, 2004년에는 제주시 화북 곤을동 4·3초토화 마을, 2005년에는 표선리 백사장의 학살터인 한모살터, 2006년에는 조천읍 선흘리 목시물굴로 이어졌다.

예술제가 더욱 확대된 2007년 4·3문화예술축전에도 해원상생곳은 계속 이어졌는데, 2007년 빌레못굴 희생터는 1949년 1월 16일 애월지역 합동토벌대에 의해 빌레못굴에 숨어있던 어린아이들과 부녀자, 노인 등이 굴안팎에서 27명이 총살을 당했던 현장이고, 2008년 의귀리는 1948년 초토화 작전으로 방화와 학살이 자행되었던 장소이다. 2012년 강정마을은 1948년 큰당빳과 왕대왓, 메모로의 세 곳에서 집단학살이 이루어진 곳으로 현재는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지역주민들과 경찰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어 2012년의 해원상생곳 장소로 선정되어 국관이 벌어졌다.

시, 노래, 춤, 굿 등으로 해원상생곳은 이루어지며, 굿이 시작되고 나면 그 시간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반나절 이상 진행된다. 의식 중에 점심을 먹기도 하고, 심방도 의식을 하다가 쉬기도 하는 등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해원상생곳은 영혼들을 달랜다는 의미와 상생의 의미를 예술화의 과정을 통해 드러낸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현대적 의미의 공연예술과는 달리 전통적 의식을 담고 우리식의 의례를 통해 4·3문화예술축전을 구성하며 차별화된 모습으로 현재와 미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부록 12]

사진은 찰나를 기록한 예술작품으로 우리에게 보다 사실적인 4·3을 보여준다. 4·3사진전에서는 4·3 당시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사진전을 개최해 4·3을 피상적인 역사 정도로 기억하거나 그 잔혹성을 짐작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4·3을 보여준다. 2000년 제7회 4·3예술제에서 다큐 기록 사진전을 시작으로 분과행사로 자리 잡은 4·3 사진전은 매년 4·3사건의 잔혹했던 시간들을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유물·유적사진, 학살터 사진, 후유장애인의 사진 등 보다 사실적인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전은 당시의 고통과 남아있는 흔적들을 생생하게 담아내며 역사를 잊지 않기를,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남아있음을 기억하기를 전한다. 4·3사건의 현장, 유족들의 슬픔, 후유장애로 남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장애인들을 사진에 담으며 4·3사건의 진실추구와 문제제기를 전한다.⁶¹⁾

이뿐만 아니라 거리 곳곳에서 진행되는 거리사진전이나 전야제에서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사진전시회에서는 4·3 유적지나 유물, 진상조사를 통해 발굴된 흔적들을 담음으로 잊혀지는 4·3에 대한 시선들을 끌어올려 현재의 우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부록 13]

4·3문학기행은 4·3사건이 일어났던 역사적 장소들을 직접 다니면서 현장의 생생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현장 프로그램이다. 아직도 4·3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이 땅 곳곳을 작가들과 함께 4·3유적지 탐방과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4·3사건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하며 4·3사건을 되짚어본다. 잃어버린 마을, 위령비와 방사탑이 세워진 장소, 은신처와 학살터, 주둔소와 기타 역사 현장 등의 탐방을 통해 전문가로부터 4·3사건의 이야기를 들으며 4·3사건에 대해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 ‘기행’이라는 방문과 해설사의 설명이나 작가의 이야기를 통해 4·3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앞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부록 14]

역사맞이 거리굿은 역사적 현장에서 역사를 재현하여 반목과 단절을 강요당한 역사를 부정하고 복구하는 살림굿이며, 나아가 분단모순 극복과 평화인권지향이라는 민족공동체-인류공동체 기원마당이다. 해원상생굿으

61) 2012년 4·3 64주년 제19회 4·3문화예술축전 4·3사진전 ‘4·3후유장애인들의 아픔을 다시 듣다’는 이러한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까지 근거가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4·3 당시에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애인으로 선정되지 못해 국가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27명의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저마다의 사연은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다. 시력을 잃고, 소리를 잃은 할머니들은 그들의 의안을 꺼내어 손에 들고 보청기를 뺀 채로 귀를 막아 그 고통을 사진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로서의 거리굿은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단절된 고리를 이어주는 난장굿이며, 난중의 주체인 제주도민이 한 날, 한 시, 한 장소에서 만나 섬공동체 부활을 꿈꾸는 곳밭이자 놀이마당이다. 거리는 다양한 것과 다양한 모습들이 펼쳐지는 곳이다. 연행자와 관객의 구분 또한 모호하게 뒤바뀌기도 한다.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공연자가 되어 있기도 하고 관객이 되어 있기도 하는 곳이다. 불특정인들이 모여 보여주고 보아주고 서로 즐기는, 그렇게 소통하며 연행자와 관객의 구분이 없는 난장으로서의 거리굿을 통해 죽음을 넘는 삶의 기억을 공유한다.⁶²⁾

4·3사건 60주년인 제15회 4·3문화예술축전에서 성대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거리굿보다는 해원상생굿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며 축소된 경향을 보인다. 2012년의 경우 해원상생굿에서 거리굿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그 둘이 합쳐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⁶³⁾ 2013년 4·3문화예술축전에서는 전야제를 대신하여 전야 행사로 거리굿이 다시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부록 15]

4·3사건 6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4·3문화예술축전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 새롭게 선보인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축제를 이어가는 청소년 평화축제를 들 수 있다. 2008년 청소년 평화축제에서는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4·3의 역사적 진실을 옳고게 기억, 전승시키며 이를 통해 진정한 평화세대의 육성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시각에서 4·3의 역사와 진실을 들여다

62)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편, 『4·3문화예술운동사Ⅱ 2006~2010』,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2010, 378쪽.

63) 2007년 14회 4·3문화예술축전의 역사맛이 거리굿에서는 강요배 화백의 ‘동백꽃지다’를 원작으로 하여 관덕정 광장에서 총 7부로 구성된 거리굿이 펼쳐졌다. 현재에서 과거기억을 만나는 거리굿은 당일 즉석에서 서로 무엇을 한 것인지 의논을 하며 약속을 하는 만남인 앞풀이를 시작으로 1부 항쟁의 뿌리-시원에서 시작해 6부 동백꽃 지나 2007까지 총 7부로 진행되었다. 그 안에는 해방공간에서의 귀향행렬, 자치열기, 교육열기가 3·1 시위로 이어지고, 서청입도, 입산, 4·3봉기, 5·10단선거부, 학살, 건벽청야, 장두 등 크고 작은 4·3의 과정들이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2008년 거리굿은 제주시청 앞 주 행사장에서 펼쳐졌는데, 앞풀이-본풀이-뒤풀이의 단계로 구성하였다. 앞풀이는 영혼을 모시는 제차로 불려들인 혼백과 함께 거리도청제(터밧기)를 하면서 제주도민들에게 굿을 알려 함께 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본풀이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표현하는 일종의 역할놀이로 통해 굿을 하게 된 연유를 담으며 재판 형식의 풀이를 통해 맺힌 한을 풀고자 한다. 뒤풀이에서는 60년 세월 속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위령과 기원, 다짐과 격려의 마당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마당으로 꾸며졌다.

보는 과정이 필수적임에도 그동안의 4·3 예술행사는 체험 1,2세대와 전문 예술집단 중심의 시각에서 장을 펼치는 범주에만 머물러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4·3 60주년을 계기로 청소년 세대들에게 문화, 예술적 참여의 기회를 마련해 제주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조화를 추구하는 한편, 비극적 역사의 인식을 뛰어넘는 4·3 3세대 육성의 기초를 다지고자 한다.”⁶⁴⁾

청소년들은 4·3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지만 앞으로 4·3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세대로 청소년들의 4·3 인식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축제를 이어가는 청소년 평화축제는 4·3 문화예술축전의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그 중요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청소년 평화축제는 작은 프로그램의 일부로, 청소년들의 참여가 있지만 주도적이라기보다는 일부 참여에 그치는 아쉬움이 있다.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는 공연은 재학 중인 학교나 활동 중인 단체에서 준비한 노래나 연주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 프로그램의 시간을 메우는 정도의 활동에 그친다.





도민문화한마당은 전시나 체험, 공연 등으로 구성된 행사로 제주에 위치한 단체들이 참가하여 주행사장에 마련된 공간에서 하루 정도의 일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도민문화한마당의 경우 4·3문화예술축전이 진행되고 있음을 도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상징적인 프로그램으로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도민들이 중심이 되어 행사를 이끌도록 유도하며 4·3이 일어난 이곳 제주에서 살고 있는 도민들에게 4·3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단조로운 행사진행과 도드라진 특징이 없다는 아쉬움을 목소리도 있지만 4·3문화예술축전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도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행사의 진행방식의 변경과 주제의식의 심화를 통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행사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부록 16]

이와 같은 주요 프로그램의 시행은 매년 조금씩 다듬어지며 이어져오고 있고, 화해와 상생이라는 공통된 주제 의식을 가지고 매년 축전의 이름을 정해 진행하고 있다. 4·3문화예술축전을 구성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주제 변화의 내용 분석을 통해 4·3문화예술축전이 추구

64) 앞의 책, 376쪽.

하고 있는 바와 4·3문화예술제에서 제기되었던 축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과제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표 8] 4·3문화예술축전 주요프로그램과 내용

구분		내용	사진
공 연	전야제	4월 2일에 개최되는 문화예술축전의 주요 공연으로 연극, 마당극, 시낭송, 노래공연등 다양한 공연으로 구성된 문화예술축전의 공연 프로그램	
	4·3평화마당극제	4·3사건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권 사례들을 다루는 연극과 마당극 등 다양한 초청공연을 통해 4·3사건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승의 의미를 이어가는 프로그램	
	4·3평화음악제	4·3사건을 주제로 한 창작 음악을 비롯해 제주지역의 가수, 대중가수들의 초청 공연으로 구성된 음악 프로그램	
	현장위령제	4·3사건의 흔적이 남은 공간에 찾아가 노래, 시, 굿 등의 행사를 통해 위령과 해원상생의 의미를 전하는 프로그램	
	역사맞이거리굿	거리행진을 통해 4·3문화예술축전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4·3사건의 재현을 행하는 프로그램	

	위령제 식전문화 행사	제주4·3사건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를 지내면서 본식전 진행되는 문화행사로 초감제, 혼백맞이 길닦음 등의 제의적 의미를 담은 연행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전 시	4·3미술제	탐리미술가협회에서 진행하는 행사로 매년 4·3사건과 관련된 주제 혹은 현재 삶에서 4·3의 의미를 찾는 등의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프로그램	
	4·3사진전	4·3사건과 관련된 사진의 전시를 통해 4·3사건의 기록을 전시하는 프로그램	
기 타	4·3문학/ 미술기행	4·3사건의 유적지 탐방을 통해 4·3사건의 잔혹함과 현재 삶과의 연관성을 찾으며, 문학 또는 미술과 4·3사건의 이야기를 통해 4·3사건을 알아가는 기행	
	청소년평 화축제, 도민한마 당	청소년 중심의 축제를 통해 4·3사건을 기억하고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축제 프로그램, 도민들에게 체험, 공연 마당을 제공하며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프로그램	

3. 4·3문화예술축전의 특징

1) 연행 공간의 특이성

4·3문화예술축전은 제주 전역을 연행 공간으로 활용한다. 4·3사건의 흔적이 남은 잃어버린 마을, 학살터 등의 유적지는 4·3문화예술축전의 연행 공간으로 매년 장소를 달리하며 사용되고 있다.

4·3문학기행(미술기행, 예술기행 포함)은 제주 곳곳에 위치한 4·3사건 관련 장소를 찾아다니며 4·3사건에 대한 현장학습과 문학, 미술 등의 작품들과 연계해 이야기를 나눈다. 2012년 제19회 4·3문화예술축전에서는 강정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서귀포 4·3유적지 문학기행을 실시했다.⁶⁵⁾

찾아가는 현장위령제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매년 4·3사건 유적지를 옮겨 다니며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문학기행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주 전역을 연행 공간으로 하고 있다.

또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관객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열린 구조의 무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마당극, 굿 등의 프로그램은 연행 공간을 관객과 분리하고 있지 않으며 야외에서 주로 연행이 이루어진다. 연극 프로그램의 경우 문화예술회관과 같이 무대와 객석이 분리된 곳에서 연행이 이루어지지만, 관객을 연행에 끌어들이며 열린 구조를 지향한다.

2) 4·3사건과 제주 문화예술의 결합

제주민예총에서는 2010년 『4·3문화예술운동사』를 발간하였다. 총 두 권으로 이루어진 책에는 1989년 제1회 4·3추모제를 시작으로 2010년 제17회 4·3문화예술축전까지 관련된 홍보 자료와 신문 기사를 실었다. 4·3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된 사람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행사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는 다양한 문화예술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제주의 문화예술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문학,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축제 등의 영역에서 4·3사건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로 문학과 미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문학에서 김병택은 “제주현대문학사의 기점은 6·25 전쟁으로 인한 피난 시기의 문학”으로 규정하고 다섯 시기로 구분한 문학사에서 네 번째 시기인 1980~1990년대를 ‘다양한 자아와 4·3의 존재방식’으로 표현하며 4·3사건과 문학의 연관성을 이야기하고 있다.⁶⁶⁾

65) 신산공원 방사탑에서 시작해 잃어버린 마을 영남동, 하원동 4·3위령비, 서홍동 만나루, 시오름 주돈소, 소남머리, 강정마을 4·3학살터, 서봉호 공덕비에 이르는 구간의 4·3문학기행이 이루어졌다. 2013년 제20회 4·3문화예술축전에서는 영화 ‘지슬’의 영향으로 촬영지를 중심으로 한 기행이 이루어졌다.

66) 김병택, 『제주현대문학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5.

‘제주문화예술60년사’에서는 이에 덧붙여 제주지역문학의 시대구분을 사회적·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성과를 중심으로 재구분⁶⁷⁾하였으며, 제4기 역사 왜곡의 극복과 바로 알기(1980~1989)에서 “제주지역문학의 경우 4·3을 소재로 한 소설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시에서는 역사인식, 문명비판적인 주제들이 등장하기도 했다.”⁶⁸⁾고 말하며, 4·3사건이 문학에 영향을 미쳤음을 설명한다. 대표적인 4·3사건 관련 문학작품으로는 현기영의 ‘순이삼촌(1978)’을 들 수 있다.

미술에서는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금기시 여겨지던 4·3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이 몇몇 작가에 의해 다뤄지다가 화가 강요배의 작품에서부터 4·3의 전모를 볼 수 있는 서사화가 시도되었다. 1992년 3월 강요배의 ‘제주민중항쟁사-강요배의 역사그림전’은 한국사회에 4·3의 실체를 바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⁶⁹⁾

탐라미술인협의회⁷⁰⁾가 이끄는 4·3문화예술축전의 4·3미술제는 “역사 속에 묻혀졌던 제주4·3을 미술적으로 복원하는 역사미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⁷¹⁾는 의의를 가지며 꾸준히 매회 다양한 4·3사건 관련 작품들을 전시한다.

3) 굿의 활용

4·3문화예술축전에서는 ‘해원상생굿’, ‘역사맛이거리굿’, ‘사월굿’, ‘열림굿’ 등의 ‘굿’ 프로그램을 살펴볼 수 있다. 4·3추모제를 시작하면서 당시 추모

제주와 제주인의 발견(Ⅰ)(1950~1960), 제주와 제주인의 발견(Ⅱ)(1960~1970), 제주와 제주인의 발견(Ⅲ)(1970~1980), 다양한 자아와 4·3의 존재 방식(1980~1990), 생활의 중시와 역사의 중시(1990~2000)

67) 제주문화예술60년사 편찬위원회 편, 『제주문화예술60년사 1』, 제주특별자치도, 2008, 75쪽. 제1기 격동과 수난의 와중에서(1945~1959), 제2기 재건과 독재 사이에서(1960~1969), 제3기 금가와 성장, 그리고 도시적 우수(1970~1979), 제4기 역사 왜곡의 극복과 바로 알기(1980~1989), 제5기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자각(1990~1999), 제6기 특수성과 독자성, 그리고 분권적 인식(2000~2006)

68) 위의 책, 80쪽.

69) 앞의 책, 225쪽.

70) 앞의 책, 228쪽. 탐라미술인협회의 활동은 제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민중미술인 단체로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모더니즘 미술의 반동으로 탄생한 현실주의 미술운동의 결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71) 앞의 책, 229쪽.

제에는 4·3원혼들을 추모하기 위한 굿이 기획되었다.⁷²⁾ 1990년대 전야제에도 초감제 등의 굿으로 여는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찾아가는 위령제인 해원상생굿은 2001년 위령제에서 굿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방향 모색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었다.⁷³⁾ 2002년 다랑쉬굴을 시작으로, 북촌리, 곤을동, 표선백사장, 목시물굴, 빌레못굴, 의귀·한남·수망리, 터진목, 강정마을 등 매년 4·3사건의 유적지를 찾아 해원상생굿을 올리고 있다. 시 보시, 노래 보시, 춤 보시, 굿 보시, 소리 보시, 참배분향 또는 소지사름, 설치미술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4·3문화예술축전이 기억하고자하는 4·3사건에 대한 부분과 미래를 향한 바람을 잘 드러내고 있다.

사월굿은 놀이패 한라산에서 진행하는 마당극으로, 현혜경은 “추모제에서의 굿과는 달리 배우들이 원초적 사건과 현재 제주민의 삶을 사실적 표현에 입각하여 극으로 재현하면서 그 안에 ‘학살’, ‘항쟁’, ‘진상규명’이라는 목적성을 드러냈다”고 밝히고 있다.⁷⁴⁾ 4·3평화인권마당극제에서 여는굿으로 사월굿이 연행되기도 했다. 이때까지 ‘헛묘’, ‘백조일손’, ‘한라산’, ‘산호수놀이’ 등의 작품들을 올렸다.

4·3문화예술축전에서의 굿은 다양한 형태로 재현되어 4·3사건의 기억을 전달하고 의미를 되새기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제의적 성격이 강한 4·3문화예술축전이기에 다양한 굿 프로그램의 활용은 4·3문화예술축전의 특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72) 현혜경, 「4·3과 굿의 재현」, 『민주주의와 인권』 제5권 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5, 14~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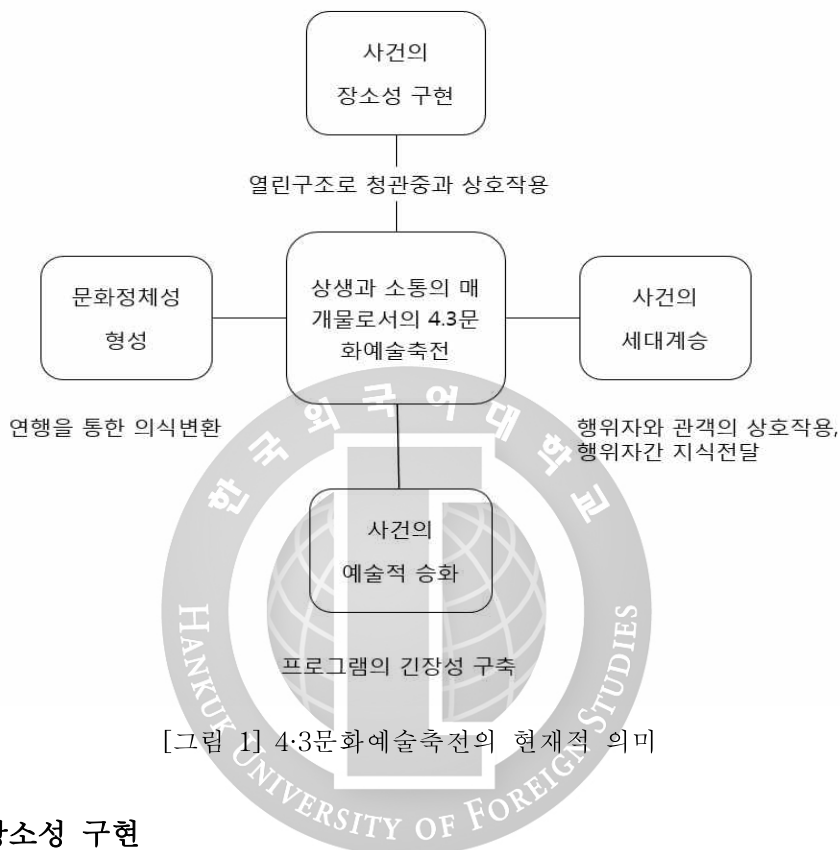
민주화운동세력이면서 굿 연구가였던 문무병씨와 제주문화운동협의회 회장이자 굿 세습을 받고 있던 정공철씨에 의해서 기획 연행되었다. 이는 집단 기억을 드러내는 첫 장치였다. 굿은 4·3의 기억을 재현하고 집단 기억을 형성시키는데 제주민중들에게 가장 친밀한 도구였다. 따라서 이 추모제의 굿은 사가의 굿 모형을 따서 초감제 형식의 굿이 연행되었으나 ‘4·3이 무고한 학살’이라는 점과 ‘제주민중의 항쟁’이라는 뚜렷한 목적성을 드러냈다.

73) 위의 논문, 16쪽.

굿 과정에서 ‘해원’과 ‘상생’을 형성시키는 재현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가 드러남을 이야기한다. 첫째, 추모제의 굿 때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던 민중문화운동과 4·3굿의 조화문제가 있다. 둘째, 굿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는 ‘열명’으로 굿에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는 절차인데 추모굿에서 도민해원상생굿에 이르기까지 굿은 그 수가 너무 많았던 문제가 있다. 셋째, 굿 재현 공간의 문제로 매년 굿을 할 때마다 재현공간이 달라져 공간의 상징성을 일관되게 확보하기 어려웠고 제장을 침범하는 무리가 있어 굿 시연의 집중성이 떨어지기도 했다.

74) 앞의 논문, 17쪽.

제 5 장 4·3문화예술축전의 현재적 의미



1. 장소성 구현

장소는 인간의 체험을 통해 어떤 공간을 인식하게 되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생성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장소는 물리적 환경, 행위, 의미의 요소로 구분되며 이러한 요소들이 공간적·시간적 맥락을 가지게 되어 나타나는 정체성이 바로 장소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장소성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장소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체험의 상호작용이 전체되어야 한다. 시간적 연속성을 지닌 집단적 체험은 장소정신⁷⁵⁾으로, 장소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체험은 장소감⁷⁶⁾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75) 장소의 정신은 한 인간이나 집단이 동일시하는 정신처럼 어떤 위치에서 특별한 분위기나 개성을 제공하는 특성들의 결합으로서 한 문화집단이 그들의 환경에 대하여 부여하는 집단적 정신이다.

장소에 대한 이러한 기억은 집단적, 개인적 무의식을 형성하게 된다.⁷⁶⁾

4·3문화예술축전의 축제 장소는 특정 장소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전야제는 주로 제주문예회관에서 개최되고, 해원상생굿이나 거리굿은 제주 어느 곳에서라도 열릴 수 있으며, 위령제가 개최되는 제주4·3평화공원을 비롯해 제주 지역의 4·3사건 피해가 있는 마을에서 위령제가 개최된다. 4·3문화예술축전은 제주 전역에서 축제를 통해 사건의 장소성이 구현된다고 볼 수 있다.

4·3문화예술축전은 4월 약 한 달간 제주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지는 축제로 매년 고정된 장소에서 행해지는 축제 프로그램도 있지만, 장소를 달리하며 4·3사건이 가지는 함의를 더욱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4·3문화예술축전의 주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연행 공간을 살펴보면, 제주4·3평화공원과 기념관, 제주문화예술회관 등의 제주 내 주요 4·3사건 관련 시설 또는 문화 공간이 있으며, 거리굿과 해원상생굿 등은 제주 내 4·3사건과 관련된 기억의 공간에서 연행이 이루어진다.

4·3문화예술축전은 연행에 있어 행위자와 관객을 분명하게 분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해원상생굿이 열리는 마당이나 마당극이 열리는 공간은 행위자와 관객의 경계를 두지 않고 연행 공간에서 함께 연행에 참여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축전의 연행공간은 제주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관덕정과 탐동 해변광장, 제주시청, 문예회관 등이 모두 제주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주4·3평화공원·기념관과 북촌 4·3너븐숭이 기념관 등의 위령행사가 개최되는 곳도 제주시내에 있다. 제주시를 두고 봤을 때 전반적인 연행의 장소 변화가 크지는 않다. 다만, 세부적으로 매년 조금씩 행사가 축소·확대·변경되면서 장소의 활용이 적어지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는 경우가 있다.

2008년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역사맞이 거리굿 공연은 관덕정에서 제주시청, 탐동 해변광장에 이르는 제주시내 일대를 활용하며 이루어졌으나, 이후에는 축소되며 연행의 장소가 변화하였다. 2012년의 경우 해원상

76) 어떤 장소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그것이 풍부할 경우 우리는 장소감이 풍부하다고 말한다. 장소감은 어떠한 사람의 물리적 주변 환경에 대한 의식, 인간의 기본적인 경험을 뜻하는 개념이며, 사람들이 장소를 경험하고 회상할 때 느끼는 관련감이나 연계감이다.

77) 앞의 책, 16~20쪽

생곳과 결합하여 강정마을 일대에서 거리굿 공연이 이뤄진 것이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제주4·3평화공원은 4·3위령제와 함께 위령제 식전문화행사가 개최되는 곳으로 연행은 4·3위령제단이 위치한 추모·승화광장에서 이루어진다. 위령제단은 아치형으로 영원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도민화합, 민주와 인권 그리고 안락의 공간을 상징하며 참배공간을 제공한다. 내부 위패봉안소에는 13,461기가 안치⁷⁸⁾되어 있는 곳으로 4월 3일 위령제가 시행될 때에는 광장에 무대를 설치하여 위령제 행사가 치러지도록 한다.

제주문예회관⁷⁹⁾은 대극장 무대는 4·3문화예술축전의 전야제 공연의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곳으로 대극장에서 전야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본격적인 공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 문예회관 앞마당에서 로비를 지나 대극장까지 놀이패의 공연을 통해 관객과 보다 가까이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을 하는 행위를 취하였다.

찾아가는 위령제 해원상생곳은 매년 연행이 열리는 장소가 바뀐다. 4·3사건의 상흔이 남은 잃어버린 마을이나 은신처, 학살터 등의 4·3유적지에서 연행이 이뤄지는 해원상생곳은 프로그램의 구성은 비슷하지만 각 장소가 가지는 의미는 다르기에 매년 다른 공연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다. 다랑쉬동굴, 북촌리 마을 당팻, 곤을동 해안가, 표선백사장, 목시물굴, 빌레못굴, 터진목 학살터, 옛 정뜨르 비행장, 의귀리 마을까지 대부분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해원상생곳이 개최되었으며 현재 그 장소가 없어졌거나 제를 지내는 의미에 따라 마을회관이나 공터 등에 자리를 잡아 연행을 진행하였다.

4·3문화예술축전에서 축전의 개최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해원상생곳’이다. 말 그대로 화해를 바라며 함께 살아감을 추구하는 해원상생곳은 죽은 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남아있는 자들의 슬픔을 덜어내는 역할을 한다. 제19회

78) 제주4·3평화기념공원 홈페이지(URL: <http://www.jeu43.jeu.go.kr>) 참고.

79) 제주문예회관은 제주시 동광로에 위치한 전문공연장으로 1988년 8월 25일 개관해 현재까지 각종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 공간이다. 건물 내부에는 로비와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 기타시설(분장실, 정보검색실, 어린이놀이방, 다목적 문화공간)이 있으며, 외부에는 놀이마당이 있어 마당극을 비롯한 전통문화예술행사 등을 진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대극장 무대는 총 면적 841.5m²이며, 주 무대 240.25m²의 면적에 양측의 옆무대와 오케스트라 피트로 구성되어 있다. 객석은 1층과 2층에 총 892석이 갖추어져 있다.

4·3문화예술축전 해원상생굿은 서귀포에 위치한 강정마을에서 열리게 되었다.

강정마을은 제주 남쪽 지역의 서귀포시 서쪽 해안마을로 예부터 제주에서는 드물에 마을에 물이 많아 살기 좋은 곳이어서 마을의 이름도 물이 많은 곳을 뜻하는 강정(江汀)이다. 이 마을의 북쪽에는 제주4·3사건 때 많은 양민이 학살당하는 피해를 입어 ‘잃어버린 마을’로 불리는 영남동이 있다. 해원상생굿이 이곳에서 열리게 된 까닭은 잃어버린 마을이 있는 4·3사건의 역사적 장소라는 점도 있지만, 제2의 4·3사건으로 불리는 제주 해군기지 건립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져 강정마을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서귀포시 강정동에 위치한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설립으로 2007년부터 진통을 겪은 이래로 강정마을 공동체 파괴와 자연파괴 등의 문제를 겪으며 제2의 4·3사건이라고 불릴 만큼 진통이 심한 공간이다. 현재 강정마을이 지닌 문제점의 해결과 함께 4·3사건의 피해가 컸던 과거의 강정마을의 넋들을 위로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달래주는 해원상생굿이 강정마을 의례회관 앞마당에서 열리게 되었다.

앞마당에 무대를 꾸미고 일부 관객을 위해 의자를 두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무대를 중심으로 둘러서서 해원상생굿을 함께 지켜봤다. 오전부터 시작된 해원상생굿 프로그램은 시보시와 노래보시, 춤보시를 지나 본격적인 굿보시에 들어섰고, 약 4시간 가량 긴 굿판이 진행되었다. 모든 프로그램을 마친 뒤 마당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대동놀이를 한 뒤 거리굿을 나서게 되었다. 의례회관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청소년 문화회관 문화의 집까지 걸어가며 놀이를 벌였고, 문화의 집 마당에서 함께 대동놀이를 즐긴 뒤 강정포구를 지나 강정마을 4·3해원방사탑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며 거리굿을 지내었다.

제주4·3평화공원과 문예회관, 해원상생굿이 열리는 장소까지 4·3문화예술축전의 주요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로 오랜 시간동안 연행의 장소로 이용되어왔다. 이 장소들은 4·3사건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공간이다. 하지만 역사적 공간이 일상에 스며들어 일상과 역사가 공존하는 기억의 공간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현재를 살며 미래로 향하고 있다. 4·3문화예술축전의 연행 공간은 그런 점에서 매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연행을 펼친다고 해도 매년 의미를 축적해가며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4·3

사건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림 2] 제19회 4·3문화예술축전 강정마을 해원상생굿과 소통관계

2. 사건에 대한 인식과 세대계승

4·3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4·3사건 발생 이후의 세대들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사건 인식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역사교육은 자라나는 세대들의 뿌리이자 올바른 역사관 형성과 가치 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 그렇기에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4·3사건의 인식과 세대계승의 차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4·3사건의 교육적 차원에서의 인식, 또는 계승은 교과서나 체험학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채택과 대통령 공식사과 표명 이후의 교육 실태⁸⁰⁾를 살펴보면, 도내 각 학교에서 제주4·3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자료집인 ‘아픔을 딛고 선 제주’를 2004년에 발간하였고, 제주도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제주 4·3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이루어졌었다. 하지만 교육청과 전교조 간에는 인식차이⁸¹⁾가 있었으며 2007년 이전에 이뤄진

80) 현진호, 「제주도 중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의 제주4·3교육 인식」, 제주대 석사학위 논문, 2007.

81) 제주도교육청은 4·3교육에 대해 소홀함과 무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추모현수막

연구에 따르면 확장된 4·3사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역사기행이나 4·3추모제 참여, 교육 자료집의 활용 등 4·3사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단체에서 발간한 제주 4·3사건에 관한 교육 자료 CD나 인터넷 웹사이트, 자체적인 학습지 유인물을 제작하여 활용하는 등의 제주지역 교사들의 4·3사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⁸²⁾, 청소년 4·3문예공모나 유적지 답사 기행 등을 통해 4·3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 대한 사건의 인식과 세대계승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학교 교육 내에서 이루어지는 4·3사건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 함께 4·3문화예술축전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을 통한’ 교육은 학교 교육과는 또 다른 접근 방식을 통해 4·3사건에 대한 세대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된다고 여겨진다.

4·3문화예술축전에서는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청소년 평화축제’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5·18 민주화 운동의 기념의례 중 하나인 ‘5·18청소년문화제(Red Festa)’⁸³⁾가 있으며, 이는 4·3문화예술축전의 한 프로그램으로 존재하는 4·3청소년 평화축제와는 달리 제법 큰 규모로 운영되며 활성화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은영의 논문에서 5·18청소년문화제는 1980년 5월 시민군이 무장하기 직전 계엄군의 폭력적 상황과 시민적 저항, 그리고 그에 따른 시민공동체 형성에 중심을 두고 재현이 이루어지고 있다⁸⁴⁾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의 5·18 재현은 정치적인 쟁점보다는 인권과 평화담론에 집중되고 있으며, 청소년은 구체적인 행동을 기획하기 보다는 현실상황에 대한 공유와 소통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⁸⁵⁾을 말한다.

2008년부터 시작된 청소년평화축제는 제주에 사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접 참여하여 축제를 만들어가는 행사로 음악밴드, 풍물패, 댄스 동아리 등의 다양한 장르 공연이 이루어졌다. 4·3사건의 예술적 승화와 함

결기, 4·3위령제 참여하기, 초·중등 급별 수업 자료 CD를 제작·배포하고 제주4·3교육 주간 선포 등의 전교조 제주지부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82) 위의 논문, 64~67쪽.

83) 레드페스타 설명.

84) 한은영, 앞의 논문, 71쪽

85) 한은영, 앞의 논문, 99쪽

게 4·3사건의 넋들을 위로하고 상흔을 입고 살아가는 제주민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며, 청소년들이 가진 끼를 발산하며 4·3문화예술축전에 직접 참여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청소년들은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4·3사건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며, 참여의 의미를 되새김질 할 수 있다. 단순한 문화향유를 위한 축제 참여가 아닌,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왜 현재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잊지 않고 이어가야하는 지에 대해 체득하게 된다.

2013년 제20회 4·3문화예술축전에서는 전야제 행사로 제주시청 마당에서 참여마당 행사와 공연마당 행사, 거리굿이 진행되었다. 참여마당에는 4·3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었다.⁸⁶⁾ 참여마당, 공연마당, 거리굿 행사까지 이 날 진행된 전야제 행사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방문객들과 소통을 이어갔다.

역사퀴즈 퍼즐놀이가 이루어진 부스와 페이스페인팅을 하는 부스의 경우 어린 연령대의 방문이 많았으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이 보였다. 퀴즈 퍼즐놀이는 난이도별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담당자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문객 사이에 4·3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갔다.⁸⁷⁾

음식 전시 및 체험 부스에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찐 감자와 고구마를 준비해 사람들이 나눠먹을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전야제를 찾은 사람들이 참여마당을 둘러본 뒤 음식 부스에서 마련한 음식을 손에 들고 다니며 먹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오후 5시에 참여마당으로 전야제를 시작한 뒤 6시 이후부터는 공연마당에서의 행사가 이어졌다. 공연마당은 참여마당과 별도의 경계 없이 열린 무대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주제공연은 풍물패의 길트기 공연으로 시작해 제주어지킴이, 민요패 소리왓, 어린이민요단 소리나라, 국악연희단 하나아트 등의 공연이 이어지며 하나의 공연으로 꾸며졌다.

86) 4·3관련서적의 전시 및 판매 부스, 역사음식 전시 및 체험 부스, 4·3과 평화 이미지 페이스페인팅 부스, 역사퀴즈 퍼즐놀이 부스, 무명천 할머니로 유명한 진아영 할머니의 삶을 그린 '진아영, 그의 삶은 곧 4·3' 부스, 제주생태관광으로 '역사가 영화를 만나 여행길이 되다'를 주제로 영화 지슬의 사진 영상전 부스, 유해발굴 사진전과 유해물 전시회, 강정평화상단에서 마련한 부스가 마련되었다.

87) 4·3사건의 발단과 전개과정에서 생겨난 사건들을 배열하는 문제와 사건과 관련 인물을 맞추는 문제 등 4·3사건의 기본배경이 될 수 있는 질문들을 퀴즈로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제공하였다.

공연을 연행하는 행위자는 분명하게 있었지만, 관객과의 구분을 크게 두지 않았다. 연행을 진행하던 행위자가 자기의 부분이 마치고 나면 관객의 옆에 같이 앉아 무대를 바라보는 관객이 되기도 했으며, 관객은 행위자의 손에 이끌려 연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무대 한 가운데 올라가 함께 연행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러 단체가 어우러져 4·3사건의 발단과 전개과정을 때로는 연극으로, 때로는 소리로 표현하며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무겁게 느껴지는 4·3사건을 어렵지 않게 표현하여 보다 쉽게 4·3사건에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공연마당에서의 연행은 거리극으로 이어졌다. 거리극은 예전에는 4·3문화예술축전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한동안 해원상생곳에 이어지는 거리극 등으로 축소되어 눈에 띄지 않았었다. 하지만 2013년 20회 4·3문화예술축전에서 전야 행사로 거리극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⁸⁸⁾

거리극은 절대적으로 관객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풍물을 연주하는 연행자들이 거리를 향해 나아가면 함께 마당에서 어우러져 놀던 관객들은 연행자들을 따라 거리로 나간다. 제주시청 마당에서 출발해 멀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도로를 건너 한 바퀴 주변을 돌아오는 것으로 거리극은 이루어졌다. 거리극은 4·3 영령들을 추모하고 위무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화합과 대동의 장으로 풍물과 함께 흥겨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2013년 20회 4·3문화예술축전 전야 행사는 세 마당으로 꾸며졌으며, 보다 관객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관객들은 축제 참여를 통해 자연스럽게 4·3사건에 대해 학습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연행을 하는 연행자들 간에는 4·3사건의 의미를 담은 공연 지식이 전달과 전승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⁸⁹⁾

88) 「‘4·3’ 날래리...’ 시내 한복판서 벌어진 곳판」, 『제주의 소리』, 2013년 4월 2일, (URL: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7786>)

89) 공연마당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행위자가 존재했다. 어리거나 연행을 배우는 단계의 행위자는 이러한 공연 행위를 통해 공연 지식을 습득하고 전승해 간다.



[그림 3] 제20회 4·3문화예술축전 전야 행사

3. 비극의 예술적 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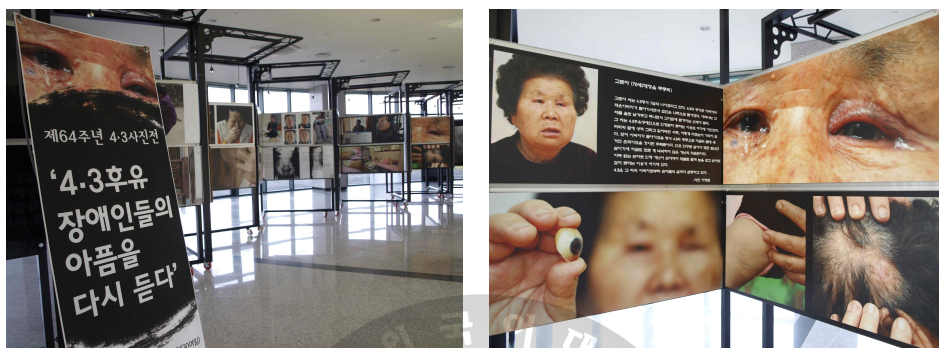
4·3문화예술축전은 80년대 후반부터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어난 4·3사건에 대한 조명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4·3사건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논의가 어려운 가운데, 문화적 환경에서는 4·3사건을 소재로 내세우며 저항적인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민예총이 만들어지면서 4·3예술제가 개최되었고, 4·3문화예술축전으로 발전되어 오면서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4·3사건의 의미를 충실히 다루면서도 예술적 가치도 놓치지 않고 왔다.

4·3사진전은 사건에 대한 사실적이고 생생한 기록을 드러내어주는 예술이다. 4·3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나 4·3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 과정에서 남겨진 기록 사진, 제주 곳곳에 남아있는 학살터나 잃어버린 마을에 대한 기록으로서의 사진, 4·3사건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은 단순히 기록적인 차원을 넘어 예술 작품 4·3문화예술축전을 구성하고 있다.

사진전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지속적인 전시를 통해 축전을 찾은 관객들과 마주한다. 매년 다른 주제로 사진전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한번 전시되었던 사진은 반복적으로 전시되기도 하며, 책이나 자료집을 통해 기록물로 남게 된다.

지난 19회 4·3문화예술축전에서 치러진 4·3사진전 ‘4·3후유장애인들의 아픔을 다시 듣다’에서 전시된 사진의 경우, 4·3사건의 충격으로 귀가 들

리지 않게 된 할머니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청기를 돋보이게 촬영하고, 의안을 끼고 살아가야 하는 어르신이 의안을 손에 들고 보여줌으로써 후유장애의 고통을 극대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제19회 4·3문화예술축전 4·3사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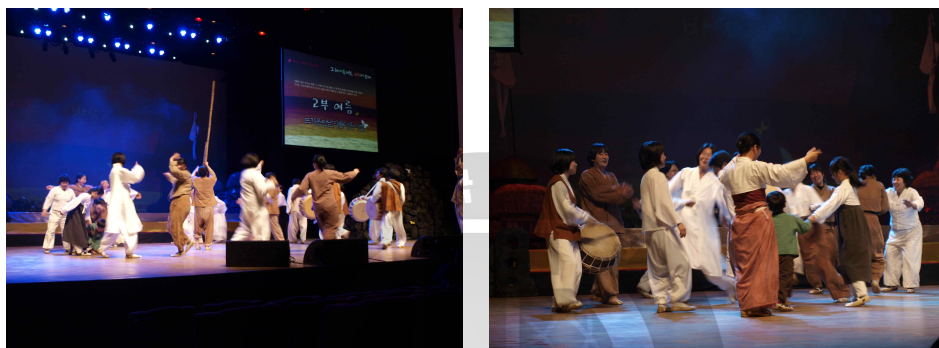
4·3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4·3사건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 증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공감의 어려움을 가지기도 하며, 해설적 설명으로 오히려 4·3사건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4·3사건에서 일어났던 일을 연극적 요소로 풀이하고 예술적 요소를 결합시켜 보여주는 연극이나 음악 공연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제19회 4·3문화예술축전 전야제 ‘그해 여름처럼, 바람이 분다’ 2부 공연 ‘여름-뜨거운 만남, 아름다운 이별’에서는 제주의 평화로웠던 시절을 회상하며 보여주고 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평온한 제주의 어느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은 함께 이야기하고 춤을 추며 떠들썩하게 한판 놀이를 한다. 진달래 다발을 손에 쥐고 흔들며 노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대 조명으로 천천히 가리게 될 때, 무대 밖 사람들은 눈시울이 젖게 된다. 4·3사건이 없었더라면, 평화의 섬이라 불리는 제주 땅은 온전히 평화로움을 지켰을지도 모른다.

미여지벙되는 제주어로 ‘널디 넓은 평지’, ‘광활하게 펼쳐진 황무지의 대지’를 의미하는 말로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존재하는 땅을 의미한다. 평화롭게 춤추고 노는 사람들의 모습은 제주큰굿 마지막 재차 중 하나인

‘미여지벙뒤’에서 표현하는 가시나무에 이승의 옷을 걸어놓고, 바람으로 혹은 나비로 변하여 저승 상마을로 향하는 모습⁹⁰⁾을 연상시킨다.

이 공연은 ‘4·3사건이라는 비극이 시작되기 전, 평화가 지켜지던 이 땅의 모습은 바로 지금 연극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같을 것’이라는 가정을 보여준다. 공연은 하나의 이야기 구조에 따라 진행이 되며, 아름다운 배경과 행위자들의 완전한 몰입을 통해 관객들에게 내용을 전달한다.



[그림 5] 제19회 4·3문화예술축전 전야제 2부 공연

4·3사건의 잔인함과 심리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기록으로 보여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공연을 통해 4·3사건의 잔혹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게 된다. 잔인하리만큼 평온함을 보여주는 제주민들의 4·3사건 이전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4·3사건 이후 제주민과 제주 섬이 겪었을 아픔에 대해 떠올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한 4·3사건을 통해 4·3사건을 다시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작품들이 역사적 가치와 함께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느끼게 된다. 4·3문화예술축전에서 드러나는 예술적 가치는 해당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아름다움과 공감이라는 요소에서 가장 크게 접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높고 내용적 가치를 지니며 연출에 있어서 미적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찾아가는 위령제 해원상생굿과 평화인권마당극제 등 다양한 연행을 매

90) 제19회 제주4·3문화예술축전 팸플릿 인사말에서 박경훈(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 지회장)은 ‘미여지벙뒤 나비로 바람으로’라는 축전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년 발전시켜나갈 때에도 4·3사건을 역사적인 기억으로만 남길 것이 아니라 예술적 승화를 통해 해원·상생의 의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노력이 이어졌다.⁹¹⁾

4·3문화예술축전에서 행해지는 연행들은 4·3사건의 의미를 전달하기에 연행 그 자체에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술적으로도 아름다움과 완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제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예술적 가치의 의미도 두고 있기에 세월이 지나도 낡은 연행이 아닌 발전하는 연행으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4. 문화정체성 형성

지역축제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⁹²⁾ 4·3문화예술축전은 제주 지역의 역사적, 예술적 산물로 제주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제주 지역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문화정체성을 형성한다.

제20회 4·3문화예술축전에서는 특별사업으로 김경훈 시인의 문학콘서트가 개최되었다. 제주시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이전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문학콘서트’라는 형식을 빌려왔다. 김경훈 시인은 4·3문화운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인으로 그의 모든 작품에는 제주 4·3사건이 담겨 있다. 그의 작품들로 구성된 문학콘서트는 소극장에서 관객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며 4·3의 의미를 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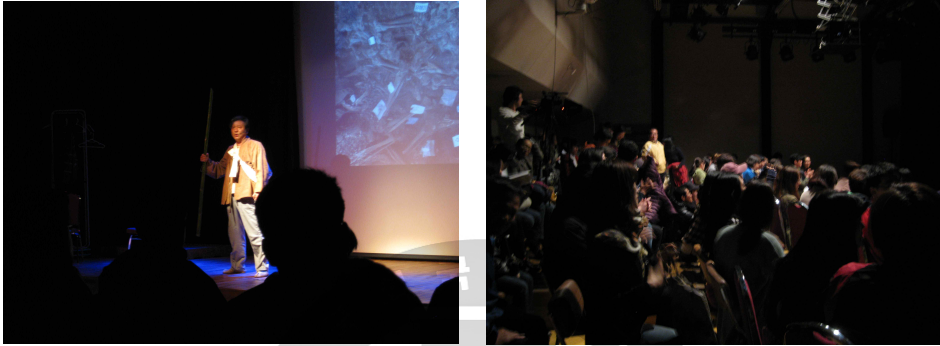
김경훈 시인은 시낭송과 1인극을 넘나들며 4·3사건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 조명하였다. 하나의 무대를 마치고 나면 노래팀이 나와 4·3과 관련된 노래를 불렀으며, 콘서트 후반에 가서는 4·3사건의 비극을 느낄 수 있는 연극 공연으로 이어졌다. 무대 하나가 끝나면 아나운서와 김경훈 시인의 대화를 통해 공연으로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설명이 이루어졌고, 관객들의 반응을 살피며 무대는 이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는 소극장이었기에 무대와의 거리

91) 해원상생국은 연행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예술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왜 해원상생국을 하는가? 그것은 예술의 쓸모 있음에 대한 모색이면서 동시에 예술의 쓸모 없음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해원상생국은 예술적 위령제를 나타내고자 하며, 역사의 예술화를 강조하고 있다.

92) 류정아, 앞의 책, 26쪽.

도 가까웠고, 관객들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으며 행위자와 관객의 호흡이 가까이 느껴졌다. 초반에는 산만한 분위기가 있었으나, 문학콘서트가 진행될수록 관객들은 공연에 몰입하였고, 공연의 후반에는 눈물을 흘쩍이거나 한숨을 쉬는 관객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림 6] 김경훈 4·3문학콘서트- 병어리 사만이의 언어들

문학콘서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소극장이라는 외부와 단절된 공간 안에서 무대와 객석의 열린 구조에서의 소통을 통해 의식 변환이 일어난다. 그러한 의식 변환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지속적일 수도 있다. 일시적 변환은 문학콘서트를 보는 동안에 느끼는 감정 변화와 4·3사건에 대한 인식일 것이며, 지속적인 변환은 축제가 끝나고 일상생활에 돌아갔을 때에도 4·3사건에 대한 깊은 인식이 남아 삶에 영향을 끼친다.

지난 2012년 제19회 4·3문화예술축전에서 있었던 제주4·3희생자위령제 식전문화행사 혼백맞이 길담음은 문학콘서트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행위자와 관객들이 소통한다. 예정대로였다면 4·3평화공원 위령제 현장에서 진행되었어야 하나 당시 기상악화로 4·3평화기념관 중앙 로비에서 행사는 진행되었다. 혼백맞이 길담음은 혼부름, 혼맞이, 혼모심의 구성⁹³⁾으로 진

93) 제19회 4·3문화예술축전 미여지벙뒤 나비로 바람으로 팸플릿 참고. ‘혼부름’은 삼석울림을 시작으로 제장을 정화시키고, 4·3영혼을 비롯한 제장을 찾은 영개들을 위령탑을 통해 불러들이는 단계이며, ‘혼맞이’는 살아남은 영혼들과 죽어 돌아온 영환들이 만나, 하나로 교감하는 마당으로 혼과 백이 함께 향음하고, 영개다리를 놓아 그 길 위에서 영개와 영개가 혼과 백이 함께 재회하는 퍼포먼스이다. ‘혼모심’은 모든 영혼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행위로 삶과 죽음의 질서를 바로잡는 의례 절차이다.

행되었으며, 혼맛이 부분에서 관객들과 행위자는 뒤섞여 함께 공연을 이어갔다.



[그림 7] 제19회 4·3문화예술축전 위령제 식전행사 ‘혼백맞이 길닦음’

이애주 선생이 혼맛이 부분에서 모시를 찢으며 앞으로 조금씩 달려 나갔다. 이 과정에서 위령제에 참석한 희생자유족들과 일반 관객들은 모시를 같이 잡으며 공연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한다. 마치 울부짖는 것 같은 이애주 선생의 퍼포먼스는 관객들이 공연에 빠르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당시 공연에 참여하며 주변 관객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행렬 앞 쪽에서있던 관객 중 한 명이 울음을 터트리기 시작했다. 모시를 손에 꼭 쥐고 이애주 선생이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울음은 더욱 커졌고, 관객들이 참여하는 퍼포먼스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울음은 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공연은 단순히 ‘퍼포먼스 행위’로 그치지 않는다. 4·3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 위령제에는 대부분 희생자 유족들이 참석하였다. 모두가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며, 같은 환경에서 살아내어 온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혼백맞이 길닦음과 같은 공연은 희생당한 사람들의 넋을 위로해 줌과 동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역할을 한다. 이들의 삶이 곧 4·3이며, 4·3과 분리된 삶은 생각할 수가 없다.

저마다 짓고 꾸미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역에서 공동체⁹⁴⁾를 꾸

94) 공동체에 대해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집단 또는 혈연이나 지연

리며 살아간다. 공동체라 함은 공통적으로 무엇인가 지향하는 바가 공통된 것이 있다. 제주민들은 제주라는 지역에서 4·3사건이라는 역사적 기억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이다. 4·3문화예술축전에서는 4·3사건이라는 문화적 감수성의 동질감을 통해 공동체를 만들어 지켜나가고 있다.⁹⁵⁾

관객들은 4·3사건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고 관련 기억 또는 축제에의 참여를 통해 사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된다. 여기서 4·3사건은 제주민들과 4·3사건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정체성을 형성해준다.

“문화정체성은 역사를 가진 어떤 장소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인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정체성도 지속적인 변형을 겪게 된다. 그것은 어떤 본질적인 과거에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 문화, 그리고 권력의 지속적인 작용을 받게 마련이다.”⁹⁶⁾고 홀이 정의한 바 있다.

4·3문화예술축전은 4·3사건이라는 역사를 품고 하나의 ‘문화정체성’을 형성하며 4·3사건에 대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치유제로 작용하고 있다.

또는 공동의 이해관계나 목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기본적 사회집단으로 공동사회라고도 정의하기도 한다. 씨족이나 친족집단과 같은 혈연 씨족공동체, 마을이나 이웃집단과 같은 지역 촌락공동체, 예배결사나 동지적 결합 또는 친구집단과 같은 정신적 결사공동체 등이 포함된다. 맥키버는 사회유형의 이론으로 분류한 결사체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말했으며, 인간들이 함께 살고, 함께 소속함으로써 자연히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사회적 특징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전체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공동체 감정이라고 한다.

95) 정체성이란 “어떤 한 사물을 그것이 본디 무엇인바 그것이게끔 하는 성질” 또는 “어떤 한 사물을 그것이 본디 무엇인 바 그 점에서 알아보게 하는 성질”(이기상)이라고 대략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문화정체성은 문화공동체의 바탕으로 그들이 가진 정신을 의미한다.

96) 호르헤 라라인 지음, 김범춘 외 옮김, 『이데올로기와 문화정체성』, 모티브북, 2009.340쪽.

제 6 장 결론

축제는 현재에서 과거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며, 일상적인 공간을 특별한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축제에 들어서면서 지금의 나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축제를 마치고 일상에 돌아오게 되더라도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다. 축제는 우리에게 일탈의 기회를 주고, 놀이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원래의 내가 아닌 모습으로 있더라도 허용이 된다. 축제를 통해 사람들은 새롭게 태어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축제를 끝내고 난 뒤 일상생활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4·3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연행이론을 분석 방법으로 참고하여 4·3문화예술축전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셰크너는 공연과 관중, 연기와 관중, 공연 자체의 구조와 흐름과 관련된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셰크너는 연극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셰크너의 방법론을 축제에 적용시켜 연구 방법으로 이용하였다. 셰크너의 연구 방법에서 연극의 과정을 분석하는 부분의 경우 판 헤네프가 제시하는 제의의 과정, 빅터 터너가 제시하는 연극의 과정과 유사한 부분이 있고, 빅터 터너의 이론을 축제에 적용한 류정아의 연구도 본 논문에서는 참고하였다.

4·3문화예술축전이 가지는 현재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축제의 연행과정을 통해 일상적 공간에서 사건의 장소성을 구현한다는 점이 있다. 4·3평화기념관과 같이 상징적인 건물을 세우고 일대를 평화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지속적으로 4·3사건의 장소성을 구현하는 곳도 있지만, 4·3문화예술축전이 개최되는 기간 동안 시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특별히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거나 의미를 둔 곳이 아닌 일상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축제가 시작되면서 비일상성의 시간이 시작되고,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프로그램의 개최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장소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장소성을 갖게 되는 이유를 축제가 진행될 때 발생하는 연행의 행위자와 관중 사이의 상호관계에서 찾아보았다. 4·3문화예술축전의 프로그램들 중에서는 야외에서 진행되는 것이 많다. 마당극은 대표적인 야외 공연이며, 역사맞이 거리극과 찾아가는 위령제

해원상생굿 등이 열린 공간에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들은 무대와 객석의 분리가 분명하지 않다. 열린 구조 속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4·3사건의 장소성을 구현시키거나 의미를 더해준다.

둘째, 4·3사건의 세대계승과 사건 전승이 이루어진다. 4·3사건을 직접적으로 겪지 않은 세대가 더 많은 시점에서 4·3사건에 대한 기억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되새김질 하지 않는다면 회미해질 수밖에 없다. 4·3문화예술축전에서는 4·3사건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를 하는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제 20회 4·3문화예술축전의 전야 행사에서 마련된 참여·공연·거리굿 마당에서 행위자와 관객들의 소통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4·3사건의 지식전달과 함께 행위자들 간에 4·3사건과 관련 공연의 전승도 볼 수 있었다.

셋째, 비극의 예술적 승화가 이루어졌다. 4·3사진전에서는 4·3의 참극을 느낄 수 있는 유해물이나 남겨진 사람들에게 대한 흔적을 담은 전시가 이루어진다. 후유장애인들의 아픔을 담은 사진의 경우 그 자체로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면서 전시회를 통해 사진 예술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19회 4·3문화예술축전 전야제 2부에서 ‘여름’에서 진행된 놀이패 한라산, 민요패 소리왓, 가향판소리 무대가 함께 만든 무대의 예를 들었다. 평화로운 제주의 마을을 떠올리며,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삶을 그렸기에 더욱더 4·3사건의 비극이 끔찍하게 떠올랐다. 각 프로그램들은 흐름을 통해 긴장성을 구축하며 4·3사건의 비극을 예술로 표현했다.

넷째, 시대가 낳은 상처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고 공감을 통해 슬픔이 치유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문화정체성의 형성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4·3문화예술축전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는 각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는 20회에 걸쳐 진행된 4·3문화예술축전만의 의미담기 노력이 있었을 것이고, 작품에 따라 매년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기도 하며 때로는 새로운 형식을 도입해 선보이기도 한다. 축전이 시작되고 프로그램들은 시행된다. 축전을 찾은 방문객들은 축제의 시간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게 되고, 4·3사건을 마주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후 축제는 끝나고 다시 일상의 시간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더 이상 예전과는 같을 수 없게 된다.

제20회 4·3문화예술축전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중 ‘김경훈 4·3문학콘서트 - 병어리 사만이의 언어들’의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관객들의

반응과 마쳤을 때 관객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공연을 통해 관객들의 의식에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었다. 미술제나 사진전을 관람하는 관객들을 보더라도 4·3사건에 대한 지식이 없던 사람들이 관람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사건의 참상을 느낄 수 있기에 관람객은 의식의 변화를 겪게 된다. 또한 제19회 4·3문화예술축전 위령제 식전행사로 진행되었던 혼백맞이 길 닦음에서의 관객반응도 볼 수 있었다.

4·3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었다. 4·3사건의 아픔을 공감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슬퍼하거나 분노하게 된다. 제주에 살고 있는 지역민을 비롯해 축제에 참여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동일한 정체성을 느끼게 된다. 축제를 통해 우리들은 축제에 참여하기 이전과는 다른 우리들이 되었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수록 화해와 상생의 길로 가는 시간이 멀지는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

4·3문화예술축전의 현재적 의미를 종합해보면 4·3문화예술축전은 과거와 현재를 잇고 미래로 나아가는 상생의 매개체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축제는 소통의 공간 속에서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제주라는 지역에서 4·3문화예술축전을 통해 4·3사건을 마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4·3문화예술축전은 4·3사건을 뿌리로 하고 있다. 4·3문화예술축전의 현재적 의미 분석을 통해 4·3사건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비극적인 참상을 평화와 생명, 인권의 차원에서 해월해 나가고자 하는 가치를 살펴보았다. 우리는 때때로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산다. 문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4·3문화예술축전의 현재적 의미를 연행이론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도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많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Richard Schechner, Between Theater and Anthropolog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85.
- _____, The Future of Ritual,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3.
- _____, Performance theory, New York: Routledge, 1998.
- 리차드 셰크너, 김익두 옮김, 『민족연극학』, 한국문화사, 2004.
- 리차드 셰크너, 이기우 외 옮김, 『퍼포먼스 이론 I,II』, 현대미학사, 2004.
- 요한 하위징아, 이종인 옮김, 『호모 루덴스』, 연암서가, 2007.
- 호르헤 라라인, 김범춘 외 옮김, 『이데올로기와 문화정체성』, 모티브북, 2004.
- 류정아, 『축제인류학』, 살림, 2003.
- _____, 『축제의 원칙』,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 오정근, 『축제의 의미와 구조』, 한국학술정보, 2010.
- 표정옥, 『놀이와 축제의 신화성』, 서강대학교출판부, 2009.
- 남덕현, 『축제문화의 제현상:축제의 이론적 정립과 새로운 축제 모형 창출을 위한 학제적 접근1』,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 김홍열, 『축제의 사회사: 인문학의 눈으로 축제를 들여다보기』, 한울, 2010.
- 김영순, 『축제와 문화콘텐츠』, 다할미디어, 2006.
- 윤선자, 『축제의 문화사』 한길사, 2008.
- 윤선자, 『축제의 정치사』 한길사, 2008.
- 정근식, 『축제, 민주주의, 지역활성화』, 새길, 2010.
- 권귀숙, 『기억의 정치』, 문학과 지성사, 2006.
- 이영권, 『제주역사기행』, 한겨레 신문사, 2004.
-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 박찬승, 『마을로 간 한국전쟁』, 돌베개, 2010.
- 제주 4·3제50주년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편, 『유적지 기행 잃어

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1998.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화해와 상생』, 제주 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8.
- _____, 『화해와 상생 제주4·3위원회 백서』, 2008.
- 제주문화예술60년사편찬위원회, 『제주문화예술60년사』, 제주특별자치도, 2008.
- 제주4·3연구소, 『(무덤에서 살아나온)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 역사비평사, 2002.
-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연합 제주도지회, 『4·3문화예술운동사 1~2』,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연합 제주도지회, 2010.

논문

- 류정아, 「축제의 연행론적 분석」, 『한국프랑스학논집』 Vol.47, 2004.
- 심승구, 「1795년 정조의 8일간 화성행차의 문화적 가치와 관광자원화」, 『수원학연구』 제6호, 2009
- _____, 「수원 화성행궁의 문화공간 활용과 미래가치 - 역사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수원학연구』 제8호, 2011
- 임재해, 「한국 축제 전통의 지속 양상과 축제성의 재인식」, 『비교민속학회』, 2010.
- 이정재, 「축제 콘텐츠의 문화원형적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2008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09.
- 박연정, 「제주 4·3 사건의 문화적 재현에 관한 연구: 현장 체험의 유무를 통하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 한운섭, 「4·3평화교육이 제주지역개발에 미치는 효과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0.
- 현혜경, 「제주4·3사건 기념의례의 형성과 구조」, 전남대 대학원, 2008.
- _____, 「4·3과 곳의 재현」, 『민주주의와 인권』, 제5권 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5.
- 박영기, 「구술자료를 활용한 역사 수업 방안:제주4·3사건을 중심으로

- 로」, 경희대 교육대학원, 2010.
- 박지옥,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 교육대학원, 2009.
 - 문소희,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안 연구: 5·18체험관 구상을 중심으로」,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2009.
 - 윤기봉, 「5·18기념 행사의 발전과정과 문제점」, 전남대 행정대학원, 2000.
 - 강성곤, 「문화 상품 개발에 관한 연구:5·18민중항쟁을 중심으로」, 조선대 대학원, 2000.
 - 조정현, 「별신국의 전승력과 축제적 연행의 원형」, 안동대 대학원, 2008.
 - 이상훈, 「현대건축에서 재현의 의미에 관한 연구:비표상주의 비판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2009.
 - 문정환, 「지역축제의 현대적 특성과 의미:대구·경북 지역의 축제를 바탕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8.
 - 김미란, 「지역축제에 관한 연구: 소통과 탈 소통적 속성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2006.
 - 한은영(2011), 「5.18기념의례의 재현과 세대계승: 5.18청소년문화제(Red Festa)를 중심으로」, 전남대 대학원, 2011.
 - 김기란, 「조선시대 무대 공간의 연행론적 분석-산대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20집, 2006.
 - 한진오, 「제주도 입춘굿의 연행원리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7.
 - 박찬식, 「4·3증언에 나타난 제주민의 자치의식」, 『탐라문화』 제28권,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회, 2006.
 - 권귀숙, 「4·3의 대항기억과 영상」, 『제주도연구』 24집, 제주학회, 2003.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과거사정리 활동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7.

인터넷 기사

- 「朴대통령 위령제 불참, 측근들은 “·3은 무장 폭동」, 『프레스리안』, 2013년 4월 3일.

(URL: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403115712)

- 「남재준 국정원장, 軍강연서 “제주4·3은 무장폭동」, 『시사제주』, 2013년 4월 3일.

(URL:<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76937>)

- 「4·3은 ‘좌익 세력’ 때문?, 교과서 ‘역사관 왜곡’ 심각」, 『헤드라인 제주』, 2011년 3월. 25일

(URL:<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476>)

- 「“3대 지나면 눈물 없어져, 20년 4·3예술제도 바뀔 때」, 『제주의 소리』, 2013년 4월 27일.

(URL: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8786>)

- 「영화 ‘지슬’ 오명 감동 “관객이 많이 들어도 마음이 아프고 울컥」, 『경향신문』, 2013년 3월 13일.

(UR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22103405&code=960401)

- 「4·3 60주년 ‘평화의 꽃을 달자」, 『미디어제주』, 2008년 4월 4일.

(URL: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88>)

- 「‘4·3넋 달래러...’ 시내 한복판서 벌어진 굿판」, 『제주의 소리』, 2013년 4월 2일.

(URL: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7786>)

참고 온라인 사이트

- 디지털제주문화대전 4·3문화예술제

(URL:http://jeju.grandculture.net/Contents/Index?contents_id=GC00700012)

- 제주4·3평화기념공원 홈페이지 (URL: <http://www.jeju43.jeju.go.kr>)

- 제주민예총 (URL: <http://www.jejuculture.co.kr>)

- 제주4·3평화재단 (URL: <http://www.jeju43peace.or.kr>)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URL: <http://www.jeju43.or.kr>)
- 제주4·3연구소 (URL: <http://www.jeju43.org>)
- 제주4·3평화공원 (URL: <http://jeju43.jeju.or.kr>)
- 제민일보-4·3특집
(URL: <http://www.jemin.com/news/section.html?section=S1N22>)



부록

[부록 1] 4·3사건 인명 피해기록

숫 자		언급 시기	언급 주체	전 거	비 고
희생자	이재민				
15,000		49.2.15	스위니 신부	미대사관문서 49.3.14	
20,000		49.3	연합신문	『연합신문』 49.3.4	
	64,378	49.3	도민대표 6명	『동아일보』 49.3.12	
15,000		49.3	주한미육군 사령부	주한미육군사령부 보고 49.4.1	
17,000		49.4.2	LA한인들	LA한인들이 트루먼대통령에게 보낸 제안서 49.4.2	
15,000		49.4.10	뉴욕타임즈	『뉴욕타임즈』 49.4.10	
15,000		49.5	미군사고문단	미대사관문서 49.5.18	
	7만여	49.5.17	장기영	『국무회의록』 49.5.17	
40,000		49.6	김영진 특과원	『경향신문』 49.6.28	
30,000		49.6	제주도 당국	『조선중앙일보』 49.6.28	인구 282,942(46년) 250,400(49년)
29,702	97,703	49.9	서울신문	『서울신문』 49.9.1	내무차관 일행 과 동행 취재
30,000	8만	49.9	서재권	『신천지』 49.9월호	
30,000		50.2.10	김충희 도지사	『국무총리실서류』 50.2.10	
27,719	78,534	50.4	김용하 도지사	미대사관문서 50.5.23	
60,000		52.9.27	라이언 신부	라이언의 서한 52.9.27	
27,719		53.	제주도청	『제주도세일람』	
65,000		60.5.30	고담룡 국회의원	『제주신보』 60.5.31	
50,000 ~60,000		60.7	고창무	『조선일보』 60.7.17	
40,000 ~50,000		61.1.26	김성숙 국회의원	『조선일보』 61.1.26	

[부록 2] 4·3사건 물적 피해기록

집 계 시 기	수 치				출 전
	마 을	가 옥	공 공 시 설	기 타	
49.3.4	295부락	2만여호	-	-	조선중앙일보 49.3.4
49.3.4	73리	20,280동	-	-	연합신문 49.3.4
49.3.12	295부락	12,985호 26,337동	학교(34)	-	동아일보 49.3.12
49.3.23	-	16,797호 30,461동	-	-	자유신문 49.3.23
49.3.25	-	17,912호 33,489동	-	-	경향신문 49.6.29
49.3월말	-	18,000호	학교(47)	-	자유신문 49.4.19
49.4.23	-	33,500호	-	대소공장(20여)	국도신문 49.4.23
49.5.17	300부락	3만여호	학교(40)/교실(220)	식량 6만석	국무회의록 49.5.17
49.5월말	300부락	18,000호	학교(46)/면사무소(4)/공공건물(10여)	-	신천지 49.9월호
49.6.2	300부락	17,912호 33,489동	학교(44)	공장(39)	조선일보 49.6.2
49.6.28	-	2만여호	-	-	조선중앙일보 49.6.28
49.7.20	-	26,790호	-	-	국도신문 49.9.8
49.9.1	-	39,280동	-	-	서울신문 49.9.1
50.2.10	-	4만동	-	-	국무총리실서류 50.2.10
50.5.23	-	39,285동	-	-	미대사관문서 50.5.23
50.7.26	296마을	-	-	-	미대사관문서 50.7.26

[부록 3] 잃어버린 마을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곤을동 표석



잃어버린 마을 곤을동 마을터

[부록 4] 북촌리 너븐숭이 일대



북촌 너븐숭이 일대 움광발



북촌 너븐숭이 일대 애기무덤

[부록 5] 다량쉬동굴 학살터



다량쉬동굴 발견 당시 희생자 유골



큰 돌로 막아 놓은 다량쉬동굴 입구

[부록 6] 제주4·3평화공원과 4·3평화기념관



제주4·3평화공원 일대



4·3평화기념관

[부록 7] 4·3너븐숭이기념관



북촌 4·3너븐숭이 기념관 너븐숭이 일대 위령비

[부록 8] 4·3문화예술축전(2007~2013) ‘전야제’ 현황

구분	주제	내용
2007 59주년 14회	이 땅에 그리움이 있다	1부 평화선언의 마당 - 정해년 4·3 열림굿, 환상사, 4·3 그리고 평화에 관하여(영상), 2007 제주평화선언 선포식, 항쟁과 평화의 시 낭송, 2007 제주평화의제 2부 평화의 춤 상생의 춤 - 진혼무, 4·3평화의 춤 3부 항쟁의 노래, 평화의 노래 - 4·3당시 항쟁 노래, 4·3 평화의 노래
2008 60주년 15회	60년의 기억,60년의 희망,진실의 노를 저어 평화의 바다로	식전행사 - 풍물놀이, 4·3음식체험행사 1부 기념식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외 2부 평화선언 - 평화선언문 낭독 등 3부 문화공연 - 금관 5중주, 시낭송과 영상퍼포먼스, 회심곡, 내레이션과 영상의 조우, 풍물공연, 노래
2009 61주년 16회	시원, 그 봄날을 그리다	1부 시원 - 놀이패 한라산의 삼석울림, 4·3희생자유족회의 꽃피행렬, 이광수의 비나리, 일본인 나라이 치도리의 노래 공연 2부 봄날 - 자파리연구소의 섬이야기, 오경현의 샌드애니메이션 제주도, 양정원, 한영애 노래, 시낭송 3부 기원 - 평화기원문 낭독, 시민합창단 노래
2010 62주년 17회	겨울, 봄날을 향한 그리움	1부 그리움 - 풍물굿패 ‘신나락’ 삼석울림, 꽃피행렬-제주 4·3희생자유족회, 추모시 낭송 2부 만남 - 제주오름민속무용단 공연, 그해 겨울의 가족사-시와 영상, 오키나와 가수 노래 공연, 동북아평화연대 메시지 낭독 3부 봄날 - 풍물굿패 ‘씨알누리’ 통일비나리, 청주 실내악단 ‘신모듬’ 실내악연주, 재일교포가수 이정미 노래공연, 평화대합창 부대행사 : 사진전 ‘당신은 어디 있나요’
2011 63주년 18회	재회, 그 해 가을날의 약속	1부 약속 - 삼석울림, 연유담음 2부 가을 - 연합공연(풍물굿패 신나락, 놀이패 한라산, 민요패 소리왓, 원), 특별공연(테너 현행복, 제주대 음악학과 기악3중주) 3부 재회 -이정미 노래공연, 대동풀이 ‘애기동백꽃의 노래’ 한마당 부대행사 : 사진전. 당신은 어디있나요 “저 한라산이 저 바다가 느네 어떻게방이여”
2012 64주년 19회	그해 여름처럼, 바람이 분다	1부 그해 - 삼석울림, 연유담음(주제영상), 평화메시지, 인사말 2부 여름 - 주제공연(연합공연), 주제시낭송, 진혼무

		3부 바람 - 주제영상, 초대가수, 평화대합창 부대행사 : 사진전 ‘당신은 어디있나요’, 먹거리 제공
2013 65주년 20회	4·3거리굿-기억 과 동행하다	참여마당 - 영화 지슬 사진전, ‘진아영, 그녀의 삶은 곧 4·3’, 역사음식 전시 및 체험, 역사퀴즈 퍼즐놀이, 페이스페인팅, 강정평화상단 평화상품 판매, 4·3관련 도서 전시 및 판매, 유해발굴 사진전 공연마당 - 제주두루나눔, 제주어지킴이 성아시, 민요패 소리왓, 어린이민요단 소리나라, 국악 연희단 하나아트, 모다정, 노래세상 원, 일본 합창단 솔레이유 거리굿 - 시청일대

[부록 9] 4·3문화예술축전(2007~2013) ‘4·3평화인권마당극제’ 현황

구분	주제	내용
2007 59주년 14회	생명의 호흡, 평화의 몸짓	열림굿 : 길놀이, 생명살림굿 여는 공연 : ‘사월굿 헛묘’ 공식초청작 : ‘찔레꽃 피면(대구)’, ‘밤(목포)’, ‘4.24의 바람(일본 오사카)’, ‘둥글어진다는 것은 낮아집니다(부산)’, ‘팔칠전(부산)’, ‘귀신은 뭐하나(대전)’ 닫는 공연 : ‘일어서는 사람들(광주)’, 석살림굿 특별공연 : ‘열사굿, 지나가리라(서울)’, ‘14처’, ‘삼승할망 꽃놀래(제주)’, ‘순간의 왕(대만)’ 부대행사 : 워크숍(생명평화기원굿 ‘우리 이제 다시 헤어지지 말아요’)
2008 60주년 15회		여는굿 : 삼석울림, 청신의례, 생명살림굿 여는 공연 : ‘사월굿 버즘나리’ 공식초청작 : ‘누가(대전)’, ‘봄날, 우리 어머니의 어미니의(부산)’, ‘밥이야기(대구)’, ‘공해강산 종을씨고(충북 청원)’ 닫는 공연 : ‘술래소리(광주)’ 닫는굿 : 송신의례, 생명평화기원굿 부대행사 : 군뱅놀이 특별공연 : ‘거리극 눈물, 길’, ‘부부가’, ‘아리랑 아리랑 아리리요 4·3고개를 넘어간다’
2009 61주년 16회		여는 굿 : 생명살림굿 여는 공연 : 사월굿 초청공연 : ‘굿거리 트로트(부산)’, ‘섬이야기(제주)’, ‘물은 산을 넘지...(서울)’, ‘백수의 전설(대전)’, ‘꽃등 들어 님 오시면(광주)’ 특별초청공연 : ‘홀어지면 죽는다(부산)’, ‘하늘을 가는 물고기, 바다를 나는 새(일본)’

		<p>닫는 곳 : 생명평화기운 곳 ‘쌀, 물 그리고 나무’</p> <p>부대행사 : 군병놀이</p>
2010 62주년 17회		<p>여는 곳 : 생명살림 곳</p> <p>여는 공연 : ‘하늘을 가는 물고기 바다를 나는 새(일본)’</p> <p>초청공연 : ‘청실홍실(광주)’, ‘달밤블루스(부산)’, ‘그와 그녀의 옷장(안산)’, ‘공장의 불빛(청송)’, ‘현 책방(부산)’, ‘삼팔선 놀이(대구)’</p> <p>닫는 공연 : 사월곳 백조일손</p> <p>부대행사 : 군병놀이</p>
2011 63주년 18회		<p>여는 곳 : 생명살림 곳</p> <p>여는 공연 : ‘현해탄의 새’</p> <p>초청공연 : ‘소원곳 할미새(청주)’, ‘하늘가는 물고기 바다 나는 새(일본)’, ‘언젠가 봄날에(광주)’, ‘사생결방(안산)’</p> <p>닫는 공연 : ‘할미풀이(청송)’</p> <p>부대행사 : 군병놀이</p>
2012 64주년 19회		<p>여는 곳 : 생명살림 곳</p> <p>여는 공연 : ‘너 붉은 사랑(부산)’</p> <p>초청공연 : ‘마중(광주)’, ‘오돌또기(제주)’, ‘돌아온 약장수(대전)’</p> <p>닫는 공연 : ‘산호수 놀이’</p> <p>부대행사 : 군병놀이</p>
2013 65주년 20회		-

[부록 10] 2007~2013년 4·3문화예술축전 ‘4·3미술제’ 현황

구분	주제	내용
1994 46주년 1회	닫힌 가슴을 열며	도내 젊은 작가들의 4·3주제 미술작품 50여점 전시
1995 47주년 2회	뉘이여 오라	42명의 미술·사진 작품이 1부와 2부로 나뉘어 전시. 4·3의 흑백논리, 서북청년단 등을 소재로 참담한 실상을 회화로 형상화함.
1996 48주년 3회	4·3-그 되살림과 깨어남의 아름다움	4·3 - 1996 제주, 진실, 기억, 진혼의 주제별로 전시공간을 분리하여 전시. 50~90년대까지의 관련 사진 전시하며 그 갈등구조를 다큐멘터리식으로 전시
1997 49주년 4회	자연·사람·역사	제주 공동체를 위한 ‘함께 사는 진솔한 내력’을 다양한 주제로 보여주는 미술 전시
1998	4·3주제전 -	미완의 역사인 4·3의 과제 해결에 대중적 공감을

50주년 5회	상극의 빗장을 열고 상생의 아름다움으로/ 특별전 2,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됨./50년의 4·3, 5년의 4·3미술전, 강요배 4·3역사그림전
1999 51주년 6회	보이지 않는 손 보는 눈	4·3과 미국과의 관계를 공동설치작품으로 전시
2000 52주년 7회	역사가 서린	4·3특별법 제정 계기로 제주의 역사, 자연, 인간들의 당시 기록사진 및 현재의 유적답사, 사진 등을 미술작품과 연계하는 작업을 통해 4·3미술작품의 가능성 모색
2001 53주년 8회	한라와 무등, 역사의 맥	4·3과 광주 5·18항쟁에 대한 역사적 체험과 예술적 상상력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전시. 지역적 아픔의 역사를 넘어 전국적인 미술제로서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문화교류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
2002 54주년 9회	일상이 된 테러, 두드려라!	만연된 테러를 우리들의 시각으로 만져보고 두드려보기로 하는데, 이유는 4·3은 그 자체가 테러의 복잡한 그물망이자 백화점이기 때문임
2003 55주년 10회	4·3미술 10년의 역사전-진실의 햇불 밝혀 평화의 바다로	탐미협이 역대 4·3미술제 작품들 중 작가 개인의 대표작은 모아 10여년간의 작품들을 재조명하고 예술적 성과들을 재조명
2004 56주년 11회	길이 끝난 곳에서 다시 길을 만나다	지난 10년의 길 끝에서 다시 길을 가야함. 4·3의 또다른 길을 찾고자 하는 의도를 지님
2005 57주년 12회	동행	구체적인 주제없이 작가 자신들의 내면화된 표현을 통해 '나에게 4·3은 무엇인가'를 모색하고 형상화함으로써 작가 자신의 고민과 사색의 흔적을 담아내는 장.
2006 58주년 13회	바람, 바람	4·3미술의 의의는 결국 지나간 역사가 바로 오늘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역사의 현재화를 통해 보다 나은 인간 삶을 지향하는데 있음을 전시를 통해 보고자 함
2007 59주년 14회	다시 그 곳에 서서	작가 자신들의 좀 더 내면화된 표현을 통해 '나에게 4·3은 무엇인가?'를 모색하고 형상화 함으로써 작가 자신의 고민 과 사색의 흔적을 담아내는 장. 4·3유적지 순례를 통해 과거의 현장과 현재의 현장을 잇는 작가의 상상력에 의존하는 전시.
2008 60주년 15회	開土-60년 역사의 변증	개토란 '땅을 연다'는 뜻으로 땅을 봉인 당한 지 60년이 지 난 지금 봉인되었던 땅에 다시 햇살이 비치고 그 빛에 의 해 드러날 것은 드러나기에, 죽음의 그날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의 기억을 재구성하여 전시로 나타냄.
2009	-	강문석, 고길천 등 10여명의 작가들의 작품 전시

61주년 16회		
2010 62주년 17회	4:3, 그리고 내력담	작가가 실제 4:3을 경험한 사람들이나 유족을 만나 실제로 구술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이를 작품에 반영하여 형상화하 였다.
2011 63주년 18회	4:3미술 초심을 묻다!	추모하고 신원하는 것으로 17회 4:3미술제를 염. 4:3미술의 장정을 위하여 현재까지 가져온 4:3운동에 대한 반성과 4:3 미술에 대한 새로운 지도 그리기를 시도함. 새로운 세기, 새로운 시대에 4:3미술이 가야할 방향 모색과 지난 행로에 대한 맥짚기.
2012 64주년 19회	식구	‘식구’는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부모나 형 제, 자매를 일컬을 때 쓰는 말이지만 지향점이 같은 사람들 이 함께할 때 결속을 말하기도 한다.우리 몸에 새겨진 식구 들의 흔과 역사를 드러내고자 하는 전시
2013 65주년 20회	평, 여러 개의 시선들	탐라미술협회의 4:3미술 20년을 기념하여 20세기 중반에 일어났던 4:3이 21세기의 미술인들에게 어떠한 책무를 주 었는지, 현 시대의 평화란 무엇인지 짚어보는 전시

[부록 11] 1994~2013년 4:3문화예술축전 ‘4:3평화음악회’ 현황

구분	주제	내용
1994 46주년 1회	‘섬은 고운 노래를 부른다’	4:3노래공연 - 창작 노래, 시, 영상이 결합된 형식으로 4:3을 주제로 한 기존곡과 창작곡으로 공연
1995 47주년 2회	섬의 하나됨을 위하여	추모노래 공연 - 여는 마당 4:3을 모르는 우리들의 사월이야기, 푸는 마당 숨겨진 제주역사, 사라진 공동체의식, 맺는 마당 도민단결, 진상규명, 도민명예회복의 3부로 구성
1996 48주년 3회	-	-
1997 49주년 4회	97 사월서곡 첫	1부 도입 화석 시와 음악, 2부 평화의 노래들, 3부 마무리 함께 부르며. 알면서도 침묵했던 4:3의 역사를 노래로 풀어냄으로써 4:3규명과 도민의 명예회복, 진일보한 창작음악의 발표의 의미를 가짐
1998 50주년 5회	Since 1948 화석	해원상생을 주제로 ‘레드헌트를 위하여’, ‘4:3의 진상’, ‘화석-50년의 침묵과 강요의 세월’, ‘금혼-해원,상생’을 내용으로 함
1999 51주년 6회	기억이 아파올 때	‘소년’, ‘금혼’ 등 11곡의 4:3노래 공연
2000	부활	1부 프롤로그, 2부 진상, 그리고 보이지 안흔 손, 3부 부활, 그

52주년 7회		아름다운 노래로 구성
2001 53주년 8회	‘반백년의 4:3, 10년의 노래’	(전야제 노래공연) 지난 10년간 제주지역 작곡가들이 만든 4:3 주제 창작곡 및 4:3 당시 불렀던 노래를 선보임. 노래 속에 담긴 4:3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 마련함
2002 54주년 9회	4:3 위령음악제	4:3으로 무단히 죽은 원혼들의 넋을 달래고 진정한 상생의 그날을 맞기 위해 개최됨. 고두심을 비롯하여 장사익, 안치환 등의 대중가수가 초대됨
2003 55주년 10회	-	-
2004 56주년 11회	4:3위령 평화음악제	제주문화방송에서 마련한 음악제로 대중가수들과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 국무총리 등 주요인사들이 참여하여 해원과 상생을 기원함
2005 57주년 12회	-	-
2006 58주년 13회	‘원’의 4:3콘서트 다시 봄	매년 4:3을 주제로 노래를 불렀지만, 올해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내 안의 이야기를 담아 지나간 상처로서의 4:3이 아니라 우리가 풀어내야 할 ‘살이있는 4:3’을 그려내고자 함
2007 59주년 14회	인간, 전쟁, 평화 그리고 사랑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양한 음악을 통해 4:3정신을 예술적으로 형상화, 국제적 평화음악제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첫 걸음으로 삼음 출연진 : 제주시립교향악단, 바리톤 최현수, 소프라노 유미숙, 안숙선, 안치환, 신호범, 유열
2008 60주년 15회	생명평화의 땅 화해와 상생의 울림	4:3정신의 음악예술적 형상화 시도 및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폭 넓은 상호소통의 장을 마련함. 제주공동체 정신을 극대화하기 위해 참여 주체의 다양화, 세대별 관객을 차별화·포용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생명과 평화’, ‘화해와 상생’의 참의미를 공유함 출연진 : 크라이넛, 리쌍, 정인, 소규모 아카시아밴드, 이디라마, 이용관, 제주윈드오케스트라, ‘원’, 사물놀이 ‘마로’, 고혁진
2009 61주년 16회	-	출연진 : 홍익보육원 핸드벨콰이어, 장원형, 조정호, 원, 제주윈드오케스트라, 강허달린 밴드, 고구려 밴드
2010 62주년 17회	00씨, 평화를 부르다	출연진 : 필 뮤직, 제주빌레앙상블, 트베블스, 주니어 레인보우, 작은새, 최상돈, 베트남 초청팀, 원
2011	제주사람들	제주에서 활동하는 음악인들과 샌드애니메이션의 두가지

63주년 18회		예술을 통해 4·3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풀어내고자 함. 출연진 : 제주빌레앙상블, 남원사람들, 원, 최상돈, 민예총 영상위원회
2012 64주년 19회	강정·평화·바 람	4·3은 죽은 역사, 지나간 역사가 아닌 생명력을 지닌 역사로 우리의 곁에 남아 있다. 4·3은 평화를 지향하며 현재 문제의 중심이 있는 강정의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4·3음악제를 진행하였다. 출연진 : 가향판소리마당, 고구려밴드, 너는 구름, 뚜럼부라더스, 제주빌레앙상블, 원
2013 65주년 20회	저 산 위에, 아름다운 꽃그늘 아래	4·3문화예술축전 2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행사로, 4·3예술제 20회 기념식과 4·3테마의 노래, 음악을 중심으로 개최. 제1부 : 제20회 4·3문화예술축전 기념식 제2부 : 제20회 4·3문화예술축전 음악회 출연진 : 양정원, 모다정, 제주가톨릭소년소녀합창단, 소리그네 가향, 노래세상 원

[부록 12] 2002~2013년 4·3문화예술축전 ‘해원상생굿’ 현황

구분	주제	내용
2002 54주년 9회	살아남은 자의 흰 그늘	위령굿, 춤보시, 시보시, 소리보시, 참배분향 또는 소지사름, 다랑쉬 표식 건립, 설치미술전으로 구성됨
2003 55주년 10회	북촌리	2002 디링쉬 해원상생굿에 이은 예술의 역사 위령 방식으로 새로운 형식의 위령굿으로, 북촌리 대학살 사건으로 죽은 넋들의 위무. 반상여놀이, 꽃놀림 마당극, 나눔국수, 혼불러오기, 시낭송, 소리굿, 몸굿, 위령굿, 분향배례 및 소지사름, 뒷풀이의 구성
2004 56주년 11회	울담만 남은 보름코지 , 맺힌살 풀다	4·3 당시 해촌이면서도 초토화 당한 유일한 장소인 화북동 곶은돌은 여전히 재건되지 못한 채 당시의 울담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유적지임. 기존의 관행적인 위령제, 유교적 제의의 위령제를 탈피해 예술적인 위령의 형식과 내용을 고민하며 전통적인 무속제의를 형식과 민족예술의 형식을 결합하여 시도되는 새로운 해원굿의 장임. 설치미술전, 증원, 위령굿, 소지사름, 거육대 쌓기로 구성됨.
2005 57주년 12회	표선백사 장	보시, 춤보시, 위령굿, 참배분향 또는 소지사름
2006	목시물굴	목시물굴은 선흘리 초토화 이후 선흘리민들이 은신해 있다가

58주년 13회		희생당한 곳으로 해원상생곳을 통해 죽은 땅을 살리는 제의를 지내고자 함
2007 59주년 14회	빌레못굴 해원상생 곳	조형물 설치 : 열두문, 흑백만장, 배향신위 설치, 까마귀숫대 설치, 설치미술(제웅, 희생자위패, 액막이방사탑 등) 춤극 : 강미리선생님 위무의 춤 공연 소리극 : 가수 최상돈과 놀이패 한라산의 연출로 당시 상황을 재현, 위무하는 증언극 마당 시극 : 강덕환(제주 작가회의) 빌레못 동굴 학살터를 주제로 한 내용 위령극 : 제주칠머리당굿보존회 집전, 집전심방(김윤수) 외 회원 10여명 참배분향 또는 소지 사름 : 위령극에 참석한 본주들과 관객들이 모두 참여하여 거북대를 중심으로 위패와 소지를 태우는 행위로 억울한 영혼의 원한을 풀고 편안한 저승길로 들어서기를 기원하는 의례
2008 60주년 15회	의귀·한 남·수망 리	조형물 설치 : 열두문, 흑백만장, 배향신위 설치, 까마귀숫대 설치, 설치미술 몸극(영계모집) : 놀이패 한라산 위령극 : 제주칠머리당굿보존회 집전 참배분향 및 소지 사름 : 위패와 소지 태움으로 기원
2009 61주년 16회	짓눌린 육신, 환생꽃으 로 살아	삼식올린 : 사물놀이 파로 상생의 춤 : 청주 춤패 너울. 쓰러져간 영혼의 아픔과 희망을 춤과 가락으로 표현, 영령님을 추모하는 해원춤판 비나리 : 양혁준. 세월 소에 쌓인 액을 몰아내는 소리극 증언본풀이 : 유가족. 증언으로 풀어보는 4·3생애사 해원상생곳 :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유가족과 영신들을 위무하는 제주 전통의례
2010 62주년 17회	성산포 터진목	소리극 : 풍물굿패 신나락, 정공철, 현희순. 억울하게 죽어간 혼백을 불러보이고, 거두어 굿청으로 모시는 제의. 춤극 : 오영숙. 살풀이로 죽은자와 산자의 아픔을 춤으로 위무. 시극 : 김석교. 성산포 터진목 학살터를 주제로 위무의 시 낭송. 위령극 :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유가족과 영신들을 위모하는 의례. 참배분향과 지드림 : 위령극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지에 음식을 싸서 바다에 던지는 지드림으로 죽은 영혼의 원한을 위로하고 평안을 기원. 조형물 설치 : 열두문, 흑백만장, 까마귀숫대, 기메설치, 액막이방사탑
2011	-	-

63주년 18회		
2012 64주년 19회	강정마을	<p>시보시 김경훈, 허영선, 노래보시 : 민요패 소리왓 춤 보시 : 김희숙</p> <p>굿보시 : 집전심방 서순실·정공철 심방, 제주큰굿보존회 참배 분향 또는 소지사름</p> <p>소리 보시 및 만판굿 : 풍물굿패 신나락, 놀이패 한라산, 일강정민속보존회</p> <p>설치미술 : 4·3해원거육대 쌓기, 4·3만장설치, 4·3영개제웅 설치, 4·3거리전-사진,미술,벽시</p>
2013 65주년 20회	무등이왓	<p>굿보시 :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보존회 참배 분향 또는 소지사름</p> <p>소리보시 : 모다정, 시보시 : 김수열, 풍장 및 진혼무 : 노리안 마로</p> <p>설치미술 : 4·3해원거육대 쌓기, 4·3만장 설치, 4·3영개신위 설치, 4·3당시 마을 지도 설치</p>

[부록 13] 2007~2013년 4·3문화예술축전 ‘4·3사진전’ 현황

구분	주제	내용
2000 52주년 7회	다시 보는 4·3 다큐 기록 사진전	98년 ‘긴 어둠속을 지나’ 주제의 사진전 출품작 다시 모아 전시
2001 53주년 8회	4·3유물 및 유적전 : ‘꽃진 자리’	4·3유물과 유적지 현장 촬영사진을 전시, 역사를 후세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역사 현장의 복원이라는 의미를 가짐
2002 54주년 9회	4·3다큐 - 다랑쉬의 슬픈노래	<p>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올해의 ‘4·3다큐멘터리전’의 주제는 ‘다랑쉬굴의 역사적 복원’임.</p> <p>다랑쉬굴 사건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역사적 복원 의미를 포함</p>
2003 55주년 10회	-	-
2004 56주년 11회	4·3후유장애 자생애사아카 이브전 : 몸에 새긴 역사의 기억	<p>4·3후유 장애자에 대한 문제는 제대로 조명받지 못함. 이제 4·3후유 장애자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드러내며 4·3해결과정에서 소홀히 여겨진 부분들을 짚어보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p>
2005	4·3사진전	-

57주년 12회		
2006 58주년 13회	질곡의 세월 흔적	4·3 당시의 여러 이미지를 통해 제주인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며, 당시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표현하며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는 4·3을 이야기함
2007 59주년 14회	증언	사진으로 말하는 4·3의 현장을 보여주는 추념사진전. ‘한의 증언’, ‘59년만의 증언’, ‘죽어서도 말한다’, ‘오늘도 그 한을 노래로 달랜다’, ‘몸으로 말하다’ 등의 작품으로 4·3을 들여다보고자 함
2008 60주년 15회	-	-
2009 61주년 16회	4·3 위령제 역사 사진전	
2010 62주년 17회	까마귀	까마귀는 제주의 신산한 역사를 말해주는 새로 사진 속 까마귀를 통해 시간의 한 귀퉁이에서 역사를 보고 또 함께 하며 제주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그리고자 하였다.
2011 63주년 18회	가메기 모른 식게	제주 4·3 당시 하루 동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마을인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와 동북리에서 같은 날 치러지는 제사를 통해 집단학살의 참상을 되돌아보고 화해와 상생, 평화로 가는 길을 모색하는 시간의 기록전
2012 64주년 19회	4·3후유장애 인들의 아픔을 다시 듣다	4·3 당시 입은 상처로 60여 년 간 고통을 당해 온 4·3후유장애인 가운데 아직도 27명은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모습은 담은 사진전을 통해 4·3이 남긴 흔적을 보고자 한다.
2013 65주년 20회	저 켜것들의 삶	4·3의 진실을 알리는 데 있어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선구적,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제주민예총 산하 예술분과 회원들의 희생적인 예술활동을 기리며 그들의 모습을 전시한다.

[부록 14] 2003~2013년 4·3문화예술축전 ‘4·3문학기행’ 현황

구분	주제	내용
2003 55주년 10회	4·3문학기행	4·3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문학의 만남. 방사탑~북촌 너븐숭이~목시물굴~다랑쉬굴.
2004 56주년 11회	만나는 눈으로, 느끼는 가슴으로	방사탑~현의합장 신묘역~작가와와의 대화~새술왓~의귀초등학교~속냉이골~동산가름~오름, 시낭송회~주둔소
2005 57주년	4·3문학기행	-

12회		
2006 58주년 13회	이 땅의 역사, 작을지라도 소중한 생명을 찾아서'	-
2007 59주년 14회	돌아오라! 바람 속에, 파도 속에 잠긴 이름이여	제주시 신상공원 4·3해원방사탑→다랑쉬 '잃어버린 마을과 다랑쉬굴'→서산포 '터진목' 학살터→구) 성산초등학교(서북 청년단 주둔지 사무실)→오조리 '식산봉' 오름→종달리 '두문포'→하도리 '금봉사'→동북리 '바람타는 폭낭, 굴왓 학살터'→기녕리 '마당깨'
2008 60주년 15회	역사를 따라서 상생의 발자국을 찍다	
2009 61주년 16회	-	-
2010 62주년 17회	해원의 바다를 건너, 상생의 들판을 향해	신상공원 방사탑, 제주시 해안동에서 도평, 광령, 이호, 외도 등, 서부지역 4·3유적지 순례
2011 63주년 18회	4·3을 넘어서는 4·3문학	신상공원 출발. 제주시 해안동~도평, 광령, 이호, 외도 등 서부지역 4·3유적지 순례
2012 64주년 19회	문학기행	신상공원 방사탑→잃어버린 마을 영남동→하원동 4·3위령비→서홍동 면나무→시오름 주둔소→소남머리→강정 4·3학살터, 서봉호 공덕비
2013 65주년 20회	4·3예술기행	제주시 노형동 해안마을 일대

[부록 15] 2001~2009년 4·3문화예술축전 '역사맞이 거리굿' 현황

구분	주제	내용
2001 53주년 8회	3·1집회 및 시위재현	제주시청~관덕정 가장행렬과 이애주의 출판 노래공연을 통해 4·3발발의 단초가 된 1947년 3·1절 행사를 재현
2002 54주년 9회	상생의 4월을 위하여	제주시청~관덕정 거리행진(기마대, 차량행렬, 유족, 학생, 시민, 풍물패 등), 3·1시위 재현, 노래공연 (전야제와 병행)
2003 55주년 10회		제주시청~관덕정. 본진, 동진, 서진의 거리행렬의 거리굿 행진과 거리에서 펼쳐지는 굿판을 통해 4·3영령들에 대한 추모와 위무를 이루어내는 대동의 장을 펼

2004 56주년 11회	순례와 행진, 그 희망의 시작	시청광장에서 4·3항쟁 56주년기념도민대회를 한 뒤, 식전행사로 허맹이 만들기, 길놀이와 꽃 나눠주기를 함. 걷기대회와 꽃놀림 마당극, 거리도청제를 한 뒤 해변공연장에서 문예한마당이 어우러짐.
2005 57주년 12회	역사의 눈으로 역사를 본다	신산공원. 앞풀이(국가보안법 등 현안 문제 성토, 3·1대회 재현, 왓샤시위), 탄압(미군정, 경찰에 의한 탄압), 항쟁(입산, 인민항쟁가, 북춤 항쟁 결의), 학살, 진혼(삼석울림, 병신춤, 베가르기), 진혼과 결의(노래)
2006 58주년 13회	다시 피는 꽃	제주시청에서 진행. 역사적 사실이 문화적 행위와 만나 재현됨으로써 역사의 현재성을 이끌어내는 거리굿
2007 59주년 14회	4·3 그 의로운 행진	1부 항쟁의 뿌리-시원, 2부 해방 1945~1946, 3부 탄압 1947, 4부 항쟁 1948, 5부 학살 1949, 6부 동백꽃지다 2007
2008 60주년 15회	死를 넘는 삶의 기억	앞풀이 : 삼석울림(날과국섬김), 만장신위 만들기(영갯기 만들기), 군문열기(거리도청제), 본풀이 : 연유담음(해방과 자치, 3·1대시위, 4·3봉기, 5·10입산), 영개울림(모의재판놀이, 허맹이놀이, 각자 신위와 평화소원지 만들기, 평화제단 완성하기), 뒤풀이 : 진설, 기원, 대동
2009 61주년 16회	평화의 바다 정의의 물결	4·3 연합공연으로 대동굿 한마당이 개최됨. 한라산, 풍물굿패 신나락, 민요패 소리왓, 노래 원, 춤패 두루나눔, 제주주민자치연대, 도민참가자 등이 합동으로 연합공연을 펼침. 출연자 모두 한데 어우러져 즉흥적으로 무대가 연출되었음.

[부록 16] 2007~2011년 4·3문화예술축전 ‘청소년축제·도민한마당’ 현황

구분	주제	내용
2007 59주년 14회	평화의 꽃을 달자	전시·체험·놀이 문화공연
2008 60주년 15회	청소년 평화축제 제주청소년 역사 속으로 뛰어들다	마당공연 : 취타대, 마칭밴드, 하울소 사물놀이패, Awake, 관악연주 무대공연 : 승무북가락, 수화퍼포먼스, 합창, 드레인, 콩나물과 시루, 디베이스, 비누방울, BS Crew, H.K., 헬리온 체험마당 : 부스체험, 4·3 60 이미지 그리기, 캐릭터 책갈피 만들기, 풍등날리기, 퍼즐맞추기, 퀴즈풀이 등
	평화의 꽃을 달자	전시·체험·놀이 문화공연
2009	청소년	공연마당 : 마칭밴드, 손영신무용아카데미, 승무북가락과 사물

61주년 16회	평화축제 역사를 딛고 희망으로	놀이, 성읍초등학교 연물놀이 외 참여마당 : 청소년 평화축제 사생대회 체험마당 : 7대7는 법 체험 및 빙떡지지기 체험, 숨겨논 그림찾기, 기억! 그리고 4:3
2010 62주년 17회	청소년 평화마당 친구를 위한 진혼곡	공연마당 : 제주YWCAcidth년 방과 후 아카데미 무언극, 대안학교 문화교육 ‘들살이’ 친구들 외 리코더 합주와 해금연주, 승무북가락 연주, 국악양상블 ‘천년학’, 국악동요와 함께하는 4:3 ‘할머니의 4:3이야기’, ‘뚝박새’, ‘혼저옵서예’, 연극 ‘밤이 되면 뒷산에서 귀신이 나온다’, 오카리노 공연, 피아노 연주, 하모니카 연주, ‘뚝강이’ 낭독 및 작품에 관한 이야기, 노래공연 체험마당 : 평화의 씨앗나누기, 평화의 풍선 날리기, 비누방울로 평화 그리기, ‘뚝강이’ 저자와의 만남, ‘뚝강이’ 천막극장, 티셔츠 쪽물들이기 등 체험
2011 63주년 18회	청소년평화 예술제 청소년-지평 선-평화	전시 : 청소년 워크샵 및 창작물 전시(당신은 매우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희망은 있지 않을까요) 문학 : 청소년 시와 산문 낭송 공연 : 진혼곡(하모니카, 트럼펫, 리코더 및 피아노 연주, 합창), 특별공연(마임 예술가 초청 공연, 위디시티 그룹 공연)

ABSTRACT

The contemporary meaning of the Art Festival for the Jeju April 3rd Uprising

Heo, Soo-jeong
Department of Global Culture and Contents
Graduate Sch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istorical events can be delivered to those people who did not actually experienced it through many different ways. For instance, people are able to look those events over, which happened in modern history, through the images or records. Also, they are able to observe the reproduction of books, images, commemorative events, festivals, and construction of memorial halls based on those materials. The Art Festival for the Jeju April 3rd Uprising, As a main point of this thesis, is a festival that represents the reproduction of Jeju 4·3 incident.

A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Art Festival for the Jeju April 3rd Uprising is 4·3 incident. Jeju 4·3 incident was an event that occurred in Jeju Island, by the time of shooting incident at March 1st in 1948. According to this incident, many residents were killed during the process of suppression as well as the armed conflicts, and it finally ended at September 21st, 1954.

This art festival focuses on sublimation of 4·3 incident in art through the reproduction of 4·3 incident in many different ways in contrast to memorial ceremony in the past, that mostly focused on the consolation of victims and commemoration of the event. The Art Festival for the Jeju April 3rd Uprising reproduces the 4·3 incident through various genres such as image, play, music, photography, and work of art and

contains a strong ritual characteristic as one of the Culture and Art Movement.

This thesis began with the concerns about how the Art Festival for the Jeju April 3rd Uprising represents today.

4·3 Culture and Art Festival deals with the historical facts of 4·3 incident and it also expresses the tragedy of the incident into a beautiful way through the reproduction with many different genres in an artistic point of view. Therefore, the festival is not only able to storytelling about 4·3 incident to a young generation who did not experience it, but it also builds a cultural identity with establishing the environment that people can share their old wounds. Also, it takes a role of making a meaningful place of Jeju Island which is one of the most popular places for the tourists and remembered as of the most beautiful Island while bringing the historical memorization into different places.

It talks about why there must be a discussion about the point of the problem that the incident carries and why there should be a clear investigation in a matter of 4·3 incident rather than just figuring out the occurrence of the event.

In the Art Festival for the Jeju April 3rd Uprising, 4·3 incident does not just used as a simple material. It consists of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who actually experienced the incident as well as the follow-up generations and they speak about the reconciliation and coexistence. From the beginning of the memorial ceremony and now it changed its name and extended its contents, the Art Festival for the Jeju April 3rd Uprising keeps writing down the history of those questions that asking for the value of the life while sublimating an agony of the tragic incident in a form of art at the same time.